



정답과 해설

고등 언어와 매체



1. 언어와 매체의 본질



(1) 언어의 특성과 국어의 위상



내용 확인 문제

본문 11~19쪽

- 01 ⑤ 02 ① 03 ② 04 ② 05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문화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다.) 06 ③
07 ④ 08 ② 09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보조사가 발달되어 있다 10 ⑤ 11 ④ 12 ③ 13 ⑤ 14 ②

01 첫 번째 문단에서 언어가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은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세 번째 문단을 통해 언어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첫 번째 문단에서 언어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알 수 있다.

③ 세 번째 문단을 통해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 방언을 통해 그 지역 사회를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세 번째 문단을 통해 계층, 연령,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말이 사회 방언임을 알 수 있다.

02 글쓰기는 언어와 사고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발달하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언어와 사고가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지적 능력이나 사고력도 함께 신장되는 것을 그 예로 들었다.

03 <보기>를 통해 노년층과 젊은 층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나이,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 방언의 예에 해당한다. 방언 중 지역적 요인에 의해 달라진 것을 지역 방언이라 하며, 계층, 연령, 성별, 직업 등의 사회적 요인에 따라 분화된 것을 사회 방언이라 한다.

04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의 언어에는 눈에 관한 단어가 많고, 바다로 둘러싸인 호주의 원주민어에는 다양한 모래 명칭이 발달해 있다. 이는 자연환경과 같은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05 <보기>에 제시된 사례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언어에 반영된 예이다. 이를 통해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언어에 문화가 반영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6 우리 문화는 농경 생활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모’, ‘벼’, ‘쌀’, ‘밥’과 같이 쌀을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다. 즉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가 발달하여, 영어에서 ‘rice’라고 부르는 대상을 벼를 키우는 과정과 밥을 짓는 과정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명칭이 분화하여 발달하였다.

오답 풀이 ① 우리말이 영어보다 사물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다. ‘모’는 논에 옮겨 심기 위해 기른 벼의 싹을 가리키고, ‘벼’는 모가 자란 것이나 쌀의 겉질을 벗기기 전의 낱알을 의미한다. ‘쌀’은 벼에서 겉질을 벗겨 낸 알맹이를 가리키고, ‘밥’은 쌀에 물을 붓고 알맞게 끓여 익힌 먹거리를 의미한다.

② 언어의 역사성에 관한 설명으로 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④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농경 문화가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모’, ‘벼’, ‘쌀’, ‘밥’을 지칭하는 단어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물은 존재했을 것이다.

⑤ 말에는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라면 ‘모’, ‘벼’, ‘쌀’, ‘밥’의 뜻을 구별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면 그 뜻을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07 서술어는 다른 문장 성분들에 비해 위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세 번째 문단에서 다른 성분들은 다소 자유롭게 위치를 바꿀 수 있지만 서술어는 주로 문장의 맨 뒤에 온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8 <보기>를 통해 영어와 달리 국어의 문장에서는 꾸미는 말이 대개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심이 되는 말이 뒤에 오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문장에서 서술어가 원칙적으로 맨 뒤에 온다는 특성에서도 잘 드러난다.

09 ‘성격도 좋아.’와 ‘성격은 좋아.’는 보조사의 차이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은’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따라서 ㉠에 국어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보조사가 발달되어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국어에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보조사가 발달하였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0 이 글에서는 외래어를 고유어로 순화하여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①~④는 모두 첫 번째 문단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국어의 어휘는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고유어는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에 효과적이고, 한자어와 외래어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는 데에 주로 사용된다.

11 ㄱ. 국어에는 마찰음이 세 개밖에 없다. 이처럼 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마찰음이 많지 않다.

ㄷ. 국어에는 마찰음이 /ㅅ, ㅆ, ㅎ/밖에 없다. 따라서 영어의 마찰음 /f, v, θ, ð/에 해당하는 자음이 없다.

ㄹ. 국어의 자음은 ‘ㄱ, ㅋ, ㆁ’, ‘ㄷ, ㅌ, ㄴ’, ‘ㅂ, ㅍ, ㅁ’, ‘ㅇ, ㆁ, ㅈ, ㅊ’처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서로 대립한다.

오답 풀이 ㄴ. 국어에서는 음절의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한다. 영어 ‘spring’은 첫소리에 자음 세 개가 나오지만, 이를 국어로 발음할 때에는 ‘스프링’으로 나누어서 발음한다.

12 <보기>의 ‘외국인 학생’은 거센소리 [ㄷ], 예사소리 [ㄷ], 된소리 [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국어의 자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서로 대립하지만, 다른 언어에는 이러한 특성이 없다. 따라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발음을 구분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국어에는 울림소리(ㄴ, ㄹ, ㅁ, ㅇ)와 안울림소리(ㄱ, ㄷ, ㅂ, ㅅ 등)가 있지만 이는 <보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② 국어에서는 자음 ‘ㄷ, ㅌ, ㅌ’의 발음이 각각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구분된다.

④ ‘달, 탈, 딸’은 모음의 변화가 아니라 자음의 변화만으로 단어의 뜻이 바뀐 경우이다.

⑤ 국어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이지만, <보기>를 통해 국어가 다른 나라의 말을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13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높아진 위상과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을 제시하며,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어의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를 당부하고 있다.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한국어의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어를 바르게 지키고 소중히 가꾸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4 [A]를 통해 한글은 ‘바람 소리, 학의 울음, 닭의 해치는 것, 개가 짖는 것’과 같은 의성어도 모두 표기할 수 있을 만큼 소리를 구현하는 데 효과적인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한글의 우수성은 한글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 한글의 우수성

-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
- 원리를 이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고 사용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
- 자음과 모음을 모아쓰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서 정보를 바르게 검색할 수 있어서, 정보화 사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0~23쪽

- 01 ③ 02 ② 03 ③ 04 ‘아범’이라는 어휘와 ‘하계제’의 종결 어미를 통해서 ㉠의 화자가 노년층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언어는 연령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언어는 그 사회의 특성을 담고 있다.) 05 ⑤ 06 ② 07 ⑤ 08 ③ 09 ④
10 ③ 11 ⑤ 12 ④ 13 ①

01 이 글은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의 관계를 설명하는 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언어와 사고의 상호 작용을 보여 주는 예를, (다)에서는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예를, (라)에서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 주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02 <보기>의 바사인은 무지개 색을 분류하는 말(언어)이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지개 색(사고)도 그 두 가지로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는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03 우리말에서 ‘고모, 이모, 큰어머니(백모), 작은어머니(숙모)’와 ‘친삼촌, 외삼촌, 큰아버지(백부), 작은아버지(숙부)’는 지시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우리말이 영어보다 동일한 대상을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게 분화하여 발달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반영되기 때문에 문화의 특성에 따라 언어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②, ⑤ <보기>를 통해 우리말에는 영어보다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세분화되어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족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족 중심의 생활 문화를 지녔으며, 이와 같은 문화가 우리말에 반영되었음을 보여 준다.

④ ‘큰아버지(백부)’는 ‘둘 이상의 아버지의 형 가운데 맏이가 되는 형을 이르는 말’로 영어인 ‘uncle’로 직역한다면 그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백부’의 뜻을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04 ‘아범’은 ‘결혼하여 자식을 둔 아들을 조금 대접하여 이르는 말’이고, ‘하계제’는 노년층이나 장년층에서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의 화자가 노년층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은 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말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 주는데, 이를 통해 언어와 사회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의 화자가 노년층임을 알 수 있는 근거 두 가지를 썼다.	☐
㉠을 바탕으로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썼다.	☐

05 ㉠과 ㉡를 통해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족의 언어에 눈을 구별하여 나타내는 어휘가 많다는 것, 사면이 바다인 호주의 원주민어에 모래와 관련된 어휘가 많다는 것은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 주는 예이다.

06 (가)의 ‘여기저기’를 통해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저기, 이것저것, 국내외’ 등의 표현은 자연스럽지만, ‘저기여기, 저것이것, 국내외’ 등의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인간은 자신에게 가까운 것을 먼저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이는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표현하려는 사고가 언어에 반영된 것이다.

07 ‘정희가 책을 읽었다.’를 통해 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하여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가’와 ‘을’을 통해 ‘정희’가 주어이고, ‘책’이 목적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어말 어미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며, 어말 어미(종결 어미) ‘-다’는 문장을 끝맺어 주는 기능을 한다.

08 국어의 특성은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보조사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는 새처럼 날고 싶었다.’에 보조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처럼’은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조사로, 앞에 오는 체언을 부사어로 만들어 주는 격 조사이다. 격 조사는 결합하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이다.

- 오답 풀이** ① ‘도’는 보조사에 해당한다.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② ‘는’은 보조사에 해당한다. ‘는’은 앞말에 ‘강조’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④ ‘만’은 보조사에 해당한다. ‘만’은 앞말에 ‘강조’나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 등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⑤ ‘마저’는 보조사에 해당한다.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참고 자료 ++ 조사의 개념과 종류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의미를 더한다.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 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로 나뉜다. 격 조사는 ‘가’, ‘에서’, ‘를’, ‘의’와 같이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주어, 부사어, 목적어, 관형어 등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리고 접속 조사는 ‘와/과’, ‘(이)랑’, ‘하고’와 같이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이다. 마지막으로 보조사는 ‘은/는’, ‘도’와 같이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덧붙여 주는 조사이다.

09 ㉢는 ‘사과를 좋아하니?’와 같이 문장 성분의 일부를 생략해도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하지만 ㉠는 문장 성분의 일부를 생략하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의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 순이고, ㉢의 어순은 ‘주어-서술어-목적어’ 순이다.
 ② ㉢는 ‘나는 좋아해 사과를’, ‘사과를 좋아해 나는’과 같이 어순을 바꿔도 문장의 의미가 통하지만, ㉠는 ‘I apples like’, ‘Apples like I’와 같이 어순을 바꾸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거나 원래의 문장과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③ ㉢는 ‘-니’와 같이 어미의 변화를 통해 의문문을 만들지만, ㉠는 문장 앞에 ‘do’를 삽입하여 의문문을 만든다.
 ⑤ ㉢는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 어말 어미 ‘-니다’의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에는 높임 표현이 없다.

참고 자료 ++ 국어의 특성

- 국어의 문장은 대체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예 나는 사과를 좋아해.
- 국어의 문장은 어순의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예 나는 사과를 좋아해. / 나는 좋아해 사과를. / 사과를 좋아해 나는.
- 국어의 문장은 일정한 맥락에서 문장 성분의 일부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 너는 사과를 좋아하니? → 사과를 좋아하니?
- 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하여 이들이 주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예 너는 사과를 좋아하니? - 어미의 변화를 통해 의문문을 만들.
- 국어는 높임 표현이 발달하였다. 예 할아버지께서는 사과를 좋아하십니다.

10 (다)에서는 국어 음절의 초성(첫소리)에는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해 ‘spring’을 ‘스프링’으로 적는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국어의 마찰음은 /ㅅ, ㅆ, ㅎ/뿐이고, 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마찰음이 많지 않다.

②, ④ 국어의 자음은 ‘ㄱ, ㄴ, ㄷ’처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서로 대립한다. 이는 다른 언어에는 없는 독특한 음운 대립이다.

⑤ 국어의 마찰음에는 /ㅅ, ㅆ, ㅎ/밖에 없지만, 영어에는 국어의 음운에 없는 /f, v, θ, δ/ 등의 마찰음이 더 있다.

11 영어 ‘boat[배]’와 ‘vote[투표]’의 발음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국어에는 다른 언어에 비해 마찰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즉 영어에는 마찰음 /v/가 있지만, 국어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b/와 /v/의 발음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stress’를 ‘스트레스’로 표기하는 것은 음절의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는 국어의 음운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영어 ‘spring’과 ‘stress’에는 음절의 첫소리에 ‘spr’, ‘str’과 같이 둘 이상의 자음이 왔지만, 국어에서는 음절의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 그래서 모음 ‘ㅡ’를 붙여서 ‘스프링’, ‘스트레스’와 같이 음절을 나누어 표기한 것이다.

12 <보기>에서는 ‘발깁다’, ‘빨깁다’, ‘끓다’, ‘불긋불긋하다’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국어에는 같은 계통의 색이라도 미묘한 느낌의 차이를 표현하는 색채어가 발달하였다.

참고 자료 ++ 국어 어휘의 특성

국어의 어휘는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다.

고유어	의성어나 의태어 등 상징어가 발달하여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표현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한자어와 외래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는 데에 흔히 이용된다.

13 <보기>에서는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개이득’, ‘튀다’와 같은 은어를 사용하고 있다. ‘개이득’은 큰 이득을 취했거나 좋은 상황일 때 사용하는 말로 은어에 해당한다. ‘튀다’는 ‘달아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은어에 해당한다. 은어는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이다. 방송에서 은어를 사용하면 정보 전달이 잘 이루어지기 어렵고,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매체와 매체 언어의 특성

내용 확인 문제



본문 27~29쪽

- 01 ① 02 매체 언어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작용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소리, 음성, 그림, 문자, 동영상 등 여러 양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확장된 언어이다. 03 ④ 04 ② 05 ⑤
06 복합 양식성 07 ②

01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매체 자료의 영향력은 더 작아진 것이 아니라 더 커졌다. 두 번째 문단에서 인터넷의 등장으로 수용자와 생산자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졌고, 매체를 통해 생산된 자료들의 파급력이 강해졌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② 첫 번째 문단에서 매체의 발달은 사람들의 소통 방식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언어문화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③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매체는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다. 두 번째 문단에서 과거에는 주로 책,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매체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였지만, 지금은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등의 매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였다.

④ 두 번째 문단에서 매체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이라고 하였고, 세 번째 문단에서 매체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⑤ 두 번째 문단에서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등의 매체는 소리, 음성, 그림, 문자, 동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고 하였다.

02 세 번째 문단에 매체 언어의 개념이 나타나 있다. 매체 언어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작용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기존의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소리, 그림, 동영상 등의 다양한 기호까지 아우른다.

03 책,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과 같은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는 여러 정보를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는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많은 자본과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산자로 참여하기 어렵다. 또한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가 생산하는 자료는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므로 매체 자료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가 제한적이다.

04 뉴 미디어는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는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지만, 뉴 미디어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쌍방향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오답 풀이 ① 뉴 미디어는 컴퓨터, 인터넷, 이동 통신 기기 등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매체이다.

③ 뉴 미디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기존 매체들의 특성을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된 형태로 구현한다. 따라서 뉴 미디어는 기존에 별개로 존재하던 여러 매체들을 통합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뉴 미디어는 누구나 쉽게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거나 나눌 수 있고, 받은 정보에 대한 반응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정보와

지식뿐만 아니라 생각과 정서도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다.

⑤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뉴 미디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으며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05 매체 언어는 음성과 문자뿐만 아니라 소리, 그림, 동영상 등과 같은 다른 차원의 기호들을 결합하여 의미를 생성한다(ㄴ). 이처럼 매체 언어는 여러 양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확장된 언어로, 의미 작용을 하는 모든 언어와 기호를 포괄한다(ㄷ).

오답 풀이 ㄱ. 소리,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이 통합되면서 매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ㄴ. 매체 언어는 기존의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소리, 그림, 동영상 등의 다양한 기호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06 매체 언어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언어 양식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활용한다. 이와 같은 매체 언어의 특성을 가리켜 복합 양식성이라고 한다.

07 텔레비전은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에 해당하므로 뉴 미디어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뉴 미디어에는 컴퓨터, 인터넷, 이동 통신 기기, 누리 소통망(SNS), 블로그 등이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30~33쪽

01 ③ 02 매체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여 의사소통의 범위와 효과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03 ① 04 ② 05 ④ 06 ② 07 ② 08 ④
09 ㉠: 문자의 발명과 인쇄술의 발달, ㉡: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발명, ㉢: 컴퓨터 기술의 발달 10 ⑤ 11 ① 12 ④ 13 ⑤

01 (라)에서 매체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지 않더라도 정보나 지식, 생각이나 정서 등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매체가 발달하면서 먼 대면 소통이 증가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매체는 정보와 지식, 사상과 정서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② (다)에서 매체 언어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작용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며, 기존의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소리, 그림, 동영상 등의 다양한 기호까지 아우른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인터넷의 등장은 수용자와 생산자 사이의 경계를 희미하게 하고, 매체를 통해 생산된 자료들의 파급력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⑤ (가)에서 매체의 발달은 사람들의 소통 방식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과 언어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나)에서도 매체 환경의 변화가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02 (다)에서 매체 언어를 사용하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의사소통의 범위와 효과를 넓힐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매체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음성 언어, 문자 언어의 한계와 관련지어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03 책, 신문, 잡지 등은 인쇄물의 형태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인쇄 매체이다. 인쇄 매체는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사진, 그림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함께 활용하여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한다.

04 (가)~(다)는 매체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 생산과 전달 방식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글을 통해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알 수 있다. (가)에서는 책,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의 특성을, (나)와 (다)에서는 컴퓨터, 인터넷, 이동 통신 기기 등 정보 통신 기술과 결합한 뉴 미디어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05 기존에 별개 영역으로 존재하던 여러 매체들을 통합하여 만든 매체는 책,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가 아니라 뉴 미디어이다.

06 (가)에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는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자본과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나)에 뉴 미디어는 누구나 쉽게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거나 나눌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07 (나)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음성, 문자, 그림, 소리 중 어느 하나만을 활용하는 일이 드물다고 하였다. (다)에서도 현대 사회의 의사소통은 복합 양식성을 기반으로 한 매체 언어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08 인터넷 신문 기사와 같은 뉴 미디어는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생산자에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신문 기사는 댓글로 기사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인터넷 신문 기사는 매체 언어이므로 소리, 음성, 사진, 동영상은 활용할 수 있다.

② 인터넷 신문 기사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활용 덕분에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신문 기사는 인터넷에만 접속하면 바로 읽을 수 있어서 책이나 신문 등의 인쇄 매체에 비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⑤ 인터넷 신문 기사는 전자 공학 기술이나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매체이므로 뉴 미디어에 해당한다.

09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는 음성 언어에서

시작하여 문자 언어, 매체 언어 순서로 발전해 왔다. (다)에서 최초의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된 언어는 음성 언어였으나, 문자의 발명과 인쇄술의 발달로 음성 언어 대신 문자 언어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발명으로 다시 음성 언어의 지위가 회복되었으며,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매체 언어를 의사소통에 활발히 사용하게 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들어갈 말로 '문자의 발명, 인쇄술의 발달'과 같이 문자 언어가 독점적인 지위를 지니게 된 배경을 썼다.	☐
㉡에 들어갈 말로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발명'과 같이 매체를 직접 제시하며 음성 언어의 지위가 회복된 배경을 썼다.	☐
㉢에 들어갈 말로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같이 매체 언어가 활발하게 사용된 배경을 썼다.	☐

10 음성 언어는 음성을 통해 전달되며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문자 언어와 매체 언어는 각각 문자와, 문자·음성·소리·영상 등을 통해 전달된다. 이들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음성 언어는 음성(청각)을, 문자 언어는 문자(시각)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므로 단일 양식으로 볼 수 있다. 매체 언어는 문자, 음성, 소리, 영상 등의 여러 양식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내용을 전달한다. 따라서 매체 언어는 음성 언어, 문자 언어에 비해 복합 양식적 성격이 강하다.

② 현대 사회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자 언어, 음성 언어, 매체 언어 가운데 무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는 글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문자 언어나 매체 언어는 시·공간의 제약이 적다고 볼 수 있다.

11 휴대 전화로 동일한 문자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하였으므로 문자라는 단일 양식의 매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합 양식성이란 하나의 매체에서 말, 글, 그림, 몸짓, 음악 등의 여러 양식이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합 양식성은 ②~⑤와 같은 뉴 미디어에 잘 드러나는 특성이다.

12 뉴 미디어는 누구나 쉽게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거나 나눌 수 있다. <보기 1>에서 무명 가수였던 진행자가 인터넷을 통해 1인 방송을 제작하고(ㄷ), 여러 사람에게 노래를 들려줄 수 있었던 것(ㄴ)은 이러한 뉴 미디어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13 <보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뉴 미디어의 특성과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이 잘 드러나는 매체 자료이다. 매체 언어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음성과 문자만이 아니라 소리, 그림, 동영상 같은 기호들을 결합하여 의미를 생성하므로 <보기>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배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보기>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효과음과 그림을 사용해 출연자와 동시에 의사소통하고 있는 대화 장 속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문 34~37쪽

- 01 ④ 02 ④ 03 ② 04 ④ 05 ① 06 ⑤
07 ⑤ 08 영어에서는 음절 하나에 여러 개의 자음이 첫소리에 올 수 있지만, 국어에서는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한다. 09 ①
10 ⑤ 11 인터넷의 등장은 수용자와 생산자의 경계를 희미하게 했고, 매체를 통해 생산된 자료의 파급력을 강하게 만들었다. 12 ③
13 ② 14 ④ 15 ④

01 <보기>로 보아 언어와 사고는 상호 작용을 한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도 한다. ㄷ은 대상을 지칭하는 언어가 없더라도 인간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02 사회 방언은 한 언어에서 계층, 직업, 연령, 성별 등에 따라 특징적으로 쓰는 말이다. ‘피방’과 ‘개이득’은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회 방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방’과 ‘개이득’은 사회 계층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적 방언으로 볼 수 있다.

03 ②는 ‘옥수수’의 지역 방언으로, 이를 통해 동일한 대상이라도 사회에 따라 대상을 지시하는 언어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문화적 특성이 언어에 반영된 예로,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오답 풀이 ① 농기구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농경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는 농기구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가 있다.

③ 우리말에는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발달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가족 중심의 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④ 영어에서는 ‘rice’라는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지만 우리말에는 농경 문화와 관련한 말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를 ‘도’, ‘벼’, ‘쌀’, ‘밥’이라는 단어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⑤ 언어에 기후나 자연환경과 같은 문화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04 <보기 1>에 제시된 단어는 의성어나 의태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고유어에는 의성어나 의태어 등 상징어(소리나 모양, 동작 따위를 흉내 내는 말)가 발달되어 있다는 어휘적 특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시된 단어들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교체만으로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국어의 자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서로 대립한다는 음운적 특성을 알 수 있다(㉡). ㉠, ㉡, ㉢, ㉣는 모두 국어의 특성에 해당하지만 <보기 1>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05 ‘민수가 밥을 먹었다.’에서 조사 ‘가’, ‘을’을 통해 ‘민수’가 주어이고, ‘밥을’이 목적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선어말 어미 ‘-었-’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어말 어미 ‘-다’를 통해 문장을 끝맺고 있다. 이와 같이 국어에서는 조사와 어미를 첨가하여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오답 풀이 ② ㉠의 두 문장은 ‘주어 - 목적어 - 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즉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의 앞이 아니라 뒤에 위치한다. 이처럼 서술어는 주로 문장의 맨 뒤에 오고, 서술어를 제외한 다른 성분들의 어순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③ ㉡을 통해 국어 문장은 영어 문장과 달리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에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보조사가 사용되지 않았고, 주격 조사 ‘에서, 가’가 사용되었다.

⑤ ㉣의 두 번째 문장에는 ‘아버지께서’라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문장의 주성분인 주어가 생략된 이유는, 생략된 주어가 바로 앞 문장의 주어와 동일하여 생략하더라도 맥락상 주어가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어는 일정한 맥락에서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6 <보기>의 ㉠과 ㉢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국어 담화의 특성은 높임 표현이 발달했다는 것이다. ㉢에는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으며, 특수 어휘 ‘뵈러(뵈다)’를 사용해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어미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과 ㉢을 통해 국어 담화에는 높임 표현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③ ㉡에는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과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주격 조사 ‘께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서술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고, 어말 어미 ‘-뵈다’를 사용해 상대방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를 첨가하여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어의 첨가어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④ ㉣에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07 ‘사람’과 ‘바람’의 ‘ㅅ’과 ‘ㅂ’은 둘 다 예사소리이므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대립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소리를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단어의 예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발-팔’에서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짜리-자리’에서는 된소리와 예사소리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콩-궁’에서는 거센소리와 예사소리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곰곰-꼼꼼’에서는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

08 영어는 음절 하나에 여러 개의 자음이 첫소리에 올 수 있지만, 국어는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음절의 첫소리에 ‘spr’이나 ‘str’로 둘 이상의 자음이 왔지만, 국어에서는 음절의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모음 ‘ㅡ’를 붙여서 ‘스프링’, ‘스트라이크’로 표기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영어는 음절 하나에 여러 개의 자음이 첫소리에 올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국어는 음절의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한다는 내용을 썼다.	☐

09 국어의 어휘는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뉘며, 한자어와 외래어도 우리말에 포함된다. 한자어와 외래어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는 데 이용되므로 한자어와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고 고유어로만 언어생활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언어생활을 할 때 가급적 고유어를 쓰고, 무분별하게 외국어를 섞어서 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 말의 기원에 따른 어휘의 분류

국어의 어휘는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 고유어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용해 온 순수한 우리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이다. 한자어는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이며, 외래어는 한자어 외에, 다른 언어권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이다.

	특징
고유어	- 상징어가 발달하였음. -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다의어가 많음.
한자어	- 중국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한국식 한자어가 있음. - 우리말로 쓰인 지 오래되었거나 우리말에 맞게 변화한 경우에는 고유어처럼 인식되기도 함.
외래어	우리말로 쓰인 지 오래되었거나 우리말에 맞게 변화한 경우에는 고유어처럼 인식되기도 함.

10 (마)에서는 복합 양식성의 개념과 예가 아니라 (라)와 마찬가지로 뉴 미디어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뉴 미디어는 정보의 전달뿐 아니라 감정과 정서의 공유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매체임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매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매체 언어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작용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③ (다)에서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의 종류와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인 책,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의미 생산과 전달 방식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라)에서는 뉴 미디어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과 결합한 뉴 미디어인 컴퓨터, 인터넷, 이동 통신 기기 등의 의미 생산과 전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1 인터넷의 등장이 의사소통 방식에 미친 영향은 (가)에 제시되어 있다. (가)에서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수용자와 생산자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졌고, 매체를 통해 생산된 자료들의 파급력이 강해졌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인터넷의 등장이 의사소통 방식에 미친 영향 두 가지를 모두 찾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2 (라)에서 기술의 발달로 휴대가 간편한 이동 통신 기기를 통해서도 인터넷을 활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쌍방향적 의사소통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은 더욱 약해졌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는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자본과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여 일반인들이 생산자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② (다)에서 라디오와 같은 전통적 대량 전달 매체는 여러 정보를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마)에서 누리 소통망(SNS)과 같은 뉴 미디어는 인간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즉 이러한 매체의 등장으로 정보나 지식의 전달뿐 아니라 감정과 정서의 공유도 활발해졌다고 하였다. ⑤ (다)와 (라)~(마)로 보아 책, 신문, 잡지, 텔레비전은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이고 인터넷, 누리 소통망(SNS) 등은 뉴 미디어이다.

참고자료 ++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와 뉴 미디어의 특성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	뉴 미디어
- 여러 정보를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음. -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자본과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여 일반인들이 생산자로 참여하기 어려움. - 매체 자료의 전달이 일방적이고, 매체 자료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가 제한적임.	-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짐. - 누구나 쉽게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거나 나눌 수 있음. - 정보에 대한 반응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음. - 별개 영역으로 존재하던 매체들을 통합함. - 정보나 지식의 전달뿐 아니라 감정과 정서의 공유도 활발함.

13 매체 언어는 매체에서 의미 작용을 하는 모든 언어와 기호를 말한다. 따라서 매체 언어는 기존의 문자 언어나 음성 언어뿐만 아니라 소리, 그림, 동영상 등의 다양한 기호를 포괄한다. 이러한 매체 언어의 사용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여 의사소통의 범위와 효과를 넓히고 있다.

14 컴퓨터, 인터넷, 이동 통신 기기 등과 같은 뉴 미디어(new media, 새 매체)는 기존에 별개 영역으로 존재하던 매체들을 통합했다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뉴 미디어는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지 않더라도 정보나 지식, 생각이나 정서 등을 나눌 수 있으므로 '비대면성'의 특성이 있다(㉡). 또한 뉴 미디어는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쌍방향적 소통'의 특성이 있다(㉢).

15 문자, 음성, 소리, 영상 등의 여러 양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와 같은 매체 언어이다. 매체 언어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작용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소리, 음성, 그림, 문자, 동영상 등 여러 양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확장된 언어이다.

오답 풀이 ① 언어 실현 방식을 고려할 때 (가)는 문자 언어, (나)는 음성 언어, (다)는 매체 언어이다. ② 표정이나 말투, 몸짓 등을 통해 상대방의 반응을 즉각 살필 수 있는 것은 (나)와 같은 음성 언어의 특성이다. ③ (나)는 음성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⑤ (다)와 같은 매체 언어는 시·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는다.

2. 담화와 문장의 탐구 및 활용

(1) 담화의 개념과 특성

내용 확인 문제

본문 43~47쪽

- 01 ⑤ 02 ④ 03 ③ 04 ② 05 ⑤ 06 ④
 07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은 물건을 같이 들어 달라는 의미이다. 08 ④
 09 ② 10 오징어에는 타우린 성분이 많아요. 11 ③

01 발화의 형식과 발화의 의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담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고 직접 발화인지 간접 발화인지를 적절히 판단하며 해석해야 한다.

02 두 사람의 대화는 맥락을 고려하여 간접 발화로 해석해야 한다. ‘동생’의 발화에는 날이 너무 더우니 선풍기를 켜는 것과 같은 행위를 ‘형’에게 요청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이에 ‘형’은 알았다고 답하고 선풍기를 켜 주며 요청에 응한 것이다. 따라서 ‘형’이 알았다고 답하고 선풍기를 켜 준 것은 ‘동생’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반응한 것이다.

03 ㉠에는 시간이 늦었는데 왜 이제 들어오느냐고 청자를 책망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는 “불이야!”라는 말 한마디로도 불이 난 위급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담화로 볼 수 있다.

04 ‘집 안을 이렇게 어지럽히다니’라는 발화를 고려할 때, ‘너 몇 살이니?’라는 발화는 집 안을 어지럽히는 행동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질책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간접 발화이다.

오답 풀이 ① ‘집 안을 이렇게 어지럽히다니’라는 말을 고려할 때 정확한 나이를 묻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집 안을 어지럽히기 위해 갖추어야 할 나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 안을 어지럽히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④ 집 안을 어지럽히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질책하는 것이지만, 나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음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다.

⑤ 주어진 발화만으로는 화자와 청자의 나이를 알 수 없으며, 집 안을 어지럽히는 것을 꾸짖는 내용이지 예의 없는 행동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다.

05 사회·문화적 맥락은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역사적·사회적 상황과 이념,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는 상황 맥락에 포함된다.

06 ‘외국인’은 상대가 베푸는 호의를 한 번쯤 거절하는 태도를 겸손하다고 여기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라는 ‘남자’의 거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즉, ‘외국인’은 비언어적 맥락 중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

비언어적 맥락

상황 맥락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담화 주제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말함.
사회·문화적 맥락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역사적·사회적 상황과 이념,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 등을 말함.

07 발화자는 무거운 물건을 혼자 들고 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친구’에게 바쁘냐고 묻는 것은 바쁘지 않으면 물건을 같이 들어 달라는 요청을 담은 발화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고려해야 할 담화의 맥락을 알맞게 썼다.	☐
발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08 응집성은 담화 내의 발화들이 형식적 장치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담화 내의 발화들이 일관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통일성이다.

참고 자료 ++

담화의 통일성과 응집성

통일성	담화 내의 발화들은 통일된 주제 아래 모여 있어야 함.
응집성	담화 내의 발화들은 형식적 장치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

09 ‘남학생’은 ‘여학생’에게 자신이 박물관에 잘 찾아갈 수 있을지를 물었는데, ‘여학생’은 엉뚱하게 “너 신발 멋지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담화의 통일성을 해치는 발화이다.

오답 풀이 ① ‘여학생’은 ‘남학생’의 질문에 어울리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을 뿐이지 언급한 말을 반복하지는 않았다.

③ ‘여학생’의 발화 중에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표현은 없다.

④ ‘여학생’은 주제의 일관성에서 벗어난 발화를 하여 담화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을 뿐, 장소에 맞지 않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⑤ 담화의 주제에서 벗어난 발화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학생’은 ‘남학생’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10 ‘요리사’는 오징어 손질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오징어에 타우린 성분이 많다는 발화는 담화의 주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담화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

11 ‘국립 중앙 박물관’이라는 말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곳을 가리키는 말인 ‘거기’나 ‘그곳’ 정도의 대용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남학생의 두 번째 발화는 국립 중앙 박물관에 처음 가 본다는 내용인데 세 번째 발화는 그곳에 잘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내용이다. 따라서 상반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을 이어 주는 말인 ‘하지만’이나 ‘그렇지만’ 정도의 접속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01 ② 02 ③ 03 ③ 04 ④ 05 ③ 06 ②
07 ④ 08 ⑤ 09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여 '남자'의 거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10 ② 11 두 번째 발화와 세 번째 발화를 이어 주는 접속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 응집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그러나'를 '그리고'로 바꾸어야 한다. 12 ③

01 맥락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공간적 상황으로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은 담화의 흐름이나 의미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담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담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화자, 청자, 맥락, 발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동생'의 발화 "왜 이렇게 덥지?"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할 때 날씨가 더우니 선풍기를 켜 달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발화를 직접 발화로 해석하지 않고, 맥락을 고려하여 간접 발화로 해석해야 담화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⑤ (나)~(라)에서 담화의 흐름이나 의미 해석에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언어적 맥락은 담화 내에서 어떤 발화의 앞뒤에 놓인 발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맥락이고, 사회·문화적 맥락은 언어적 맥락이 아니라 비언어적 맥락이라고 하였다.

02 '친구 1'의 말을 발화 자체로만 해석하면 '친구 2'에게 박이 시끄러운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간접 발화로 해석하면, 박이 시끄러우니 창문을 닫아 달라고 '친구 2'에게 요청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친구 2'는 이제 됐냐고 되물으며 창문을 닫아 그 요청에 응한 것이다. 따라서 <보기>에 제시된 담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고려하여 간접 발화로 해석해야 한다.

03 왜 이제서야 집에 들어왔냐는 '어머니'의 발화와 죄송하다고 용서를 비는 '아들'의 발화를 고려할 때, 이 담화는 '어머니'가 늦게 들어온 '아들'을 꾸짖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보기>는 화자('어머니'), 청자('아들'), 발화들("왜 이제서야 집에 들어온 거야? 지금 몇 시야?",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맥락('어머니'가 늦게 들어온 '아들'을 꾸짖는 상황)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담화라고 할 수 있다.

④ '아들'은 ③의 발화에 앞선 "왜 이제야 집에 들어온 거야?"라는 발화를 고려하여 '어머니'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고 '어머니'께 용서를 빈 것이다.

⑤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공간적 상황인 맥락을 고려한다면 '아들'은 늦게 들어와서 '어머니'께 혼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몇 시야?"라는 발화는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질책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밤 11시예요."라고 대답하는 것은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대답이다.

04 담화는 발화들이 모여 이루어진 언어 형식이다. 그런데 <보기 1>은 발화가 연속되어 이루어진 말이 아니므로 담화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골라 보세요."라는 하나의 발화로도 물건을 팔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고, 화자가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외침으로써 서로의 정보와 생각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담화로 볼 수도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 1>은 특정 청자를 대상으로 한 발화는 아니지만,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골라 보세요."라는 말을 외침으로써 서로의 정보와 생각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발화라고 볼 수 있다.

②, ③ <보기 1>은 하나의 발화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⑤ 화자는 '상인'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만, 청자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발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공간적 상황은 시장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05 <보기>의 사례는 '여학생'이 더 먹으라는 상대방의 권유를 거절하는 상황인데,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그 표현이 달라진 경우이다. 이는 의미상 같은 발화라도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언어 표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발화의 의미는 같지만 언어 표현이 달라진 예이다. 발화의 의미는 상대방의 권유에 대한 거절로 동일하다.

② <보기>에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는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담화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언어 표현이 달라진 것이다.

④ 담화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은 드러나지 않으며, 같은 발화를 다르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⑤ <보기>의 상황에서는 담화 주제에 대해 청자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사회적 배경 지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06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는 말은, 실제로 차린 음식이 적다는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겸손이나 겸양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이는 요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겸손함을 나타내는 관습적 의미로 보아야 한다.

07 사회·문화적 맥락인 조선 건국과 고려 폐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고려한다면, 이방원은 (가)를 통해 고려 말의 충신인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고 회유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만수산 드령춤'의 비유를 통해 새로운 왕조를 함께 세울 것을 은근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만수산 드령춤', '백 년' 등은 새로운 왕조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고 자료 + + (가), (나) 제재 개관

	(가)	(나)
갈래	평시조	평시조
제재	고려의 멸망	고려의 멸망
주제	시세(時勢)에 따라 살려는 인생관, 충신에 대한 회유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
특징	직유법, 대구법, 상징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됨.	반복법, 점층법, 설의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됨.

08 “할아버지께서 많이 시장하실 거야.”라는 앞의 발화를 고려할 때 ‘그거’의 의미가 ‘음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들’이 “이 음식이요?”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아버지’가 말한 ‘그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09 우리나라에서는 상대가 베푸는 호의를 한 번쯤 거절하는 태도를 겸손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있는데, ‘외국인’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여 ‘남자’의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외국인’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완결된 문장으로 썼다.	☐

10 ‘남학생’이 두 번째 발화에서 반복한 ‘국립 중앙 박물관’은 ‘거기’와 같은 대용 표현을 사용하여 대체하는 것이 좋고, ‘남학생’이 사용한 접속 표현 ‘그러니까’는 ‘하지만’, ‘그렇지만’ 등의 접속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여학생’의 “너 신발 멋지다!”라는 발화는 주제에서 벗어나 담화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 한다.

오답 풀이 나. ‘그러나’는 ‘하지만’과 같은 의미로 대립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하지만’을 ‘그러나’로 바꾸어도 글의 응집성을 높일 수는 없다. 따라서 ‘여학생’의 발화 내용에서 “너 신발 멋지다!”를 삭제할 때 ‘하지만’도 함께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르. ‘남학생’은 ‘여학생’에게 자신이 박물관에 잘 찾아갈 수 있을지를 묻고 있으므로 주어 ‘너를’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담화 내의 발화들은 형식적 장치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응집성이라고 한다. 응집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용 표현, 접속 표현 등을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보기>의 두 번째 발화와 세 번째 발화를 이어 주는 접속 표현인 ‘그러나’는 앞뒤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이보다는 ‘그리고’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응집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썼다.	☐
접속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을 썼다.	☐
‘그러나’를 ‘그리고’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참고자료 ++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는 방법

- **대용 표현 사용:** 대용 표현은 이미 언급한 내용의 반복을 피하고자 다른 표현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대용 표현을 사용하면 담화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음.
예 거기, 이것 등
- **접속 표현 사용:** 접속 표현은 두 문장을 이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접속 표현을 사용하면 담화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음.
예 그리고, 하지만, 그렇지만 등

12 ‘그리하여’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거나 앞의 내용이 발전하여 뒤의 내용이 전개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문맥상 버튼을 누르면 그 후 문이 열리는 층이 있게 되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반드시 ‘그리하여’를 ‘그리고’로 바꿀 필요가 없으며 바꾸어야 의미상 타당한 것도 아니다.

(2) 문장의 짜임과 활용

내용 확인 문제

본문 55~61쪽

- 01** ⑤ **02** ③ **03** ② **04**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05** ③ **06** ② **07** ② **08** ①
09 ④ **10** ② **11** 안긴문장은 ‘이마에 흐르는’이고, 그 종류는 관형사절이다. **12** ③ **13** ② **14** ③
15 • 직접 인용절을 안은 문장: 은지는 “하늘이 높다.”라고 중얼거렸다.
 • 간접 인용절을 안은 문장: 은지는 하늘이 높다고 중얼거렸다.

01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독립 성분은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분으로, 독립어가 이에 해당한다.

02 부속 성분인 부사어는 문장에서 용언, 관형어, 부사어 등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정말로’는 용언인 ‘되었구나’를 수식하고 있다.

03 부속 성분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와 용언, 관형어, 부사어 등을 수식하는 부사어가 있다. ‘그는 배우가 아니다.’는 ‘주어, 보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잘’은 용언인 ‘잔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③ ‘성실한’은 체언인 ‘학생’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④, ⑤ ‘친구와’, ‘형에게’는 필수 부사어이다. 필수 부사어는 문장 구성에서 꼭 있어야 하는 부사어이다.

04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몹시 흐리다.’는 ‘비가 오다.’와 ‘하늘이 몹시 흐리다.’라는 두 개의 홑문장이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겹문장이라고 썼다.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났음을 썼다.	☐

05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앞 절은 뒤 절과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 관계를 가진다. 앞 절이 뒤 절과 ‘조건, 의도, 배경, 양보’ 등의 의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06 ②는 '주어, 부사어, 부사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홑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연결 어미 '-아서'에 의해 두 문장이 원인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③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두 문장이 대조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문장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④ 연결 어미 '-려고'에 의해 두 문장이 의도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⑤ 연결 어미 '-고'에 의해 두 문장이 나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문장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07 '밥을 먹거나 잠을 자야겠다.'는 '밥을 먹다.'와 '잠을 자야겠다.'가 연결 어미 '-거나'에 의해 선택의 의미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08 안은문장은 다른 문장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다른 문장 속에 절의 형식으로 안겨 있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하고, 안긴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② 안은문장은 다른 문장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다.

③ 안긴문장은 안은문장 속에 절의 형식으로 안겨서 명사,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 등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안은문장과 대등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안긴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문장이 절의 형식으로 다른 문장 속에 안겨 있는 것이다.

⑤ 안긴문장은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뉜다. 형용사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09 ㉠에서 '그 일을 하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절로, 전체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10 ㉡은 '그가 떠났음', ㉢은 '혼자 집에 남아 있기'라는 명사절을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오답 풀이 ㉠, '등산을 하는'이라는 관형사절을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 '울음'은 용언에 명사형 어미를 결합하여 명사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을 결합하여 만든 명사이다.

11 '우리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에는 '(땀이) 이마에 흐른다.'라는 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관형사절 '이마에 흐르는'이 안겨 있다. 이 관형사절은 뒤에 오는 명사 '땀'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안긴문장으로 '이마에 흐르는'을 썼다.	☐
안긴문장이 '관형사절'임을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12 인용절은 주어진 문장에 인용 부사격 조사 '라고' 또는 '고'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인용절은 독립어가 아니라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13 '숨이 차게'는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사절이다. ②의 '땀이 나서'는 부사형 어미 '-아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사절이다.

오답 풀이 ① '마음이 넓다'는 서술절이다.

③ '정말 미안하다고'는 인용절이다.

④ '가사가 아름다운'은 관형절이다.

⑤ '네가 여행을 가기'는 명사절이다.

14 '나는 이제 아이가 아니다.'는 '주어, 부사어, 보어, 서술어'로 구성된 홑문장이다. 서술어 '아니다' 앞에 오는 '아이가'는 서술절의 주어가 아니라 보어이다.

15 인용절에는 크게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이 있다. 절의 내용과 형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큰따옴표를 붙이고 뒤에 인용 부사격 조사 '라고'를 붙이면 직접 인용절을 만들 수 있고, 원래의 표현을 적절히 고친 후 인용 부호 없이 뒤에 인용 부사격 조사 '고'를 붙이면 간접 인용절을 만들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큰따옴표와 인용 부사격 조사 '라고'를 붙여서 직접 인용절을 안은 문장을 알맞게 만들어 썼다.	☐
인용 부사격 조사 '고'를 붙여서 간접 인용절을 안은 문장을 알맞게 만들어 썼다.	☐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62~65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① **05** ② **06** ⑤
07 한라산 등반을 하려고,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08** ⑤
09 ⑤ **10** ⑤ **11** ④ **12** 이어진문장을 (여러) 홑문장으로 고쳐 써서, 원래 글에 비해 소원의 간절함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13** ⑤

01 '서울시에서'는 체언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어서 만들어진 주어로, 공연을 기획한 주체이다. ④의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02 다른 문장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은 안은문장이다. 안긴문장은 다른 문장에 절의 형식으로 안겨 있는 문장이다.

03 ㉡은 '역사는 늘 변한다.'와 '(역사는 늘) 발전한다.'라는 두 개의 홑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04 <보기>의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이 '원인-결과'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 문장에서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모두 '나는'으로 같다.

05 ‘-아야’는 조건의 의미를 띠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②는 앞 절과 뒤 절이 조건의 의미 관계를 지니고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참고 자료 ++ 연결 어미	
개념	앞 절과 뒤 절을 연결하는 어미
종류	• 대등적 연결 어미: ‘-고’, ‘-지만’ 등 • 종속적 연결 어미: ‘-아서/어서’, ‘-(으)면’, ‘-(으)려고’ 등 • 보조적 연결 어미: ‘-아/어’, ‘-게’, ‘-지’, ‘-고’ 등
기능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는 절을 연결하여 겹문장을 이루고, 보조적 연결 어미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하여 홑문장을 이룬다.

06 ㉠은 앞 절과 뒤 절이 대조의 의미 관계를 가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짜임을 활용하여 ‘세월의 흐름’과 ‘물의 흐름’의 특성을 대조함으로써 물을 아껴 쓰자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은 앞 절과 뒤 절이 ‘-지만’을 통해 대조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④ ‘세월의 흐름’과 ‘물의 흐름’을 대조하기 위해 사용한 대구적 표현이므로, 이를 다른 표현으로 교체하거나 생략하면 표현 효과가 떨어진다.

07 연결 어미 ‘-(으)려고’, ‘-(으)러’, ‘-고자’, ‘-게’ 등을 사용하면 두 개의 홑문장을 이어서 의도의 의미를 갖는 이어진문장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앞 절과 뒤 절에 동일한 표현이 있는 경우 다른 표현으로 교체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우리는’을 생략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조건의 의미를 갖는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이어진문장을 바르게 만들어 썼다.	☐
앞 절과 뒤 절의 동일한 표현인 ‘우리는’ 중 하나를 생략하여 이어진문장을 만들어 썼다.	☐

08 ㉠은 인용 부사격 조사 ‘고’가 절의 표지로 사용된 간접 인용절이다.

09 ㉠은 명사형 어미 ‘-기’로 실현된 명사절 ‘밖에 나가기’에 주격 조사 ‘가’가 붙어 서술어 ‘싫다’의 주어 역할을 한다. ㉡는 명사형 어미 ‘-음’으로 실현된 명사절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음’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서술어 ‘깨달았다’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는 명사형 어미 ‘-기’로 실현된 명사절 ‘학교에 가기’에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 용언 ‘이른’의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10 명사형 어미 ‘-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일이 일어나는 과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은문장의 서술어로 ‘바라다, 기원하다, 결심하다, 두렵다’ 등이 올 때 사용된다. 반면, ‘후회하다’와 같이 평가의 뜻을 지니는 동사나 ‘알다, 깨닫다’ 등과 같은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는 동사가 올 때에는 이미 일어난 일의 의미를 지닌 명사형 어미 ‘-(으)므로’이 어울린다.

11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아서’는 앞 절이 뒤 절의 ‘이유’ 또는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12 <보기>의 사례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세 개의 홑문장으로 나눈 것이다. 원래 문장에서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짜임을 활용하여 필자의 소원이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함없이 하나됨을 강조하여, 소원의 간절함을 더 강하게 전달한다. 그런데 이를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적으면 원래 문장에서 느껴졌던 소원의 간절함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평가 기준	확인 ☑
『백범일지』의 일부에 이어진문장이 쓰였다고 썼다.	☐
『백범일지』의 일부를 고쳐 쓴 글에 홑문장이 쓰였다고 썼다.	☐
『백범일지』의 일부를 고쳐 써서 원래 글에 비해 소원의 간절함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을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13 ‘오늘도 하늘이 푸르다.’는 홑문장이고 ‘하늘에는 구름이 흐르고, 햇살이 빛난다.’와 ‘저 새처럼 나 역시 마음이 가볍고 편하다.’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하늘을 나는 새는 아무런 근심도 없다.’에는 ‘하늘을 나는’이라는 관형사절과 ‘근심이 없다’라는 서술절이 안겨 있다. 그러나 <보기>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쓰이지 않았다.

(3) 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

내용 확인 문제

본문 69~87쪽

- | | | | | |
|------|------------------|-----------------------------------|------|---|
| 01 ③ | 02 ② | 03 청자, 동사 | 04 ② | 05 ⑤ |
| 06 ② | 07 ② | 08 비격식체를 사용하여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 | 09 ⑤ | 10 ⑤ |
| | | | 11 ③ | 12 객체인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쭙다’를 통해 객체 높임법을 실현한다. |
| 13 ⑤ | 14 ③ | 15 ① | 16 ④ | |
| 17 ⑤ | 18 ⑤ | 19 ③ | 20 ③ | 21 ③ |
| 22 ③ | 23 ④ | 24 더러운 교실이 학생들에 의해서 말끔히 치워졌다. | 25 ⑤ | |
| 26 ④ | 27 ③ | 28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 29 ③ | |
| 30 ④ | 31 우리 밖에 나가지 말자. | 32 ③ | 33 ② | |
| 34 ③ | 35 ⑤ | | | |

01 문장의 종류는 종결 어미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문장의 종류가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기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장의 기능을 이해하려면 문장이 실제 사용되는 맥락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02 ‘비가 온다고 하더니 눈이 온다.’는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이므로 평서문에 해당한다. 감탄문은 화자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구나’, ‘-구려’, ‘-로다’ 등의 종결 어미로 끝난다.

03 명령문의 주어는 항상 청자가 되어야 하고, 청유문의 주어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또, 명령문과 청유문의 서술어로는 동사만이 올 수 있다. 형용사는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명령형 어미나 청유형 어미와 함께 사용될 수 없다.

04 ‘이 식물의 특성은 무엇인가요?’는 의문문의 문장 형식을 사용하여 청자에게 질문을 하며 대답을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문장의 형식과 기능이 일치한다.

- 오답 풀이** ① 문장의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비켜 달라는 요청 혹은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③ 문장의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밥을 사겠다는 약속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④ 문장의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실제로는 화자가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⑤ 문장의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빨리 서두르라는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05 격식체는 높임의 순서에 따라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체로 나뉜다. 해요체는 비격식체이다.

06 ㉠에서 ‘점원’은 사물인 ‘커피’를 높이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에서도 물건인 ‘상품’을 높이고 있으므로 ㉠과 같은 이유로 잘못된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지 않고 있으므로, ‘엄마, 할머니 오셨어요.’로 고쳐야 한다.
 ③ ‘따님’과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손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는 올바른 문장이다.
 ④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선생님’을 높이고 있는 올바른 문장이다.
 ⑤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지 않고 있으므로, ‘오늘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로 고쳐야 한다.

07 ㉡는 명령형 종결 어미 ‘-야’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체가 자 비격식체가 쓰였다.

08 [자료]에서 ‘반갑습니다’에는 하십시오체, ‘반가워요’에는 해요체가 쓰였다. 즉, 격식체를 비격식체로 바꾸어 말한 것이다.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리는 상황에서 사용하여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것을 나타낸다.

평가 기준	확인 ☒
비격식체를 사용하였음을 썼다.	☐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짐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9 종결 표현으로 실현되는 것은 상대 높임법이다. 주체 높임법은 주격 조사 ‘께서’, 접사 ‘-님’, 선어말 어미 ‘-(으)시-’, ‘계시다, 주무시다’ 등의 특수 어휘로 실현된다.

10 주체 높임법에서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을 직접 높임이라고 하고,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①, ②, ③, ④는 주체를 직접 높이고 있는데, ⑤는 ‘없으셨다’로 ‘말씀’을 높임으로써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11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신다.’는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법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조사인 ‘께서’와 특수 어휘인 ‘드리다’를 사용하였다.
 ②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인 ‘모시다’를 사용하였다.
 ④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조사인 ‘께서’와 특수 어휘인 ‘여쭙다’를 사용하였다.
 ⑤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인 ‘뵈다’를 사용하였다.

12 ‘선생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에서는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다.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인 ‘여쭙다’를 활용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임을 썼다.	☐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여쭙다’를 통해 객체 높임법을 실현했다는 내용을 썼다.	☐

13 동사의 현재 시제는 선어말 어미 ‘-는- / -ㄴ-’이나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서는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 선어말 어미 없이 나타내거나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한다.

14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는 과거 시제이다. ‘많더라’는 형용사 ‘많다’의 어간 ‘많-’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더-’가 결합된 말로,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오답 풀이** ① 동사 ‘먹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을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② 시간 부사어 ‘지금’을 사용하고 동사 ‘내리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을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④ ‘하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⑤ ‘끝내다’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된 ‘-(으)ㄴ 것’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15 ‘찾아온’은 동사 ‘찾아오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것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② ‘가득하다’는 형용사로,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③ 동사 어간 ‘날아다니-’에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④ ‘지금’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이다.

⑤ 동사 어간 ‘움직이-’에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16 ㄴ의 ‘이러다 약속에 늦겠다.’에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이 사용되었다. 여기서 ‘-겠-’은 약속에 늦을 것 같다는 추측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다.

17 ⑤는 동사 ‘읽다’에 보조 용언 ‘-어 버리다’를 결합하여 완료상을 표현하고 있다. 동작이 완료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완료상은 보조 용언 ‘-아 있다/-어 있다’나 ‘-아 버리다/-어 버리다’ 등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동사 ‘오다’에 보조 용언 ‘-고 있다’가 결합한 진행상 표현이다.

② 동사 ‘하다’에 보조 용언 ‘-어 가다’가 결합한 진행상 표현이다.

③ 동사 ‘먹다’에 보조 용언 ‘-어 가다’가 결합한 진행상 표현이다.

④ 동사 ‘앉다’에 보조 용언 ‘-고 있다’가 결합한 진행상 표현이다.

18 ㄴ의 ‘안졌다(안-+-기-+-었-+-다)’는 ‘안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피동사이다. 따라서 ㄴ은 주어인 ‘동생’이 ‘주희’에 의해 안기는 동작을 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피동문이다.

19 ㉠는 주어인 ‘햇살’이 고드름을 녹게끔 만드므로 사동문이고, ㉡는 주어가 밀림을 당하므로 피동문이다. ㉢는 주어인 ‘책’이 읽힘을 당하므로 피동문이고, ㉣는 주어인 ‘형’이 ‘동생’에게 종이를 구기는 동작을 시키므로 사동문이다.

20 ‘이 펜은 글씨가 잘 써진다.’는 동사 ‘쓰다’에 ‘-어지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통사적 피동문이다. 따라서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끓기다’는 동사 ‘끓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② ‘잡히다’는 동사 ‘잡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④ ‘들리다’는 동사 ‘들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⑤ ‘보이다’는 동사 ‘보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21 ‘-되다’는 피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되다’를 붙여서 만든 피동문은 파생적 피동문이다. ‘-어지다’를 붙여서 만든 피동문이 통사적 피동문이다.

22 <보기>의 피동문에서 ‘경찰에게’는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이다.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피동문의 부사어는 능동문의 주어가 되고 피동문의 주어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되어야 한다. 또한 피동사 ‘잡혔다’를 능동사 ‘잡았다’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이 피동문의 능동문은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이다.

23 피동문은 행위의 결과를 당하는 대상인 ‘필통’에 초점을 두어 실제 행위의 주체인 ‘나’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필통을 떨어뜨린 책임을 회피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피동문은 행위의 결과를 당하는 대상인 ‘필통’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③ 화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문장은 실제 행위를 하는 주체인 ‘나’에 초점을 두고 있는 능동문이다.

⑤ 피동문에는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은 의도가 담겨 있을 뿐,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의도는 담겨 있지 않다.

24 ‘학생들이 더러운 교실을 말끔히 치웠다.’는 능동문이다. 이를 통사적 피동문으로 바꾸려면, 능동문의 주어인 ‘학생들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꾸고 능동문의 목적어인 ‘더러운 교실’을 주어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동사 ‘치우다(치웠다)’에 ‘-어지다’를 붙이면 된다.

평가 기준	확인 ☒
‘더러운 교실’을 ‘더러운 교실’로 바꾸어 썼다.	☐
‘학생들이’를 ‘학생들에 의해서’ 등으로 바꾸어 썼다.	☐
‘치웠다’를 ‘치워졌다’로 바꾸어 썼다.	☐

25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 주동문의 목적어는 사동문에서 그대로 목적어가 된다.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에서 부사어가 될 때 주로 ‘에’, ‘에게’, ‘로 하여금’이 붙어서 부사어가 된다.

26 ‘터미널에 사람이 많아서 우리는 이리저리 밀렸다.’는 주어인 ‘우리’가 밀는 동작을 당한 것으로 피동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주어인 ‘햇살’이 ‘눈’을 녹게 하므로 사동 표현이다.

② 주어인 ‘어머니’가 ‘형’에게 진정하는 동작을 시키므로 사동 표현이다.

③ 주어인 ‘나’가 ‘동생’에게 옷을 입는 동작을 시키므로 사동 표현이다.

⑤ 주어인 ‘선생님’이 ‘연주’에게 자리에 앉는 동작을 시키므로 사동 표현이다.

27 주동사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로 실현되는 사동문을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하고, 어미 ‘-게’에 보조 용언 ‘하다’가 결합한 ‘-게 하다’로 실현되는 사동문을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한다. ③은 ‘차다’에 ‘-게 하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통사적 사동문이다.

오답 풀이 ① ‘먹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로 실현되는 파생적 사동문이다.

② ‘울다’에 사동 접미사 ‘-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로 실현되는 파생적 사동문이다.

오답 풀이 ②, ③, ⑤ ㄱ은 특수 어휘 '말씀'과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교장 선생님의 말을 높임으로써 주체인 '교장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간접 높임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실현되며, 서술어에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를 사용할 수 없다. ㄴ의 '모시고'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특수 어휘로, 문장의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는 말이다.

④ ㄴ은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리는 상황에서 사용하여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것을 나타낸다.

04 ㉠에서는 특수 어휘 '드세요'를 사용하여 처음 보는 대상인 주체('집주인')를 높여 예의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은 주체 높임 표현이다.

05 ㉠은 해요체, ㉡는 해라체, ㉢는 해체, ㉣는 하계체, ㉤는 하십시오체, ㉥는 하오체의 문장이다. 격식체는 높임의 단계에 따라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로 나뉘고, 비격식체는 높임의 단계에 따라 해요체와 해체로 나뉜다.

평가 기준	확인 ☒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바르게 나누어 썼다.	☐
격식체를 높임의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썼다.	☐
비격식체를 높임의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썼다.	☐

06 '내일 오겠습니다.'는 시간 부사어 '내일'을 사용하고, 선어말 어미 '-겠-'을 결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예쁘다'는 형용사이므로, 형용사이므로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③ 동사 '자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을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④ 시간 부사어 '어제'를 사용하고, 선어말 어미 '-었-'을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⑤ '갈'은 미래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ㄹ'이 결합된 표현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07 '우리 강아지는 외판 섬에서 태어났다.'의 '-았-'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1」의 용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어제 친구에게 편지를 받았다.'에서 '-았-'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이미 사건이 일어났음을 나타내므로 과거 시제를 뜻한다.

③ '비가 와서 내일 야유회는 다 갔네.'에서 '-았-'은 미래의 일을 이미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하는 데 쓰였으므로 과거 시제로 보기 어렵다.

④ '예전에는 이 저수지에 물고기가 많았었다.'에서 '-았었-'은 발화시보다 훨씬 전에 발생해 현재와 단절된 사건을 표현하므로 과거 시제이다.

⑤ '시골길에 핀 꽃이 정말 예쁘더라.'에서 '-더-'는 과거 어느 때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하는 데 쓰였으므로 과거 시제이다.

08 ㉠은 '나무꾼'이 '토끼'에게 숨는 동작을 시키는 것으로, '숨다'에 사동 접미사 '-기-'를 결합하여 사동 표현을 나타내었다.

오답 풀이 ① 제시된 문장의 '먹었다'에는 사동 접미사 '-이-'가 사용되었다.

② '요구되다'는 명사 '요구'에 피동 접미사 '-되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피동사이므로, 제시된 문장은 파생적 피동문이다.

④ 제시된 문장에 쓰인 '시키다'는 사동 접미사 '-시키다'가 아니라 동사이다.

⑤ 통사적 사동문은 '-게 하다'로 실현된다. 제시된 문장은 '-게 되다'가 사용되었으므로 통사적 사동문이 아니다.

09 <보기>는 사동 접미사 '-우-'를 사용한 파생적 사동문으로 '아버지가 '연주'에게 짐을 직접 지워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게 하다'를 사용한 통사적 사동문으로 바꾸면 '아버지가 직접 짐을 지워 주지는 않고 단지 '연주'에게 짐을 지라고 말하는 등의 간접적인 행위를 함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
통사적 사동문으로 바르게 바꾸어 썼다.	☐
의미가 간접적이라는 내용을 썼다.	☐

10 <보기>에서는 제목을 구출된 '대학생'을 주어로 하고 있는 피동문에서 '○○ 경찰서'를 주어로 하는 능동문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기사에서는 경찰의 구조 행위에 초점을 두어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제목이 바뀌기 전인 피동문일 때 기사 내용이 강물에 빠졌다가 구출된 '대학생'의 상황에 초점을 두어 서술되었을 것이다.

11 ㄱ에서 '읽혀지다'는 '읽다'에 피동 접미사 '-히-'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사에 다시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을 겹쳐 썼으므로 잘못된 표현이다. ㄴ에서 '개선하다'는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들다.'의 뜻으로 이미 사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굳이 '-시키다'를 붙여 사동 표현을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개선시키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ㄷ에서 '해결되어지다'는 '해결하다'의 피동 표현인 '해결되다'에 다시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을 겹쳐 쓴 것이므로 잘못된 표현이다.

12 ㉠은 고양이가 능력이 부족하여 계단을 내려가지 못함을 의미하는 '못' 부정문이고, 부정 부사 '못'을 사용했으므로 짧은 부정문이다.

13 간접 인용 표현을 직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인용 조사, 인칭 표현, 지시 표현,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종결 표현 등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바꾸어야 한다. 간접 인용 표현의 인용절인 '오늘이 내 생일이야고'는 화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서술한 것이므로, 직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인칭 표현을 '지용이'의 입장으로 바꾸고 시간 표현도 어제의 시점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지용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화자인 '나'는 대화의 상대이므로 2인칭인 '너'로 바뀌어야 하고, 말하고 있는 현재 시점의 '오늘'은 어제의 시점에서 보면 다음 날이므로 '내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하여 표시하고, 종결 표현도 의문형으로 바꾸고, 인용 부사격 조사도 직접 인용에 사용되는 '라고'로 바꾸어야 한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문 92~97쪽

- 01 ② 02 ③ 03 ④ 04 ④ 05 ① 06 여
러 개의 관형사절을 사용하여 누이가 결혼할 남편의 외양(특성, 정보 등)을
나타내고 있다. 07 ㉠은 '네가 웃다.'와 '나는 기쁘다.'가 인과 관
계로 이어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은 부사절 '네가 웃어서'가 안
긴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과 ㉡은 의미상 차이가 없는데, 이는 종속적
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 08 ④ 09 ③ 10 ② 11 ⑤ 12 ③ 13 ⑤
14 ② 15 ③ 16 ⑤ 17 •㉠: 그의 발이 나에게 밟혔
다. •㉡: 연호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18 ⑤ 19 '떨
어지게 될'을 '떨어질'로 고쳐야 한다. 피동 표현을 겹쳐 쓴 어색한 피동 표현
이기 때문이다. 20 ④ 21 ⑤ 22 ⑤

01 ㉠과 ㉡은 모두 형식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실제로는 ㉠
은 '형'에게 선풍기를 켜는 것과 같은 행위를 요청하는 의미를 담
고 있고, ㉡은 교실로 가자는 요청 혹은 교실로 가라는 요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직접 발화로 해석하
지 않고 맥락을 고려하여 간접 발화로 해석해야 담화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02 '달이 정말 밝구나!'는 종결 어미 '-구나'를 사용한 감탄문
이다. 그리고 뒤이어 '익현'이 말한 '거기서 혼자 뭐 해.'를 통해
청자에게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밝은 달을 보
고 독백하듯이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문제의 답은 정현이가 말해 볼까요?'는 형식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실제로는 '정현'에게 답을 말하라는 명령의 기능을 수행
한다.

② '먼저 좀 내립시다.'는 형식상으로는 청유형 종결 어미 '-ㅂ시다'를
사용한 청유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자에게 내리는 행동을 함께하도
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릴 수 있게 비켜 달라고 요구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④ '지금 도대체 몇 시야?'는 형식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상황이나 이
어지는 '은호'의 발화를 고려할 때 실제로는 늦게 온 상대방을 질책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⑤ '밖에 비가 쏟아지네요.'는 형식상으로는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평서문이지만, 이어지는 '아
내'의 발화를 고려할 때 실제로는 비가 오니 우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03 '그런'은 '먼저 급식을 받으러 간' '유리'의 행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장에 '그런'이라는 대용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 더 자
연스럽다.

04 ㉢의 주성분은 '지금(은(주어))', '겨울(이(보어))', '아니다(서술
어)'로 3개, ㉣의 주성분은 '세상이(주어)', '하얗다(서술어)'로 2
개, ㉤의 주성분은 '눈이(주어)', '(은) 세상을(목적어)', '뒤덮었다
(서술어)'로 3개이다. 따라서 세 문장에 포함된 주성분의 수가 같
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주어, 서술어', ㉣은 '주어, 보어, 서술어'로 이루어
져 있다.

② ㉢은 부속 성분인 부사어 '온통', 독립 성분인 독립어 '아'가 모두 포
함되어 있다.

③ ㉢은 관형어 '온'과 목적어 '(은) 세상을'이, ㉣은 관형어 '하얀'과 목
적어 '(하얀) 눈발'이 사용되었다.

⑤ ㉢은 부속 성분인 부사어 '온통'이, ㉣은 부속 성분인 관형어 '온'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은 관형어 '하얀'과 부사어 '조심스럽게'가 사용되
었다.

05 '밖에 나가기가 싫다.'는 '밖에 나간다.'에 명사형 어미 '-기'
가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겹문장이다.

오답 풀이 ②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인용절을 안은 문장으로, 안은문
장은 겹문장에 포함된다.

③ 선택의 의미 관계를 지닌 연결 어미 '-거나'로 결합된 대등하게 이어
진 문장이다.

④ 양보의 의미 관계를 지닌 연결 어미 '-ㄹ지라도'로 결합된 종속적으
로 이어진 문장이다.

⑤ '발에 땀이 나도록'이라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06 밑줄 친 부분에서는 여러 개의 관형사절을 사용하여 누이
가 결혼할 남편의 외양 등을 나타냄으로써, 누이가 원치 않는 사
람과 결혼하게 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밑줄 친 문장이 여러 개의 관형사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썼다.	☐
밑줄 친 문장이 누이가 결혼할 남편의 외양(특성, 정보 등)을 나타내고 있다고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7 ㉠은 인과의 의미를 지닌 종속적 연결 어미 '-어서'가 결합
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은 부사형 어미 '-어서'가
결합한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두 문장은 의미가 같은데 이처
럼 종속적 연결 어미로 된 절은 부사절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임을 근거를 들어 썼다.	☐
㉡이 부사절을 안은 문장임을 근거를 들어 썼다.	☐
두 문장의 의미가 서로 같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 절을 안은 문장으로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08 '도착', '예정임'처럼 명사나 명사형 종결 어미로 끝나는 형
태로 문장을 쓰면 내용을 간단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뛰어남
요', '먹기요'처럼 문장의 끝에 '요'를 붙이는 표현을 사용하면 인
터넷상에서 친분을 쌓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나이를 몰라 높임 표
현을 사용하기 애매한 경우에도 어떤 높임의 단계를 쓸 것인지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09 ㉢은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
의 '뵈다'는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는 특수 어휘이다.

오답 풀이 ①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② 조사 ‘에게’ 대신 조사 ‘께’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④ 보조사 ‘요’와 종결 어미 ‘-느니라’는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것으로, 문장의 주체가 아니라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⑤ ‘걸어가시던’과 ‘하십니다’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시-’는 서술의 주체인 ‘선생님(㉔)’과 ‘큰아버지(㉕)’를 높이고 있다.

10 ‘계시다’는 주체를 직접 높일 때 사용하고, ‘있으시다’는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통하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일 때 사용한다. 따라서 ‘선생님, 지금 시간이 있으세요?’가 적절한 표현이다.

11 주어인 ‘반지’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이면 안 된다.

오답 풀이 ① ‘꺼서’는 신체의 일부인 ‘손’을 높이는 데 쓸 수 없다.

② <보기>의 ‘손님’은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상황이므로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선어말 어미 ‘-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일 때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객체인 손님을 높이기 위해 ‘-시-’를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계시다’는 문장의 주체를 높일 때 사용하는 특수 어휘이다. 따라서 청자를 높이기 위해 ‘있을까요’를 ‘계실까요’로 바꿔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2 ㉔는 종결 표현 ‘-르까요?’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요체, ㉕는 종결 표현 ‘-거라’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라체에 해당한다. ㉖는 종결 표현 ‘-습니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하십시오체에 해당한다.

13 ㉔의 ‘가셨다’는 ‘가-+-시-+-었-+-다’로, 높임 선어말 어미가 시제 선어말 어미 앞에 쓰임을 알 수 있다.

14 ㉔의 ‘펼쳐져 있었다’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을 통해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으며, 보조 용언 ‘-어 있다’를 사용하여 완료상을 표현하고 있다. 완료상은 ‘-아/-어 있다’나 ‘-아/-어 버리다’ 등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15 ㉔의 ‘-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꽃이 핀’ 사건이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됨을 의미한다. 반면 ㉕의 ‘-었었-’은 사건이 발화시보다 훨씬 전에 발생하여 현재와 단절되었음을 의미한다.

16 피동 표현을 쓰면 문장의 주어이자 동작을 당한 대상인 ‘파리’에 초점이 가게 되므로, ‘개구리’가 먹은 행위보다는 ‘개구리’에게 먹힌 ‘파리’의 상황에 더 집중하게 된다.

17 ㉔의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주어 ‘내가’가 피동문의 부사어 ‘나에게’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 ‘(그의) 발을’은 피동문의 주어 ‘(그의) 발이’가 된다. 능동사 ‘밟다(밟았다)’의 어근에 피

동 접미사 ‘-히-’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을 실현한다. ㉕의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주동문의 주어 ‘연호가’가 사동문의 부사어 ‘연호에게’가 되고, 주동문의 목적어 ‘노래를’은 그대로 사동문의 목적어가 된다. 문맥상 노래를 부르게 하는 간접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주동사 ‘부르다(불렀다)’의 어근에 ‘-게 하다’를 사용하여 사동 표현을 실현한다.

평가 기준	확인 ☒
㉔의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르게 바꿔 썼다.	☐
㉕의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르게 바꿔 썼다.	☐

18 ㉔의 ‘입원시키다’는 명사 ‘입원’ 뒤에 접미사 ‘-시키다’를 붙인 것이다. 따라서 접미사 ‘-시키다’가 자동사 뒤에만 결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㉔의 사동문은 ‘아버지가 물을 끓게 한다.’로, ㉕의 사동문은 ‘아버지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한다.’로, ㉖의 사동문은 ‘아버지가 나를 병원에 입원하게 하셨다.’로 바꿀 수 있다.

② ㉔은 동사 ‘끓다’의 어근에, ㉕은 동사 ‘먹다’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를 붙여 사동문을 만들었다.

③, ④ ㉔은 주동문의 주어 ‘물이’가 사동문의 목적어 ‘물들’이 되었다. ㉕은 주동문의 주어 ‘아이가’가 사동문의 부사어 ‘아이에게’가 되고, 주동문의 목적어인 ‘밥들’이 사동문에서도 그대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19 ‘떨어지다’라는 말에 이미 피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굳이 ‘-게 되다’를 붙여 피동의 의미를 더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떨어지게 될’은 어색한 피동 표현이므로 ‘떨어질’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떨어지게 될’을 ‘떨어질’로 바르게 고쳐 썼다.	☐
어색한 피동 표현이므로 고쳐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20 ㉔과 ㉕은 부정하는 내용이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으며, ‘읽었다’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부정문의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정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강세(´)를 주어 구별하거나, 보조사를 사용할 수 있다. ㉔과 ㉕은 모두 보조사를 사용하여 ‘동생이 책은 안 읽었다.’나 ‘동생이 책은 못 읽었다.’로 바꾸면 부정의 대상이 ‘책’으로 한정된다.

2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이중 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강한 긍정을 나타내고 있다. 즉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려고 이중 부정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22 ㉔는 ‘아저씨’의 말을 원래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한 직접 인용 표현이고, ㉕는 ‘아저씨’의 말을 인용하면서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끌어다 쓴 간접 인용 표현이다. ㉔는 ‘아저씨’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그의 다급한 감정을 실감 나게 표현하였지만, ㉕는 ‘아저씨’의 말을 적절히 풀어서 제시하여 그의 다급한 감정이 ㉔보다는 덜 전해진다.

3. 단어와 음운의 탐구 및 활용



(1) 단어의 분류와 특성

내용 확인 문제

본문 103~113쪽

- 01 ④ 02 ④ 03 ⑤ 04 수식언으로서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05 ⑤ 06 ① 07 ⑤
08 ① 09 격 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 10 ② 11 '갈다'는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달라져도 이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반면, '짓다'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12 ③ 13 ①
14 관형사: 온갖, 부사: 빨리 15 ⑤ 16 ① 17 ②

01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분류한 것을 품사라고 한다.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의 세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단어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 있고,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단어를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로 나눌 수 있다.

02 '빠르게'는 형용사 '빠르다'가 활용한 형태이다. '빠르다'는 '빠르게', '빠르니', '빠르고', '빨라서' 등과 같이 그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불변어, 관계언, 조사이다.

- ② '하루'는 불변어, 체언, 명사이다.
③ '정말'은 불변어, 수식언, 부사이다.
⑤ '지나간다'는 가변어, 용언, 동사이다.

03 '춥아날'은 동사로서 '춥아나다', '춥아나고', '춥아나서' 등으로 문장 안에서 형태가 변하므로 가변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그'는 관형사로서 불변어에 해당한다.

- ② '다'는 부사로서 불변어에 해당한다.
③ '둘다리'는 명사로서 불변어에 해당한다.
④ '부터'는 조사로서 불변어에 해당한다.

04 '홀로', '너무', '한층'은 부사로서, 기능을 기준으로 할 때 수식언에 해당한다. 수식언은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수식언'의 명칭과 역할을 썼다.	☐
제시된 형식에 맞게 썼다.	☐

05 체언은 '꽃이', '꽃은', '꽃도'와 같이 일반적으로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또한 문장 안에서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오답 풀이 ① 체언은 '동생이 웃는다.'와 같이 주로 주어 자리에 온다. 하지만 '동생이 숙제를 한다.', '동생이 학생이 되었다.' 등과 같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 보어 등 다른 자리에도 올 수 있다.

② 체언은 단어의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뉜다.

③ 체언 중 '것', '만' 등의 의존 명사는 혼자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며, 그 앞에 꾸며 주는 말(관형어)이 있어야만 쓰일 수 있다.

④ 체언 중 어떤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을 대명사라고 한다.

06 대명사는 어떤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이다. '저'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고, '이곳'은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반면 '처음'과 '것'은 명사이다.

07 '해결하자'에서 '-자'는 용언의 어간 뒤에 결합하여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오답 풀이 ① 접속 조사이다.

② 주격 조사이다.

③, ④ 목적격 조사이다.

08 ㉠과 ㉡은 모두 '이'로 그 형태가 같지만 ㉠은 '시간'이 주어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주격 조사이고, ㉡은 '추억'이 보어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보격 조사이다.

09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하여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하는 말이다. 조사에는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해 주는 격 조사,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접속 조사,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덧붙여 주는 보조사가 있다.

10 ㉠의 '웃었다'는 동사의 움직임이 주어에만 관련되어 있는 자동사이고, ㉡의 '그렇다'는 지시성을 나타내는 지시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①, ④, ⑤ ㉠의 '예쁘다', ㉡의 '그렇다'는 형용사이고 ㉠의 '웃었다', ㉡의 '입었다', ㉢의 '보았다'는 동사이다. 이들은 모두 가변어로서 문장에서 사용될 때 그 형태가 변하고, 용언으로서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③ ㉢의 '입었다'는 그 움직임이 목적어인 '외투'와 관련되어 있고, ㉡의 '보았다'는 그 움직임이 목적어인 '하늘'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과 ㉡은 모두 타동사이다.

11 '갈다'는 'ㄴ, ㅂ,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어미 '-오, -ㄴ' 등과 결합하는 환경에서 어간의 'ㄹ'이 탈락한다. 이는 어간에 받침 'ㄹ'이 있는 용언에 규칙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므로, '갈다'는 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반면, '짓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지어', '지으니'와 같이 'ㅅ'이 탈락하는데, 이는 '짓다, 굶다, 낫다, 붓다' 등의 일부 용언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ㅅ' 받침을 가지는 용언은 '벗어'와 같이 활용할 때 어간의 'ㅅ'이 유지된다. 이처럼 '짓다'는 그 형태 변화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같다'는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변하지만 이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썼다.	☐
'짓다'는 활용할 때 그 형태 변화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썼다.	☐

12 '늑대는 살아 있는 먹이를 찾아 헤맸다.'에서 '헤맸다'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본용언이므로, 보조 용언이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있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② '본다(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④ '없다'는 앞말이 뜻하는 상태를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이다.
 ⑤ '싶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이다.

13 ㉠은 '옷장'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지시 관형사이고, ㉡은 '옷'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성상 관형사이다. ㉢은 수량, 순서와 같은 수 개념을 나타내므로 수 관형사이다.

14 수식언은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관형사 '온갖'은 체언인 '기기'를 꾸며 주고 있다. 또한 부사 '빨리'는 용언인 '적용해야'를 꾸며 주고 있다.

15 ㉠, ㉡, ㉢은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은 용언 '떠나'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16 '자주'는 용언 '온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자주'는 '자주도'와 같이 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이처럼 부사는 경우에 따라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수식언 중 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은 관형사이다.

- 오답 풀이** ② '자주'는 부사이며, 부사는 관형사와 함께 수식언에 해당한다.
 ③ 부사 '자주'는 불변어로서, 문장에서 쓰일 때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④, ⑤ 부사 '자주'는 문장에서 용언 '온다'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성분 부사에 해당한다.

17 '먼저, 밥부터 먹어라.'에서 '먼저'는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이다.

- 오답 풀이** ① '아니, 아무 일 없어.'에서 '아니'는 감탄사로, 아랫사람이나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이다.
 ③ '글쎄'는 감탄사로, 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④ '아이고'는 감탄사로, 놀랐을 때 내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⑤ '아차'는 감탄사로,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하는 말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14~117쪽

- 01 ① 02 ① 03 것, 셋, 너희 04 ④ 05 ⑤
 06 ③ 07 만, 하나 08 ② 09 ⑤ 10 ㉠: 용언, ㉡: 변한다, 바뀐다 등 11 ① 12 ③ 13 ③ 14 ④
 15 ② 16 아: 지시 관형사, 두: 수 관형사, 새: 성상 관형사 17 ⑤
 18 ④ 19 ① 20 ⑤

01 단어의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의 세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ㄷ). '지나가다'는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가변어이고,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용언이고,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동사에 해당한다(ㄱ).

- 오답 풀이** ㄴ.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형용사는 용언에 해당한다.
 ㄹ. 명사, 대명사, 수사는 그 기능적 특성은 유사하지만 그 의미적 특성에서는 차이가 있다.

02 “우아, 저 사람은 정말 멋지다.”에서 문장 안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말은 용언이므로, ㉠에는 ‘멋지다’가 들어간다.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는 수식언이므로, ㉡에는 ‘저, 정말’이 들어간다. 문장 안에서 주로 주어로 쓰이는 말은 체언이므로, ㉢에는 ‘사람’이 들어간다. 문장 안에서 여러 성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관계언이므로, ㉣에는 ‘은’이 들어간다. ㉤에는 남은 ‘우아’가 들어간다. ‘우아’는 독립언에 해당한다.

03 <보기>에서 ‘것, 셋, 너희’는 체언에 해당한다. ‘알다, 좋다’는 용언에, ‘그러나, 모든’은 수식언에, ‘아하’는 독립언에, ‘처럼’은 관계언에 속한다.

04 명사는 체언에 속하는 말로,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명사는 의미의 특성에 따라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로 나눌 수 있고, 자립성 여부에 따라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나눌 수 있다.

05 ‘우리는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에서 ‘자기’는 ‘우리’를 가리키는 재귀칭이다. 따라서 ‘자기’가 청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6 ‘이렇게 멋진 글을 쓴 사람은 누구니?’에서 ‘누구’는 의문문에 쓰여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르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미지칭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②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부정칭 ‘누구’가 쓰였다.
 ④, ⑤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르는 상황에서 미지칭 ‘누구’가 쓰였다.

07 ‘만(萬)’과 ‘하나’는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수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예, 라도, 가’는 조사에, ‘문제’는 명사에, ‘생긴다면, 있지, 않겠어요’는 동사에, ‘가만히’는 부사에 해당한다.

08 ㉠에 쓰인 ‘는’은 보조사로서 문장 안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낸다. 앞말이 문장 안에서 주어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해 주는 주격 조사에는 ‘이/가, ‘께서, ‘에서’ 등이 있다.

오답 풀이 ① ㉗~㉙는 조사로,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하여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

③ ㉘는 부사격 조사로, 체언 '집이' 부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해 준다.

④ ㉚는 접속 조사로, 체언 '영어'와 '수학'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준다.

⑤ ㉛는 목적격 조사로, '영어와 수학(영어, 수학)'이 목적어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해 준다.

참고 자료 ++ 격 조사

주격 조사	이/가, 께서, 에서 ㉠ 지수가 잔다.
목적격 조사	을/를 ㉡ 현지가 밥을 먹는다.
보격 조사	이/가 ㉢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
관형격 조사	의 ㉣ 최재의 취미는 요리이다.
부사격 조사	에서, 예, 에게, 께 등 ㉤ 수미는 집에 갔다.
호격 조사	아/야 ㉥ 성원아, 안녕.
서술격 조사	이다 ㉦ 나는 학생이다.

09 '여행에서 돌아온 지 꽤 오래되었다.'에서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라 의존 명사는 띄어 쓰므로, ⑤에서 '돌아온 지'는 바른 표기이다.

오답 풀이 ① 여기에 쓰인 '대로'는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약속대로'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② 여기에 쓰인 '을'은 앞에 오는 체언이 목적어로서의 자격을 갖게 해 주는 조사이므로, '밥을'과 같이 붙여 써야 한다.

③ 여기에 쓰인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하루 만에'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④ 여기에 쓰인 '년'은 해를 세는 단위이자 의존 명사이므로, '일 년'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10 단어를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품사는 '용언'이다.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용언은 활용할 때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므로, 가변어에 해당한다.

11 '모르다'는 동사로서, 여기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가 결합할 수 있다. '무겁다', '서투르다', '조용하다', '필요하다'는 모두 형용사로서, 여기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이 결합할 수 없다.

참고 자료 ++ 동사와 형용사의 비교

	동사	형용사
공통점	• 용언으로서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함. • 문장에서 사용될 때 그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임.	
차이점	•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냄. •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이 들어갈 수 있음.	•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냄. •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이 들어갈 수 없음.

12 '맛있게'의 어말 어미 '-게'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용언이

부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해 주는 부사형 전성 어미이다. 관형사형 전성 어미에는 '-(으)ㄴ', '-(으)ㄹ', '-는' 등이 있다.

오답 풀이 ① '가기로'는 용언의 어간 '가-'에 어말 어미 '-기'가 결합하고, 그 뒤에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한 것이다. 여기에서 '-기'는 명사형 전성 어미로서, 용언이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해 준다.

② '하얏고'에서 어말 어미 '-고'는 문장 '우리는 분식집에 가기로 하얏다.'와 '우리는 그곳에서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다.'를 연결해 주는 연결 어미이다.

④, ⑤ '먹었다'에서 선어말 어미 '-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또한 어말 어미 '-다'는 문장을 끝맺는 역할을 하는 종결 어미이다.

13 '푸르다'는 활용할 때 '푸르-+-어 → 푸르러'와 같이 어미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 '들다'는 활용할 때, '들-+-어 → 들어'와 같이 어간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단어이다.

② '있다'는 활용할 때, '있-+-어 → 이어'와 같이 어간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단어이다.

④ '하얏다'는 활용할 때, '하얏-+-아 → 하얏'과 같이 어간과 어미 모두 불규칙하게 변하는 단어이다.

⑤ '눅다'는 활용할 때, '눅-+-어 → 누워'와 같이 어간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단어이다.

14 '민수는 사과를 잘라 먹었다.'에서 '자르다(잘라)'는 '민수는 사과를 잘랐다.'와 같이 홀로 쓰일 수 있고, '먹다(먹었다)' 역시 '민수는 사과를 먹었다.'와 같이 홀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자르다(잘라)'와 '먹다(먹었다)'는 모두 본용언이다.

오답 풀이 ① 보조 용언이 동사처럼 활용하면 보조 동사이고, 형용사처럼 활용하면 보조 형용사이다. ㉠에서 '버리다(버렸다)'는 '버린다'와 같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할 수 있으며, 동사처럼 활용하므로 보조 동사에 해당한다.

② ㉢에서 '보다(보고)'와 '싫다'는 모두 보조 용언이다. 이를 통해 두 개의 이상의 보조 용언이 연속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첫 번째 문장에 쓰인 '보다'는 보조 용언으로서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의미한다. 반면, 두 번째 문장에 쓰인 '보다'는 본용언으로서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를 의미한다.

⑤ ㉤에서 '않다'는 보조 용언으로서 부정의 의미를 더하고, 홀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에 쓰인 '옛'과 '가끔'은 수식언으로서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옛'은 관형사로서 체언인 '추억'을 수식하고, '가끔'은 부사로서 용언인 '떠오른다'를 수식하고 있다. ㉠~㉤을 통해 관형사에는 조사가 결합할 수 없으나 부사에는 조사가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6 '이 책 두 권은 새 책이다.'에서 '이'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지시 관형사이다. '두'는 수량, 순서와 같은 수 개념을 나타내는 수 관형사이다. 그리고 '새'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성상 관형사이다.

17 ㉢의 '그런데 설마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니?'에서 '설마'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고 있다. 따라서 '설마'는 성분 부사가 아니라 문장 부사이다.

참고 자료 ++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른 부사의 분류

성분 부사	문장에서 어느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 부사. 예 이번 여름에는 비가 참 자주 온다.
문장 부사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이 중 문장을 이어 주는 부사를 접속 부사라고 함. 예 나는 결백해. 그런데 실마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니? 접속 부사

18 독립언은 독립성이 있어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는 말로, 감탄사가 이에 해당한다. 감탄사는 부름, 대답, 느낌 등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독립언에는 감탄사만 포함된다.

- ② 독립언은 '아, 행복하다!'와 같이 문장 안에서 홀로 쓰일 수 있다.
- ③ 독립언은 그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불변어에 해당한다.
- ⑤ 독립언은 독립성을 띠며, 문장 안의 다른 성분에 비교적 얽매이지 않는다.

19 ㄱ의 '암'은 감탄사로서 '아무렵'과 같은 뜻을 지녔다. 말할 나위 없이 그렇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말에 강한 긍정을 보일 때 하는 말이다. ㄴ의 '여보세요'는 감탄사로서 '여봐요'를 조금 높여 이르는 말로 쓰이거나, 전화를 할 때 상대방을 부르기 위해 쓰이는 말이다.

20 ㉠에서 '오직'은 첫 번째 문장에서는 체언인 '너'를 꾸며 주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용언인 '성공하기'를 꾸며 주고 있다. 이처럼 ㉡에서는 단어의 기능이 다소 다르지만, 동일한 형태의 주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품사를 '부사'로 통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취할 경우, 기본 품사를 설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에서 '다섯'은 형태가 동일하지만 각각의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품사로 설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취할 경우, 단어의 형태와 기능이 일대다로 대응되어 복잡해진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

품사 설정에 관한 두 관점

• 품사 전성

- 개념: 단어의 기능이 다소 다르더라도 동일한 형태의 주 기능을 중심으로 품사를 통일하는 관점.
예 나에게는 **오직** 너뿐이다. → 부사
그들은 **오직**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 부사
- 한계: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여러 기능을 할 때 한 품사에서 다른 품사로 기능이 전성(轉成)되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기본이 되는 품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기본 품사를 설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품사 통용

- 개념: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기능이 다르면 각각의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품사로 설정하는 관점.
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 대명사
이 사과는 참 맛있게 생겼다. → 관형사
- 한계: 단어는 형태와 기능이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품사 통용을 인정한다면 형태와 기능이 일대다로 대응되어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음.

(2) 단어의 짜임과 의미

내용 확인 문제



본문 121~129쪽

- 01 ⑤ 02 ③ 03 ② 04 '이'는 조사로서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단어이다. 05 ⑤
06 • ㉠: 맨땅, 헛수고, • ㉡: 놀이, 달리기, 지우개 07 ④ 08 ⑤
09 ③ 10 합성어는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어 갈 수 없고, 구는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어 갈 수 있기 11 ⑤ 12 ② 13 잠깐 쓰이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새말의 특성 때문이다. 14 ⑤ 15 ①
16 ④

01 형태소를 의미의 유형에 따라 나누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실질 형태소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이다. 형식 형태소는 형식적인(문법적인) 의미만을 지닌 형태소이다.

오답 풀이 ①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 ②, ③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혼자 쓰일 수 없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
- ④ 문장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한다.

02 제시된 문장에는 형태소 '엄마', '의', '얼굴', '에', '땀', '방울', '이', '땀-', '-히-', '-었-', '-다'가 쓰였다. 그중에서 '엄마', '얼굴', '땀', '방울'은 혼자 쓰일 수 있으므로 자립 형태소이다. 반면 '의', '에', '이', '땀-', '-히-', '-었-', '-다'는 혼자 쓰일 수 없으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03 제시된 문장에는 형태소 '비누', '로', '거품', '을', '내-', '-었-', '-다'가 쓰였다. 그중에서 '비누', '거품', '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실질 형태소이다. 반면 '로', '을', '-었-', '-다'는 형식적인 의미만을 지니고 있으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04 <보기>의 '이'는 조사이다. 조사는 자립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므로 단어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가 단어라고 썼다.	☐
조사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므로 '이'가 단어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썼다.	☐

05 '심었다'는 용언 '심다'의 어간 '심-'에 어미 '-었-', '-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용언인 '심다'의 활용형일 뿐 별개의 단어가 아니며, '심(었)다'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오답 풀이 ① '어제'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 ② '땃발'은 어근 '땃'과 어근 '발'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 ③ '한가운데'는 접사 '한-'과 어근 '가운데'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④ ‘꽃씨’는 어근 ‘꽃’과 어근 ‘씨’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이는 복합어에 해당한다.

06 접두 파생어는 어근 앞에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이고, 접미 파생어는 어근 뒤에 접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이다. ‘맨땅’과 ‘헛수고’는 각각 접두사 ‘맨-’과 ‘헛-’이 붙어서 이루어진 접두 파생어이다. ‘놀이’, ‘달리기’, ‘지우개’는 각각 접미사 ‘-이’, ‘-기’, ‘-개’가 붙어서 이루어진 접미 파생어이다.

07 ‘새해’는 관형사 ‘새’와 명사 ‘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통사적 합성어이다. 이처럼 관형사와 명사가 바로 연결되는 것은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 중 하나이다.

08 ‘새하얇다’는 ‘매우 하얇다.’를 뜻하는 말로, ‘매우 질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새-’와 어근 ‘하얇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① ‘돌부리’는 어근 ‘돌’과 어근 ‘부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접사 없이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였으므로 합성어이다.
 ② ‘뛰놀다’는 용언 ‘뛰다’의 어간이자 어근인 ‘뛰(다)-’와 어근 ‘놀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③ ‘빗방울’은 어근 ‘비’와 어근 ‘방울’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④ ‘굴러가다’는 용언 ‘구르다’의 활용형인 ‘굴러(구르- + -어)와 용언 ‘가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09 ‘사이좋다’는 ‘사이’와 ‘좋다’가 결합한 단어로, 이는 ‘사이(가) 좋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과 같은 방법이므로, ‘사이좋다’는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반면, ‘접칼’은 동사의 어간 ‘접-’에 명사 ‘칼’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날뛰다’는 동사 ‘날다’의 어간 ‘날-’과 동사 ‘뛰다’가 연결 어미 없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굳세다’는 형용사 ‘굳다’의 어간 ‘굳-’과 형용사 ‘세다’가 연결 어미 없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물고기’는 명사 ‘물’과 명사 ‘고기’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잘되다’는 부사 ‘잘’과 동사 ‘되다’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잡아먹다’는 동사 ‘잡다’의 어간 ‘잡-’과 동사 ‘먹다’가 연결 어미 ‘-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첫날’은 관형사 ‘첫’과 명사 ‘날’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오르내리다’는 동사 ‘오르다’의 어간 ‘오르-’와 동사 ‘내리다’가 연결 어미 없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작은아버지’는 형용사 ‘작다’의 어간 ‘작-’과 명사 ‘아버지’가 관형사형 어미 ‘-은’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10 합성어와 구(句)를 구별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집안’이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살림을 꾸려나가는 공동체. 또는 가까운 일가’를 의미할 때에는 합성어이므로 ‘집안’과 같이 붙여 적어야 한다. 이때에는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어 갈 수 없다. 반면 ‘집 안’이 ‘집의 안(내부)’을 의미할 때

에는 구(句)이므로 ‘집 안’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이때에는 ‘집의 안’과 같이 다른 말이 끼어들어 갈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합성어는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어 갈 수 없다는 내용을 썼다.	☐
구는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어 갈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11 새말은 사회가 변화하며 새로운 생각과 사물이 생겨나면 이를 표현할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복세편살’은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를 줄여 이르는 말로,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말이다. 이는 사회가 변화하며 새로운 생각이 생겨났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이렇게 말을 줄이는 방식으로 새말을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의사소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주로 짧은 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오늘날 매체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12 ‘꽃미남’은 이미 있는 단어인 ‘꽃’과 ‘미남’을 합성하여 만든 단어로,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운 남자.’를 뜻하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명작’은 ‘명’과 ‘명’의 글자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적은 것에서 비롯된 새말이다.
 ③ ‘개이득’은 명사 ‘이득’에 접사 ‘개-’가 결합된 말로, 이미 있는 단어를 파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말이다.
 ④ ‘스라벨’은 ‘스터디 앤드 라이프 밸런스’를 뜻하는 말로,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말이다.
 ⑤ ‘땃방진창’은 ‘땃글이 엉망진창이다.’를 뜻하는 말로,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말이다.

13 사회가 변화하며 생겨난 새로운 생각과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말은, 계속 쓰이기도 하고 잠깐 쓰이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보기>의 ‘오나전’은 2000년대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데, 이러한 현상은 잠깐 쓰이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새말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새말은 잠깐 쓰이다가 사라지기도 한다는 내용을 썼다.	☐

14 유의 관계는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단어들이 이루는 관계로(ㄹ),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ㄷ). 우리말에는 유의 관계를 이루는 단어들이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다(ㄴ).

오답 풀이 ㄱ.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그 의미가 비슷하나 똑같지는 않으므로, 어느 경우에도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5 ‘서랍을 열다./서랍을 닫다.’, ‘뚜껑을 열다./뚜껑을 덮다.’, ‘자물쇠를 열다./자물쇠를 잠그다.’와 같이 의미가 대립하므로 ‘닫다’, ‘덮다’, ‘잠그다’에 공통적으로 대립하는 단어는 ‘열다’이다.

16 ㉠ ‘연예인’, ㉢ ‘직업’, ㉡ ‘배우’의 상하 관계는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는 ㉠의 하의어이므로, ㉢에 비해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30~133쪽

- 01 ① 02 ③ 03 ② 04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
05 ⑤ 06 ② 07 ① 08 ④ 09 새말은 사회가
변화하며 새로운 생각과 사물이 생겨나면 이를 표현하기 위해 형성되고, 여
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이나 이미 있는 단어를 합성하거나 파생하
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10 ② 11 ③ 12 ⑤ 13 ②
14 ① 15 ④

01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 또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다. 조사는 자립할 수는 없지만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므로 단어에 해당한다. 그런데 조사는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모든 단어가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조사는 단어이지만 자립할 수 없는 말이다.

③ '자갸'는 하나의 단어이지만, 형태소로 분석하면 '자- + -갸- + -다'로 분석할 수 있다.

④ 형태소는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고, 의미의 특성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⑤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형식 형태소는 형식적인(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참고 자료 ++ 단어와 형태소

단어	자립할 수 있는 말 또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형태소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의존 형태소	혼자 쓰일 수 없는 형태소
	의미의 유형에 따라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구체적 대상, 상태)를 나타내는 형태소
		형식 형태소	형식적인(문법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는 형태소

02 '나무는 덕을 지냈다.'를 단어 단위로 분석하면 '나무, 는, 덕, 을, 지냈다'가 된다.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면 '나무, 는, 덕, 을, 지니-, -었-, -다'가 된다.

03 '을', '를'은 혼자 쓰일 수 없으므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고,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므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그물'은 혼자 쓰일 수 있으므로 자립 형태소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므로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③ '쳐'는 동사 '치다'의 어간 '치-'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된 말이다. '치-'는 혼자 쓰일 수 없으므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므로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어'는 혼자 쓰일 수 없으므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고,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므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④ '물고기'는 명사 '물'과 명사 '고기'가 결합된 말이다. '물'과 '고기'는 모두 혼자 쓰일 수 있고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므로,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⑤ '잡았다'는 동사 '잡다'의 어간 '잡-'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된 말이다. '잡-'은 혼자 쓰일 수 없으므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므로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았-'과 '-다'는 혼자 쓰일 수 없으므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고,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므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04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형태소와 단어의 단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이라고 썼다.	☐

05 '책꽂이'는 '책/꽂이', '책꽂/이'와 같이 분석할 수 있어서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단어이다. 반면 '달리기'는 동사 '달리다'의 어간 '달리-'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기'가 결합된 단어로, '달리/기'로만 분석된다.

06 '애벌레'와 '애당초'는 모두 접두사 '애-'가 결합한 단어이다. 접두사 '애-'는 '맨 처음'의 뜻을 더하기도 하고, '어린' 또는 '작은'의 뜻을 더하기도 한다. '애벌레'에서 '애-'는 '어린' 또는 '작은'의 뜻을 더하고 있는 반면, '애당초'에서 '애-'는 '맨 처음'의 뜻을 더하고 있다.

07 '잡'은 동사 '자다'의 어간 '자-'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ㅁ'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이다. '공부하다'는 명사 '공부'에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하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동사이다. '많이'는 형용사 '많다'의 어간 '많-'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사이다. 따라서 '잡', '공부하다', '많이'는 모두 접미사에 의해 어근의 품사가 바뀐 단어들이다.

참고 자료 ++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의 예

'-이'	예 놀이: 동사 '놀다'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명사가 됨. 예 높이: 형용사 '높다'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됨.
'-하다'	예 공부하다: 명사 '공부'의 어근에 접미사 '-하다'가 결합하여 동사가 됨. 예 건강하다: 명사 '건강'의 어근에 접미사 '-하다'가 결합하여 형용사가 됨.
'-롭다'	예 명예롭다: 명사 '명예'의 어근에 접미사 '-롭다'가 결합하여 형용사가 됨.
'-히'	예 무사히: 명사 '무사'의 어근에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부사가 됨.

08 '가로막다'는 '부사어+용언'의 구성 방식을 보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주어+서술어'의 구성 방식을 보이는 통사적 합성어에는 '빛나다', '낫설다', '힘들다' 등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스며들다'는 '스미- + -어+들다'로 구성되어 있다. 용언 어간 '스미-'가 연결 어미 '-어'와 결합하여 용언 '들다'와 결합하고 있

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뜯소문'은 '뜯-+~+소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언 어간 '뜯-'가 관형사형 어미 '-+~'과 결합하여, 관형어로 기능하며 명사 '소문'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바로잡다'는 '바로+잡다'로 구성되어 있다. 부사(어) '바로'가 용언 '잡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등지다'는 '등+지다'로 구성되어 있다. '등을 지다'가 줄어든 말로, '목적어+서술어'의 구성 방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09 새말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생각과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새말은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된다. '아점'과 같이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꽃미남'과 같이 이미 있는 단어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며, '엄지족'과 같이 이미 있는 단어를 파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새말이 형성되는 이유는 새로운 생각과 사물이 생겨나면 이를 표현할 새말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다.	☐
새말이 형성되는 방법에는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과 이미 있는 단어를 합성하거나 파생하는 방식이 있다는 내용을 썼다.	☐

10 ㉠의 '아점'은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인 것이고, ㉡의 '엄지족'은 이미 있는 단어를 파생한 것이다. '취존'은 '취향 존중'이 줄어든 말이고, '개소름'은 접사 '개-'와 어근 '소름'이 결합하여 파생된 말이다.

11 '깜놀'은 '깜짝 놀라다'를 뜻하고, '심쿵'은 '어떤 일이나 대상을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뛸 정도로 놀라거나 설렘'을 뜻한다. '깜놀'과 '심쿵' 모두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어근의 형태가 단어 형성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2 반의 관계를 이루는 두 단어가 항상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죽다 : 살다'는 상호 배타적인 반의어로 그 사이에 중간 개념이 없지만, '짧다 : 길다'는 '짧지도 길지도 않다'와 같은 중간 개념이 존재한다.

13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뛰었다'에서 '뛰다'는 '값이나 가치 따위가 갑자기 오르다'의 의미로 쓰였다. 이때에는 '뛰다' 대신 '달리다'를 쓸 수 없다. '그는 집으로 마구 뛰었다'와 같이 '뛰다'가 '발을 몹시 재게 움직여 빨리 나아가다'의 의미로 쓰일 경우에는 '뛰다' 대신 '달리다'를 쓸 수 있다.

14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오직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의미 요소는 공통된다. '빠르다 : 느리다'는 의미 요소 중 '속도'만 대립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통되므로 반의어에 해당한다. '빠르다'와 '느리다'에서 '방향'의 대립은 나타나지 않는다.

15 '생물'은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 현상을 유지하여 나가는 물체'를 뜻하는 말로, 동물·식물·미생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동물'의 상의어로 볼 수 있다.

(3)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



본문 137~153쪽

내용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 06 올림소리 'ㄹ', 'ㄴ', 'ㅇ'으로 구성된 '말랑말랑'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지만, 안올림소리 'ㅍ', 'ㄱ'으로 구성된 '쑹쑹쑹'은 딱딱한 느낌을 준다. 07 ㉦
08 ㉧ 09 ㉨ 10 ㉩ 11 ㉪: 통채로 → 통째로, ㉫: 널판지 → 널빤지 12 ㉬ 13 ㉭ 14 금새 → 금세
15 ㉮ 16 ㉯ 17 ㉰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사용하는 어미인 반면, ㉱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사용한다. 18 ㉲ 19 ㉳
20 ㉴ 21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ㄱ, ㄷ, ㄹ, ㅇ'이 음절의 끝에서 변별성을 잃고 모두 [ㄷ]으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22 ㉵ 23 ㉶
24 ㉷ 25 ㉸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서 [할쑹]으로 발음되고, ㉹는 유음화가 일어나서 [갈리]로 발음된다. 26 ㉺ 27 ㉻ 28 날으는 → 나는, 낯설은 → 낯선 29 ㉼ 30 ㉽ 31 ㉾
32 ㉿: 어피다, ㊀: ㅍ

01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말소리는 물리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들이 동일한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말소리의 공통된 요소만을 뽑아 이를 추상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때 물리적인 말소리를 음성, 추상적인 말소리를 음운이라고 한다.

02 음운은 추상적인 말소리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말소리의 공통된 요소만을 뽑아 이를 추상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음운은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하므로,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오답 풀이 ㄱ. 언어권 간 음운의 목록과 체계는 차이가 있다.
ㄴ. 물리적인 소리로서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음성이다.

03 'ㄹ'과 'ㄴ'은 우리말에서 [ㄹ]로 동일하게 발음되어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주지 못한다.

오답 풀이 ① 영어에서는 'ㄹ'과 'ㄴ'이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주므로 이들 각각을 음운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보기>를 참고할 때, 우리말에서 'ㄹ'과 'ㄴ'은 [ㄹ]로 발음된다.

③ <보기>를 참고할 때 우리말에서 'ㄹ'과 'ㄴ'은 [ㄹ]으로 동일하게 발음된다.

④ 영어에서는 'ㄹ'과 'ㄴ'이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주므로 이들 각각을 음운이라고 할 수 있다.

04 'ㅈ'은 혀바닥이 센입천장에 닿아 나는 소리로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라고 한다. 'ㅈ', 'ㅊ', 'ㅉ'이 센입천장소리에 속한다.

오답 풀이 ① 'ㅂ'은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입술소리(양순음)이다.

② 'ㄷ'은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잇몸소리(치조음)이다.

- ③ “바다에 가자.”의 ‘ㅇ’은 음절의 첫소리에 자음이 쓰이지 않아 그 자리가 비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으로, 소릿값이 없다.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 ‘ㅇ’은 자음 ‘ㅇ’에 대한 설명이다.
- ④ ‘ㄱ’은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여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이다.

05 조음 방법은 자음을 발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한다. 자음은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뉜다. 그리고 파열음과 파찰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다시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로 구별할 수 있고, 마찰음은 예사소리와 된소리로 구별할 수 있다. 이때 거센소리는 공기가 성대를 통과할 때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면서 나는 소리이다.

06 비음과 유음은 울림소리로,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에서 울림이 일어난다. 반면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안울림소리이다. ‘말랑말랑’은 울림소리 ‘ㄹ’, ‘ㄹ’, ‘ㅇ’으로 구성되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지만, ‘씩씩씩씩’은 안울림소리 ‘ㅍ’, ‘ㄱ’으로 구성되어 딱딱한 느낌을 준다.

평가 기준	확인 ☑
‘말랑말랑’은 울림소리로 구성되어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는 내용을 썼다.	☐
‘씩씩씩씩’은 안울림소리로 구성되어 딱딱한 느낌을 준다는 내용을 썼다.	☐

07 자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제시된 자음 중 ‘ㄴ’, ‘ㄹ’, ‘ㅅ’, ‘ㅌ’은 모두 잇몸소리이지만 ‘ㄹ’은 입술소리이다.

08 ‘조건 1’에서 설명하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릴 때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는 파찰음이다. 그리고 ‘조건 2’에서 설명하는, 목의 근육에 힘을 주었다가 긴장을 풀면서 순간적으로 적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는 된소리이다. 파찰음이면서 된소리인 자음에는 ‘ㅈ’이 있다.

오답 풀이 ① ‘ㄱ’은 파열음이자 예사소리이다.

② ‘ㅅ’은 마찰음이자 예사소리이다.

③ ‘ㄷ’은 파열음이자 된소리이다.

④ ‘ㅌ’은 파열음이자 거센소리이다.

09 ‘자꾸’의 ‘ㅈ’은 파찰음, 예사소리, 센입천장소리이다. ‘ㅊ’은 파열음, 된소리, 여린입천장소리이다. 따라서 ‘자꾸’에는 거센소리가 쓰이지 않았다. ‘소화’의 ‘ㅅ’은 마찰음, 예사소리, 잇몸소리이고, ‘ㅎ’은 마찰음, 목청소리이다. 따라서 ‘소화’에도 거센소리가 쓰이지 않았다.

10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잼(jam)’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핀’은 ‘핀(pin)’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③ ‘가스’는 ‘가스(gas)’로 고쳐 써야 한다.

④ ‘게임’은 ‘게임(game)’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⑤ ‘선글라스’는 ‘선글라스(sunglass)’로 고쳐 써야 한다.

11 자음을 발음할 때 거센소리와 된소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의 ‘통채로’는 ‘통째로’로 ㉡의 ‘널판지’는 ‘널빤지’로 고쳐야 한다.

12 ‘여기’와 ‘과거’에 쓰인 모음 중 ‘ㅑ’와 ‘ㅓ’는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 모음이다. 반면, ‘ㅣ’와 ‘ㅓ’는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단 모음이다.

13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높낮이, 혀의 최고점의 위치, 입술의 모양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때 발음할 때 입술을 자연스럽게 펴서 내느냐, 둥그랴게 오므려서 내느냐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ㅏ, ㅗ, ㅓ, ㅕ, ㅛ, ㅜ, ㅡ’는 평순 모음이고 ‘ㅓ, ㅖ, ㅗ, ㅛ, ㅜ, ㅠ’는 원순 모음이다.

14 모음을 발음하거나 표기할 때, ‘내’와 ‘네’, ‘개’와 ‘개’, ‘ㅡ’와 ‘ㅓ’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을 의미하는 관형사이므로 ‘왜 그런지 모르개’의 의미로는 ‘웬지’를 쓴다. ‘금시(今時)’의 준말은 ‘금새’가 아니라 ‘금세’이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에서 ‘금새’는 ‘금세’로 고쳐 써야 한다.

15 우리말에서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은 감각 기관인 ‘눈’을 의미하므로 짧게 발음하고, ㉡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의미하므로 길게 발음한다. 소리의 장단은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구별되고,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항상 짧게 발음되므로, ㉢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의미하지만 짧게 발음한다.

16 억양은 비분절음으로, 여러 음절에 걸쳐 실현되는 음의 높낮이이다. 억양은 문장의 의미를 구별해 주기도 하고, 말하는 이의 감정이나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의문문, 평서문, 명령문의 억양은 서로 다르며, 마지막 음절에서 억양을 올려서 의문문을 표현할 수 있다.

17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사용하는 어미이다. 그리고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사용한다. ㉠은 화자가 자신이 직접 본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반면, ㉡는 화자가 ‘건아’에게 들은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어미 ‘-데’의 의미를 적절하게 썼다.	☐
어미 ‘-대’의 의미를 적절하게 썼다.	☐

18 음운 변동은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음운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고, 탈락은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이다. 첨가는 원래 없던 음운이 생겨나는 현상이고, 축약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19 ‘쓴 약[쓴약]’에서는 앞말의 ㄴ이 반모음 ‘[j]’로 시작하는 모음과 만나 ‘ㄴ’이 덧붙는 음운의 첨가 현상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빛[빔]’에서는 교체 현상 중 하나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

- ② ‘좋은[조:은]’에서는 음운 ‘ㅎ’이 탈락하므로 탈락 현상이 나타난다.
 ③ ‘입에[이베]’에서는 음운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입에[이베]’에서 나타나는 연음 현상은 음운이 다르게 발음되는 것이 아니므로 음운 변동 현상에 속하지 않는다.
 ⑤ ‘좋다[조:타]’에서는 ‘ㅎ’과 ‘ㄷ’이 만나 ‘ㅌ’이 되므로 음운의 변동 중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 현상이 나타난다.

20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르면 종성 ‘ㅅ, ㅆ, ㅈ, ㅊ, ㅌ, ㅎ’은 [ㄷ]으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빔’은 [빔]으로 발음해야 한다.

21 ‘ㅅ’ 받침을 ‘ㅈ, ㅌ, ㅎ’ 등으로 잘못 표기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이 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ㅅ, ㅆ, ㅌ, ㅎ’이 음절의 끝에서 변별성을 잃고 모두 [ㄷ]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들을 서로 혼동하게 되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표기 오류와 관련된 음운 변동 현상을 정확히 밝혔다.	☐
표기 오류가 나타나는 이유를 올바르게 썼다.	☐

22 ‘인력’은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는 유음화 가 나타나서 [일력]으로 발음된다.

23 구개음화는 음절 말의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발이랑[반니랑]’은 실질 형태소인 ‘발’과 ‘이랑’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24 ‘갈 길[갈길]’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쓰여서, 그 뒤에 연결된 ‘ㄱ’이 된소리로 발음된다. 한편 한자어에서 종성 ‘ㄹ’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ㅆ’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예로는 ‘갈등[갈똥]’, ‘말살[말쌀]’, ‘발전[발쩍]’ 등을 들 수 있다.

25 ㉠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연결되는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어, [할쩍]으로 발음된다. ㉡는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어, [팔리]로 발음된다.

평가 기준	확인 ☒
‘할 적[할쩍]’의 발음과 여기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알 맞게 썼다.	☐
‘팔리[팔리]’의 발음과 여기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알 맞게 썼다.	☐

26 ‘반는다’는 비음이 아닌 자음 ‘ㄷ’이 비음 ‘ㄴ’을 만나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나타나, [반는다]로 발음된다. 즉, ‘반는다’는 음운의 교체가 나타난다. 나머지 밑줄 친 단어에서는 음운의 탈락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아는’에서는 용언 어간 ‘알-’의 어간 말 자음 ‘ㄹ’이 어미 ‘-는’과 결합하여 ‘ㄹ’이 탈락하였다.

- ③ ‘날은[나은]’에서는 용언 어간 ‘날-’의 어간 말 자음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은’ 앞에서 탈락하였다.
 ④ ‘삶[삼]’에서는 음절 말의 ‘ㅁ’에서 두 자음 중 ‘ㄹ’이 탈락하고 ‘ㅁ’만 소리 나는 자음군 단순화가 나타난다. 자음군 단순화는 음운의 탈락에 해당한다.
 ⑤ ‘거친’에서는 용언 어간 ‘거칠-’의 어간 말 자음 ‘ㄹ’이 어미 ‘-ㄴ’과 결합하여 ‘ㄹ’이 탈락하였다.

27 그 옷은 내가 입기에는 너무 커.에서 ‘커’는 용언 어간인 ‘크-’의 끝 모음 ‘ㄱ’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 앞에서 탈락한 것이다.

28 ‘날으는’과 ‘낫설은’은 ‘ㄹ’ 탈락이 일어나야 할 용언의 활용형에서 ‘ㄹ’을 탈락시키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예이다. 용언 어간 ‘날-’과 어미 ‘-는’이 결합하면 ‘ㄹ’이 탈락되므로 ‘나는’이 된다. 용언 어간 ‘낫설-’과 어미 ‘-ㄴ’이 결합하면 ‘낫선’이 된다.

평가 기준	확인 ☒
‘날으는’을 ‘나는’으로 바르게 고쳐 썼다.	☐
‘낫설은’을 ‘낫선’으로 바르게 고쳐 썼다.	☐

29 ‘맨입[맨닙]’, ‘색연필[색년필]’, ‘숨이불[숨:니불]’에서는 공통적으로 ‘ㄴ’ 첨가가 일어난다. ‘색연필[색년필]’은 ‘색’과 ‘연필’의 합성어로, 앞말이 자음 ‘ㄱ’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j]’로 시작하므로 ‘ㄴ’이 덧붙어 발음되고, 앞말의 ‘ㄱ’이 비음인 ‘ㄴ’을 만나 비음 ‘ㅇ’으로 바뀌어 발음된다(ㄴ). ‘숨이불[숨:니불]’은 ‘숨’과 ‘이불’의 합성어로, 앞말이 자음 ‘ㅁ’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로 시작하므로 ‘ㄴ’이 덧붙어 발음된다(ㄹ).

오답 풀이 ㄱ. 제시된 세 단어 중에서 ‘색연필’은 한자어이다. ‘ㄴ’ 첨가는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단어에서만 나타나는 음운 변동이 아니다.

ㄷ. ‘맨입’은 파생어로, 앞말이 ‘ㄴ’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로 시작할 때 ‘ㄴ’이 덧붙어 [맨닙]으로 발음된 것이다.

30 ‘막일’은 파생어이다. 앞말이 자음 ‘ㄱ’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로 시작할 때 ‘ㄴ’이 첨가되어 [막닙]로 바뀐 후, 비음 ‘ㄴ’의 영향으로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나타난다. ‘ㄴ’ 첨가는 두 음운이 만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첨가 현상이고,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31 ‘만형[마형]’, ‘먹힌다[머킨다]’, ‘잡혔다[자편파]’, ‘옹고[올코]’에서는 ‘ㄱ, ㄷ, ㅂ’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으로 축약되어 발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④의 ‘낫선[난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후, 받침 ‘ㄷ’의 영향으로 뒤에 연결되는 ‘ㅅ’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32 ‘업히다[어피다]’에서는 ‘업-’의 ‘ㅍ’이 ‘-히-’의 ‘ㅎ’과 만나 ‘ㅍ’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따라서 ㉠에는 ‘어피다’, ㉡에는 ‘ㅍ’이 들어가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업히다’의 발음을 정확하게 썼다.	☐
‘ㅍ’과 ‘ㅎ’이 만나 ‘ㅍ’이 되었다고 썼다.	☐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54~157쪽

- 01 ① 02 ② 03 ④ 04 소리의 길이는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준다 05 ⑤ 06 ⑤ 07 ④ 08 ② 09 ⑤
10 ③ 11 [올치], 거센소리되기(축약) 12 ④ 13 ⑤
14 ⑤ 15 ‘개구쟁이’와 ‘아기’가 올바른 표기이다.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쟁이’가 붙으므로 ‘개구쟁이’가 올바른 표기이다. 그러나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애기’가 아니라 ‘아기’로 표기해야 한다.

01 음성은 물리적인 말소리(ㄱ),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다르게 들린다(ㄷ). 반면 음운은 추상적인 말소리(ㄴ), 말소리의 공통된 요소만 뽑아 추상적으로 인식한 것이다(ㄹ). 음운의 목록과 체계는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02 ‘도구’에 쓰인 자음 중 ‘ㄷ’은 잇몸소리이자 파열음이고, ‘ㄱ’은 여린입천장소리이자 파열음이다. 따라서 ‘ㄷ’과 ‘ㄱ’은 조음 방법은 서로 같으나 조음 위치는 다르다.

03 혀의 높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ㄱ’은 중모음이고, ‘ㄷ’은 저모음이다. 따라서 ‘개’와 ‘게’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하려면 혀의 높이를 달리하여야 한다. 이때 입을 더 열면 혀의 높이를 낮출 수 있다.

04 하늘에서 내리는 ‘눈[눈:]’과 감각 기관인 ‘눈[눈]’,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말[말:]’과 동물 ‘말[말]’은 소리의 길이에 따라 그 의미가 구별된다. 이처럼 소리의 길이는 단어의 의미 변별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음운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평가 기준	확인 ☒
소리의 길이가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준다는 내용을 썼다.	☐
제시된 형식에 맞게 썼다.	☐

05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을 의미하는 관형사이고, ‘웬지’는 ‘왜 그런지 모르게’를 의미하는 말이다. ⑤에서는 시기에 맞지 않는 눈이 내려 어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웬’으로 써야 한다.

06 음운의 목록은 언어마다 차이를 보이므로, 한 언어에서 구별하여 인식하는 소리들을 다른 언어에서는 구별하지 못하기도 한다. 우리는 ‘불’, ‘꿀’, ‘뿔’의 차이를 인식하지만, 영어권 화자들은 그 차이를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언어에서는 된소리가 음운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7 제시된 활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우리말은 음절 말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될 수 있는데, 음절 말에 이 외의 자음이 올 때에는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웃[웁]’은 예사소리인 음절 끝 자음 ‘ㅍ’이 ‘ㄷ’으로 바뀐 경우이므로, 음절 끝의 자음이 예사소리일 때에는 바뀌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감사합니다’는 ‘감사합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이러한 오류는 ‘ㅍ’이 비음 ‘ㄴ’을 만나 비음 ‘ㅁ’으로 바뀌어 발음된 것을 표기에도 반영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음운 변동은 비음화이다. ‘국물[궁물]’에서는 비음이 아닌 ‘ㄱ’이 비음 ‘ㅁ’을 만나 비음 ‘ㅇ’으로 바뀌었다. ‘받는다[반는다]’에서는 ‘ㄷ’이 비음 ‘ㄴ’을 만나 비음 ‘ㄴ’으로 바뀌었다.

- 오답 풀이** ① ‘관리[괄리]’에서는 유음화가 나타나고, ‘겁내다[검내다]’에서는 비음화가 나타난다.
③ ‘국밥[국뽕]’에서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고, ‘값싸다[갑싸다]’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나타난다.
④ ‘말이[마지]’와 ‘금불이[금부치]’에서는 구개음화가 나타난다.
⑤ ‘무릎[무릅]’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고, ‘먹히다[머키다]’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09 ‘겪었다[겨꼴따]’에서는 ‘ㄷ’의 종성 ‘ㅌ’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다’의 ‘ㄷ’이 된소리 ‘ㄸ’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오답 풀이** ① ‘속과[속파]’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같이[거치]’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③ ‘됨니다[뉘니다]’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④ ‘물난리[물랄리]’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10 다음은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자음 또는 모음이 탈락하는 예이다. ㉠에서는 용언 어간 ‘불-’의 끝소리 ‘ㄴ’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니’와 만나 탈락하였다.

- 오답 풀이** ① ㉡에서 용언 어간 ‘끄-’의 ‘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 앞에서 탈락하였다.
②, ⑤ ㉢는 용언 어간 ‘가-’에 선어말 어미 ‘-았-’이 연결된 것이다. ㉣는 용언 어간 ‘건너-’에 어미 ‘-어서’가 결합된 것이다. 모음 ‘ㅏ/ㅑ’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ㅏ/ㅑ’가 탈락하므로, ㉣와 ㉤에서는 각각 ‘ㅏ’, ‘ㅑ’가 탈락하였다.
④ ㉥는 용언 어간 ‘놓-’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다. 용언의 어간 말자음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므로, ‘놓아[노아]’에서도 ‘ㅎ’ 탈락이 나타난다. 하지만 ‘ㅎ’ 탈락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11 ‘옴지[옴치]’에서는 ‘옴-’의 ‘ㅎ’과 ‘-지’의 ‘ㅈ’이 만나 ‘ㅊ’으로 줄어들어서 발음된다. 즉, 축약 현상인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거센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축약되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옴지’의 발음을 정확하게 썼다.	☐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났다는 내용을 썼다.	☐

12 ㉠에서는 음절 말의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소리 나는 자음군 단순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에서는 ‘ㄴ’이 유음 ‘ㄹ’을 만나 유음 ‘ㄹ’으로 바뀌는 유음화가 나타난다. ㉢의 ‘읽는 다’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일는다]로 발음된 후 유음화가 일어나 최종적으로 [일른다]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① ‘관리’는 ‘ㄴ’이 유음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바뀌어, [팔리]로 발음된다.
 ② ‘꽃잎’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꽃입]으로 바뀌고, ‘ㄴ’ 첨가와 비음화가 나타나서 최종적으로 [꼴닙]으로 발음된다.
 ③ ‘발키다’는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어, [발키다]로 발음된다.
 ⑤ ‘한여름’은 접두사 ‘한-’과 명사 ‘여름’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앞말이 ‘ㄴ’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ㄹ[j]’로 시작하므로, ‘ㄴ’ 첨가가 나타나 [한녀름]으로 발음된다.

13 ‘숙제[숙째]’와 ‘입술[입쉴]’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된소리되기는 음운 교체 현상에 속하므로,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14 ㉢ ‘민는다’는 비음이 아닌 ‘ㄷ’이 비음 ‘ㄴ’을 만나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나타나, [민는다]로 발음된다. ㉣의 ‘부엌문’은 음운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부억문]으로 바뀌고, 비음이 아닌 ‘ㄱ’이 비음 ‘ㄹ’을 만나 비음 ‘ㄹ’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나타나, [부영문]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늣히다’는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따라서 [누피다]로 발음된다.
 ㉡ ‘달나라’는 ‘ㄴ’이 유음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달라라]로 발음된다.
 ㉢ 합성어인 ‘숨이불’은 앞말인 ‘숨’이 자음인 ‘ㄹ’으로 끝나고 뒷말인 ‘이불’이 모음 ‘ㅣ’로 시작하여, ‘ㄴ’이 덧붙여 발음되는 ‘ㄴ’ 첨가가 나타난다. 따라서 [숨:니불]로 발음된다.

15 ‘개구쟁이’는 짓궂게 장난을 하는 아이를 뜻하는 말로, 기술자가 아니므로 ‘-쟁이’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다. 그리고 표준어 규정 제9항에서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을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애기’가 아니라 ‘아기’라고 표기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개구쟁이’와 ‘아기’가 올바른 표기라고 썼다.	☐
표준어 규정에 근거하여 표기 선택의 이유를 적절하게 썼다.	☐

(4) 국어 규범과 국어생활

내용 확인 문제



본문 161~167쪽

- 01 ㉡ 02 ㉤ 03 ㉠: 침표, ㉡: 아빠의 옷 04 ㉢
 05 ㉡ 06 ㉢ 07 ㉣ 08 ㉠: 용언의 여간 말임이고 ‘ㄱ’ 앞에 올, ㉡: [ㄹ] 09 ㉢ 10 ㉣ 11 ㉡ 12 ㉠
 은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였다.

01 ‘민소매’의 ‘민-’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것이 없음’ 또는 ‘그것이 없는 것’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접사는 붙여 쓰므로 ‘민-’ 역시 ‘소매’에 붙여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과’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③ ‘새’는 ‘사용하거나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을 뜻하는 관형사이자 단어로, ‘가방’을 꾸며 주고 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어인 ‘새’는 ‘가방’과 띄어 써야 한다.
 ④, ⑤ ‘가방에다’에서 ‘다’를 부사로 볼 경우에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방에 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반면, ‘에다’를 조사로 볼 경우에는 ‘가방에다’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기 때문이다.

02 ‘떠내려가다’는 합성 용언이다. 한글 맞춤법 제47항에 따르면 보조 용언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보조 용언은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떠내려가버렸다’는 ‘떠내려가 버렸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03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장 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아빠 옷을 교환하러 가요.’에서는 ‘아빠’가 부름말인지, ‘아빠 옷’이 ‘아빠의 옷’을 뜻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때 침표를 써서 ‘아빠, 옷을 교환하러 가요.’라고 쓰면 ‘아빠’가 부름말임을 표시할 수 있다.

04 ‘가’는 조사이므로 앞말인 ‘내’에 붙여 써야 한다. ‘설’과 ‘곳’은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은’은 조사이므로 앞말인 ‘곳’에 붙여 써야 한다. ‘밖에’는 조사이므로 앞말인 ‘집’에 붙여 써야 한다. ‘없다’는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내가 설 곳은 집밖에 없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05 ‘재밋다’는 ‘재미있다’를 줄여 쓴 말로, 표준어에 해당한다. 구어에서는 문어와 달리 준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마음’을 줄여 쓴 말인 ‘맘’, ‘다움’을 줄여 쓴 말인 ‘담’ 역시 표준어이다.

06 ‘-(으)ㄹ걸’은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는 어미이므로, ‘잘꺾’이 아니라 ‘잘꺾’이 올바른 표기이다.

- 오답 풀이** ① 의문형 어미인 ‘-(으)ㄹ꼬?’는 된소리로 적는다.
 ② 어미 ‘-(으)ㄹ게’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④ ‘ㅂ’ 뒤에 ‘-었-’이 어울려 ‘냈’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으므로, ‘씩었다’를 줄여 쓸 경우 ‘냈다’로 적는다.

⑤ ‘뵤니’는 용언 ‘뵤다’의 어간 ‘뵤-’에 연결 어미 ‘-니’가 결합한 것으로 바른 표기이다.

07 표준어 사정 원칙 제12항에 따르면,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다만,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하고,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웃돈’은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이므로 ‘웃-’으로 쓴다. 그리고 ‘윗눈썹’은 ‘위-’나 ‘웃-’을 쓰는 환경이 아니므로, ‘윗-’으로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 명사 ‘위’가 합성어를 이룰 경우에는 ‘윗-’으로 표기하므로, ‘윗입술’, ‘윗자리’, ‘윗배’, ‘윗수염’이 바른 표기이다.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써야 하므로, ‘위충’, ‘위쪽’, ‘위팔’로 써야 한다.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의 경우에는 ‘웃-’으로 써야 하므로, ‘웃어른’으로 써야 한다.

08 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해야 한다. 하지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읽지’에서 받침 ‘ㄹ’은 자음 앞에 있으므로 [ㄱ]으로 발음해야 한다. 그리고 ‘읽고’에서 받침 ‘ㄹ’은 용언의 어간 말음 이면서 ‘ㄱ’ 앞에 오므로 [ㄹ]로 발음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받침 ‘ㄹ’이 용언의 어간 말음이고 ‘ㄱ’ 앞에 올 때 [ㄹ]로 발음한다는 내용을 썼다.	☐

09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3에 따르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로 발음해야 한다. ‘무늬’에서 ‘ㄴ’은 자음 ‘ㄴ’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에 있으므로, []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무늬’는 [무니]로 발음해야 한다.

10 문학 작품에서는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국어 규범을 지키지 않거나 표준어가 아닌 방언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A]에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1 가상 공간에서는 국어 규범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 이는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글자를 쉽고 빠르게 입력하기 위해서, 새말을 만들어 쓰면서 재미를 얻기 위해서 등 다양한 목적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문어체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2 인터넷 블로그나 누리 소통망(SNS) 등의 가상 공간에서는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추카’, ‘마니’와 같이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쓰기도 하는데, 이는 글자 입력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라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68~171쪽

- 01 ④ 02 ③ 03 ① 04 ② 05 ④ 06 ②
 07 ④ 08 ㉠: 된소리나 거센소리, ㉡: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09 ③ 10 ⑤ 11 ③ 12 ① 13 ③
 14 머언 15 ⑤ 16 ①

01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넣어 주세요’에서 ‘넣어’는 본용언이고 ‘주세요’는 보조 용언이므로, ‘넣어 주세요’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넣어주세요’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02 ‘이’는 조사이므로 ‘달’에 붙여 쓴다. ‘구름’과 ‘속’은 각각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으로’는 조사이므로 ‘속’에 붙여 쓴다. ‘사라지고 있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03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조사는 단어이지만 예외적으로 앞말에 붙여 쓴다. 단어가 아닌 어미나 접사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04 ②의 ‘-듯’은 뒤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내가 전에도 말했듯 너는 축구를 정말 잘해.’와 같이 써야 한다.

05 ‘지’는 ‘짓’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로 표준어에 해당한다. ‘뒹으면’은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2]에 어긋나는 표기로, ‘뒹으면’과 같이 고쳐 써야 한다. ‘재밋던지’에서 ‘재밋다’는 ‘재미있다’의 준말로 표준어에 해당한다. ‘니’는 구어에서 ‘너’ 대신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표준어는 아니다. ‘줄게’는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어긋나는 표기로, ‘줄게’와 같이 예사소리로 적어야 한다.

06 한글 맞춤법 제43항에 따르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써야 한다. ‘두 단씩’에서 ‘단’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하고, ‘-씩’은 ‘그 수량이나 크기로 나뉘거나 되풀이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두 단씩’이 올바른 표기이다.

07 ‘바닷가’, ‘갯잎’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이다. ‘바닷가’는 뒷말인 ‘가’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서 [바다까/바단까]로 발음된다(㉠). ‘갯잎’은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서 [갯닙]으로 발음된다(㉡). ‘자릿세’, ‘뿔마루’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이다. ‘자릿세’는 뒷말인 ‘세’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서 [자리세/자리췌]로 발음된다(㉢). ‘뿔마루’는 뒷말 ‘마루’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서 [뿔:마루/뿔:마루]로 발음된다(㉣).

08 명사 ‘위’가 합성어를 이룰 경우에는 ‘윗니’, ‘윗입술’, ‘윗배’와 같이 ‘윗-’으로 표기한다. 하지만 ‘위쪽’, ‘위충’, ‘위팔’과 같이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쓴다. 그리고 ‘웃돈’, ‘웃어른’, ‘웃웃’과 같이 아래, 위의 대립이 없을 경우에는 ‘웃-’으로 쓴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된소리나 거센소리’라고 썼다.	☐
㉡에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이라고 썼다.	☐

09 ㉠과 ㉡는 각각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 ‘-지’가 연결되어 있다. 받침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지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ㄷ’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따라서 ‘읽다[익따]’의 ‘ㄷ’은 [ㄱ]으로 발음하지만, ㉠ ‘읽고[일꼬]’의 ‘ㄷ’은 [ㄹ]로 발음한다. 받침 ‘ㅁ’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므로, ㉡ ‘넓지는[넌찌는]’의 ‘ㅁ’은 [ㄹ]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ㄱ. 용언의 어간 발음 ‘ㄷ’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하므로, ‘읽고[일꼬]’의 ‘ㄷ’은 [ㄹ]로 발음한다.

ㄴ. ‘읽다[익따]’의 ‘ㄷ’은 [ㄱ]으로 발음한다. ‘발-’은 예외적으로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하므로, ‘발따[밥따]’의 ‘ㅁ’은 ‘ㅂ’으로 발음한다.

10 표준 발음법 제5항에 따르면, ‘ㄷ’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야 하고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함이 허용된다. 따라서 ‘의의’는 [의:이] 또는 [의:의]로 발음해야 한다.

11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므로 ‘수사자’라고 써야 한다. 또한 접두사 다음에서 거센소리가 날 경우 이를 인정하여 적으므로 ‘수캐’라고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므로 ‘수평’, ‘수놈’, ‘수나사’, ‘수여우’라고 써야 한다. 또한 접두사 다음에 거센소리가 날 경우 이를 인정하여 적으므로 ‘수탉’, ‘수태지’, ‘수탕나귀’, ‘수캉아지’라고 써야 한다.

12 ㄱ에서 ‘같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ㄴ에서 ‘줄’은 의존 명사이므로 ‘될 줄’과 같이 띄어 쓴다. 또한 어미 ‘-(으)ㄹ걸’은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둘걸’로 쓴다.

오답 풀이 ㄷ. ‘그림의 떡’이 국어 규범에 맞는 표기이다.
ㄴ. ‘윗도리’가 국어 규범에 맞는 표기이다.

13 (가)에서는 ‘네가’ 대신 ‘니가’라고 표현함으로써 구어체의 느낌을 살리고 있다. (나)에서는 방언을 사용하여 지역의 특색을 드러내고, 실제 대화를 듣는 듯한 생생한 구어의 느낌을 주고 있다.

14 (가)에서 ‘머언’은 ‘멀다’의 관형사형인 ‘먼’의 음절을 늘여서 쓴 것이다. 이는 ‘멀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국어 규범을 지키지 않은 예로 볼 수 있다.

15 사람들은 가상 공간에서 국어 규범에 어긋나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글자 입력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재미를 얻기 위해서 등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가상 공간에서 국어 규범에 어긋난 표현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가상 공간에서도 국어 규범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6 ‘지호’는 공식적인 글에서 쓰지 않는 표현인 ‘아쉽당’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문장 부호를 과도하게 쓰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② ‘은하’는 ‘ㄷㅋ해염’과 같이 단어의 발음을 초성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③ ‘현정’은 ‘생일축하한당’, ‘내선물은’과 같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④ ‘준희’는 ‘생축(생일 축하)’, ‘생파(생일 파티)’와 같이 줄임 말을 사용하였다.

⑤ ‘영빈’은 ‘추카해’, ‘마니마니’와 같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문 172~177쪽

- 01 ② 02 ④ 03 ⑤ 04 ③ 05 ③ 06 ③
07 ③ 08 ㉠: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기능이 다르면 각각의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품사로 설정하는(기능에 더 중점을 두는), ㉡: 단어의 형태와 기능이 일대대로 대응되어 복잡해진다 09 ④ 10 ③ 11 ⑤
12 ‘뱀뱀’, ‘눈물’은 어근의 형태가 단어 형성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지만, ‘흔뱀’, ‘셀카’는 그렇지 않고 일부가 줄어든 상태로 결합된다. 13 ②
14 부르던지 말던지 → 부르든지 말든지, 나열된 동작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는 ‘-든지’를 쓴다. 15 ③
16 ② 17 ② 18 ① 19 ⑤ 20 ③ 21 ③
22 ④ 23 ③ 24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등꽃길’이 바른 표기이다. 25 ② 26 ①

01 ‘품사’란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분류한 것을 말한다. 품사는 형태에 따라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 있고, 기능에 따라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로 나눌 수도 있다.

오답 풀이 ㄴ.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들은 문장 성분이다.

ㄷ. 단어를 유사한 의미적 특성을 지닌 것끼리 분류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로 나눌 수 있다.

02 ‘서둘러’는 동사 ‘서두르다’의 활용형이다. 문장에서 ‘향했다’를 꾸며 주며 부사어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단어 본래의 기능은 서술어로 쓰이는 것이므로 수식언이 아니라 용언이다.

오답 풀이 ① ‘지원’은 명사로, 문장에서 주로 주어의 기능을 하므로 체언에 해당한다.

② ‘새’는 체언 ‘신발’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관형사로, 수식언에 해당한다.

③ 조사 ‘을’은 ‘신발’이 서술어 ‘신고’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관계언에 해당한다.

⑤ ‘향했다’는 동사 ‘향하다’가 활용한 형태로,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용언에 해당한다.

03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들을 아울러 대표하는 이름이므로, 보통 명사에 해당한다. 보통 명사는 ‘사랑’, ‘학생’과 같이 공통된 특성을 지닌 대상들을 아울러 대표하는 이름을 가리킨다.

04 ‘도’는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똑같이 아우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나머지는 모두 앞말이 문장 안에서 특정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격 조사이다.

오답 풀이 ① ‘이다’는 앞말이 서술어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서술격 조사이다.

② ‘을’은 앞말이 목적어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목적격 조사이다.

④ ‘가’는 앞말이 주어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주격 조사이다.

⑤ ‘에게’는 앞말이 부사어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부사격 조사이다.

05 ‘추워’는 ‘춥다’의 어간 ‘춥-’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서, 어간의 말음인 ‘ㅂ’이 ‘우’로 변한 것이다. 따라서 활용할 때 어간이 불규칙한 경우에 해당한다. ‘푸르러’는 ‘푸르다’의 어간 ‘푸르-’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서 어미 ‘-어’가 ‘-러’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활용할 때 어미가 불규칙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얏’은 ‘하얏다’의 어간 ‘하얏-’에 어미 ‘-아’가 결합하면서, 어간의 말음인 ‘ㅎ’이 탈락하고 어미의 형태 역시 변한 것이다. 따라서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한 경우에 해당한다.

06 ‘만하다’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할 수 없다. ‘만하다’는 형용사와 같이 활용하므로 보조 형용사이다.

07 ‘엄마는 결국 똑같은 새 장난감을 하나 더 사 주기로 약속하였다.’에서 ‘결국’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이다. 하지만 ‘결국’이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08 <보기>에서는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기능이 다르면 서로 다른 품사로 설정하는, 품사 통용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원래 단어는 형태와 기능이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이 이상적인데, 품사 통용의 관점을 취할 경우 단어의 형태와 기능이 일대다로 대응되어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④에 해당하는 관점이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기능이 다르면 각각의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품사로 설정하는 관점이라는 내용을 썼다.	☐
⑥에 단어의 형태와 기능이 일대다로 대응되어 복잡해진다는 내용을 썼다.	☐

09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ㄴ). ‘나는 오늘 일찍 자겠다.’를 형태소별로 분석하면 ‘나’, ‘는’, ‘오늘’, ‘일찍’, ‘자-’, ‘-겠-’, ‘-다’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문장에 사용된 형태소는 모두 7개이다(ㄷ).

오답 풀이 ㄱ.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다. 조사는 자립할 수 없는 말이지만, 앞말과 쉽게 분리할 수 있으므로 단어에 해당한다.

ㄷ. ‘나는 오늘 일찍 자겠다.’를 단어별로 분석하면 ‘나’, ‘는’, ‘오늘’, ‘일찍’, ‘자겠다’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문장에 사용된 단어는 모두 5개이다.

10 ‘하늘을 보니 곧 비가 내릴 것 같다.’에서 자립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은 ‘하늘’, ‘곧’, ‘비’, ‘것’이고,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은 ‘을’, ‘보-’, ‘-니’, ‘가’, ‘내리-’, ‘-ㄴ’, ‘갈-’, ‘-다’이다.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은 ‘하늘’, ‘보-’, ‘곧’, ‘비’, ‘내리-’, ‘것’, ‘갈-’이고,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은 ‘을’, ‘-니’, ‘가’, ‘-ㄴ’, ‘-다’이다. 따라서 ④와 ⑥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하늘’, ‘곧’, ‘비’, ‘것’이다.

11 ‘부채질’은 어근 ‘부채’와 접사 ‘-질’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깟잎’은 어근 ‘깟’과 어근 ‘잎’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무지개’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12 ‘밤비’와 ‘눈물’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 각각 ‘밤+비’와 ‘눈+물’로 분석할 수 있다. 두 단어 모두 각 어근의 형태가 온전히 남아 있다. 반면, ‘혼밥’과 ‘셀카’는 단어의 첫 말을 따서 말을 줄이는 방식으로 형성된 새말이다. 이들은 각각 ‘혼(자)+밥(을 먹음.)’, ‘셀(프)+카(메라)’로 분석할 수 있는데, 각 어근의 형태가 단어 형성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밤비’와 ‘눈물’은 어근의 형태가 단어 형성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썼다.	☐
‘혼밥’과 ‘셀카’는 어근의 형태가 단어 형성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썼다.	☐

13 ‘감정’은 의미상 ‘기쁨’을 포함하는 단어이므로 ④에는 ‘상의어’가 들어가야 한다. ‘슬픔, 괴로움’은 의미상 ‘기쁨’과 대립하는 단어이므로 ⑤에는 ‘반의어’가 들어가야 한다. ‘즐거움, 쾌락, 희열, 환희’는 의미상 ‘기쁨’과 비슷한 단어들이므로, ③에는 ‘유의어’가 들어가야 한다.

14 모음을 받음하거나 표기할 때 ‘ㄴ’과 ‘ㄷ’, ‘ㄹ’과 ‘ㄷ’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선택을 나타내는 어미는 ‘-든지’이므로, ‘노래를 부르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에서 ‘부르던지 말던지’는 ‘부르든지 말든지’로 고쳐 써야 한다. ‘금시(今時)’의 준말은 ‘금세’이므로, ‘날이 금세 어두워졌다.’는 맞는 표기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부르던지 말던지’를 ‘부르든지 말든지’로 고쳐 써야 한다고 썼다.	☐
표기가 잘못된 이유를 적절히 썼다.	☐

15 목청소리에는 ‘ㅎ’이 있다. 잇몸소리에는 ‘ㄴ, ㄷ, ㄲ, ㄷ, ㄹ, ㅅ, ㅆ’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예사소리에 해당하는 것은 ‘ㄷ’과 ‘ㅅ’이다. 반모음 ‘ㅇ/ㅈ[w]’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에는 ‘ㄴ, ㄹ, ㄷ, ㄹ’이 있다.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중모음 중 원순 모음, 즉

후설 모음이자 중모음이자 원순 모음인 것은 ‘ㄴ’이다. ‘소화’는 목청소리 ‘ㅎ’, 잇몸소리 중 예사소리인 ‘ㅅ’, ‘반모음’ ㅛ/ㅟ[w]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 ‘ㅛ’, 후설 모음이자 중모음이자 원순 모음인 ‘ㄴ’이 모두 사용된 단어이다.

16 밤나무의 열매인 ‘밤’은 길게 발음하는데, ‘밤나무’에서 ‘밤’은 단어의 첫음절에 있으므로 그대로 길게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③ 여기에 쓰인 ‘밤’은 낮과 구별되는 ‘밤’이므로 짧게 발음한다.

④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원래 길게 발음한다. 하지만 둘째 음절부터는 짧게 발음되므로 ‘함박눈’에서 ‘눈’은 짧게 발음한다.

⑤ 감각 기관인 ‘눈’은 짧게 발음한다.

17 <보기 1>에서 ㉗는 ‘a’가 ‘b’로 바뀌었으므로 교체를 나타내고, ㉘는 ‘a’가 탈락하였으므로 탈락을 나타낸다. ㉙는 없던 ‘a’가 새로 생겼으므로 첨가를 나타내고, ㉚는 ‘ab’가 ‘c’로 줄어들므로 축약을 나타낸다. <보기 2>의 ㉛에서는 ‘ㅎ’이 탈락하였고, ㉜에서는 ‘ㄴ’이 ‘ㄹ’로 교체되었다. 따라서 ㉛에는 ㉛가, ㉜에는 ㉜가 들어야 한다.

18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므로, ‘닭과’는 [닥파]로 발음한다. 반면,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하므로 ‘읽고’는 [일꼬]로 발음한다. ‘닭과[닥파]’를 발음할 때에는 ‘ㄹ’이 탈락하고 ‘읽고[일꼬]’를 발음할 때에는 ‘ㄱ’이 탈락하므로, 음절 말에서 탈락하는 자음은 서로 다르다.

19 ㉞의 ‘않더라[안터라]’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축하[추카]’와 ‘종갓어[조게씨]’ 역시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나는 단어들이다.

오답 풀이 ① ㉙의 ‘실내[실래]’에서는 유음화가 나타난다. ‘난리[날리]’에서는 유음화가 나타나고, ‘눈요기[눈노기]’에서는 ‘ㄴ’ 첨가가 나타난다. ② ㉛의 ‘갈 길[갈길]’에서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숙제[숙제]’에서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고, ‘물장난[물장난]’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③ ㉝의 ‘좋아해[조아해]’에서는 ‘ㅎ’ 탈락이 나타난다. ‘달아[다아]’에서는 ‘ㅎ’ 탈락이 나타나고, ‘믿는다[민는다]’에서는 비음화가 나타난다.

④ ㉞의 ‘한여름[한녀름]’에서는 ‘ㄴ’ 첨가가 나타난다. ‘입술[입술]’에서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고, ‘숨이불[숨니불]’에서는 ‘ㄴ’ 첨가가 나타난다.

20 ㉞에서 ‘젓는’은 ‘젓는’으로 고쳐 써야 한다. 이러한 표기 오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ㅅ’과 ‘ㅈ’ 모두 음절 말에서 변별성을 잃고 [ㄷ]으로 발음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21 ㉜에 쓰인 ‘대로’는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서 ‘나대로’와 같이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훌륭한’, ‘사람’은 각각의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② ‘같이’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④ ‘자루’는 기름하게 생긴 필기도구나 연장. 무기 따위를 세는 단위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⑤ ‘먹어 버렸다’에서 ‘버렸다’는 보조 용언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쓸 수도 있다.

22 제시된 편지글에는 구어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구어에서는 문어와 달리 준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편지글에서도 줄임말인 ‘재밌던지(재미있던지)’, ‘맘(마음)’, ‘담(다움)’을 사용하고 있다. ‘너’를 ‘니’로 쓰는 것도 구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는 아직 표준어가 아니다. 한편,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2]에 따르면 ‘ㄱ’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갓’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되었으면’을 줄여 쓸 경우 ‘됐으면’으로 써야 하므로, ‘됐으면’은 ‘됐으면’으로 고쳐 써야 한다.

오답 풀이 수빈: 문어에서는 ‘에게’와 ‘와/과’를 주로 사용하지만, 구어에서는 ‘한테’와 ‘랑’, ‘하고’를 주로 사용한다. 이는 모두 표준어에 속한다.

현진: ‘줄게’는 동사 ‘주다’의 어간 ‘주-’에 어미 ‘-(으)ㄴ’이 결합한 것이다. [줄게]와 같이 된소리로 발음되지만,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따라 예사소리로 적어야 한다.

23 표준어 사정 원칙 제7항에서는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를 ‘수-’로 통일하고 있다. 따라서 ‘수놈’은 바른 표기이다. 다만,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평아리’ 등의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 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하므로, ‘숫병아리’가 아닌 ‘수평아리’로 적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숫양’, ‘숫염소’, ‘숫쥐’에서는 접두사 ‘숫-’을 사용한다.

24 ‘등꼴깍(登校(-))’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이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 [ㄱ]로 발음되므로, 제30항의 2-(1)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평가 기준	확인 ☒
‘등꼴깍’이 바른 표기라는 내용을 썼다.	☐
‘등꼴깍’이 바른 표기라는 근거로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25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는 ‘ㄴ’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데,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하고,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ㄴ’은 [ㄴ]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이에 따르면, ‘결의(決意)’의 ‘ㄴ’은 이중 모음 [ㄴ]으로 발음할 수도 있고, ‘의’가 단어의 두 번째 음절에 있으므로 [ㄴ]로 발음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결의(決意)’는 [결릭] 또는 [거리]로 발음할 수 있다.

26 가상 공간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상 공간에서 쓰이는 언어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의사소통 참여자가 이들을 모두 알고 있다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더 재미있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모를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듣는 이가 해당 표현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가상 공간에서 쓰이는 언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을 표준어로 바꾸어 쓸 경우 표현의 효과나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

4. 매체 언어의 탐구 및 활용



(1) 매체 언어의 소통과 표현

내용 확인 문제

본문 183~185쪽

01 ④ 02 ② 03 정보의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등을 판단하며 수용해야 한다. 04 ④ 05 ③ 06 ④ 07 서술자의 서술

01 책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책은 만드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의 다른 매체에 비해 정보를 제공하는 속도가 느리다.

02 텔레비전은 영상, 음향, 문자 언어, 음성 언어 등을 활용하여, 신문에 비해 정보를 생생하게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대중에게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다. 하지만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개방적이지는 않으며, 그러한 특성을 지닌 매체는 인터넷이다.

03 인터넷은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개방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는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가 많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정보를 수용할 때에는 그 정보의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04 매체 자료는 매체 언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동일한 메시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그 표현 방식을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매체 자료를 수용하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을 받거나,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매체 자료가 지닌 심미적 가치를 향유하는 일도 중요하다.

05 ㉠은 '헌혈'이라는 단어와 '생명이 피다.'라는 문구, 꽃이 피는 그림을 함께 배치하여, 헌혈을 통해 새 생명이 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에 직유법은 쓰이지 않았다. ㉡은 헌혈을 할 때 손을 쥐었다 펴는 행위를 나타낸 그림, 헌혈을 하면 기쁨이 두 배가 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문구를 통해 헌혈을 주제로 한 광고임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에 대구법은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헌혈을 하면 새 생명이 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헌혈을 독려하고 있다. ㉡에서는 헌혈을 하면 기쁨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헌혈에 참여하기를 권하고 있다.

② ㉠에서는 꽃이 피는 그림과 '피다'라는 문구에, ㉡에서는 '기쁨'과 '사랑'이라는 문구에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을 사용하였다.

④ ㉠에서는 '헌혈'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헌혈에 참여해 달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에서는 헌혈을 할 때 혈액 순환을 위해 손을 쥐었다 펴는 행위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광고가 헌혈과 관련 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6 제시된 두 광고는 헌혈에 참여해 달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체 자료는 매체 언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동일한 메시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심미적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은 매체마다 다를 수 있다. 소설은 인쇄 매체로서, 주로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심미적 가치를 드러낸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86~189쪽

01 ④ 02 인터넷은 개방성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가 많다. 03 ④ 04 ③ 05 ㉠: 문자 언어, 그림(지도), 도표 등, ㉡: 문자 언어, 그림(지도), 영상 등 06 ② 07 ⑤ 08 매체 자료의 창의적 표현 방식을 탐구하고, 그 안에 담긴 심미적 가치를 향유해야 한다. 09 ⑤ 10 ⑤

01 인터넷은 개방성을 띠어서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ㄱ). 신문은 정보를 구성할 때 문자 언어나 사진을 주로 사용한다(ㄴ). 텔레비전은 영상, 음향, 문자 언어, 음성 언어 등을 활용하여, 신문보다 생생하고 실재감 있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ㄷ).

오답 풀이 ㄴ. 책은 대개 전문성을 갖춘 필자가 내용을 제공하므로,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폐쇄적이다.

02 <보기>에서 '승희'는 인터넷에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제작한 콘텐츠에서 잘못된 내용들을 보고 실망하였다. 이처럼 인터넷상에서는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거나 소비할 수 있어서,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가 많다.

평가 기준	확인 ☒
인터넷의 개방성 때문에 인터넷상에는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가 많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3 신문은 마감 시간과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서, 책에 비해 상세한 내용을 다루기 어렵다. 따라서 신문이 시간의 제약이 적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ㄱ의 '학생'은 당장 내일 필요한 준비물을 친구들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정보를 빨리 전달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ㄴ의 '과학자'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지면의 제약이 크지 않아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책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ㄷ의 '가상청'은 갑작스러운 태풍에 대비해야 한다는 중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정보 제공의 속도가 빠르고 다수의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텔레비전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ㄹ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보여 주고 싶어 한다. 따라서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영상, 음향,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매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다)에서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날씨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상아'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 (나), (다)는 모두 전국의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오늘 전국의 날씨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생활 지수, 밀물과 썰물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현재 날씨뿐만 아니라 내일의 날씨, 기상 특보,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④ (가)는 라디오로 음성 매체에 해당하고, (나)는 신문으로 인쇄 매체에 해당한다. ⑤ (다)는 인터넷으로, (가)의 라디오나 (나)의 신문에 비해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다.

05 같은 날씨에 보도된 일기 예보라도 매체에 따라 정보의 구성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신문으로, 문자 언어, 그림(지도), 도표를 활용하고 있다. (다)는 인터넷으로, 문자 언어, 그림(지도), 영상 등을 활용하고 있다.

06 (가)에 제시된 두 광고는 모두 인쇄 광고이고, 현형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매체 자료가 동일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더라도 그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7 ㉠과 ㉡에서는 '서하'의 편지를 받은 '아름'의 머릿속에 '서하'의 목소리가 자꾸 메아리쳐 울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에서는 환청처럼 들리는 '서하'의 목소리가 하는 말과 '아름'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고, ㉡에서는 '서하'의 목소리를 효과음으로 처리하고 있다.

08 (라)에서는 매체 자료의 표현 방식과 심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하는 행위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매체 자료의 창의적 표현 방식을 탐구하고, 그 안에 담긴 심미적 가치를 향유함으로써, 매체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매체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려면 매체 자료의 창의적 표현 방식을 탐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매체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려면 매체 자료에 담긴 심미적 가치를 향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09 이 광고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 주차 문제, 흡연 문제, 쓰레기 문제, 악취 문제 등 공동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통증'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즉 약으로서 '소통'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공동 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10 이 광고에서는 '알고 나누고', '친해지고 정들고'와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이웃 간의 소통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알고 나누고'와 '친해지고 정들고'는 비슷한 맥락의 문장이므로, 이들이 대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매체 자료의 수용

내용 확인 문제

본문 193쪽

01 ③ 02 ② 03 ④

01 패션쇼의 독특한 의상을 보고 누군가는 심미적인 관점에서 옷의 아름다움을 높게 평가할 수 있고, 누군가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옷의 활동성이 떨어지므로 옷으로서 가치가 낮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02 [A]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예로 들어 매체 자료를 수용하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매체 자료를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③ 텔레비전 드라마가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도 일부 드러나지만 중심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④ 매체 자료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존재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⑤ 텔레비전 드라마를 예술적 가치 또는 사회적 영향력과 규범적 가치를 중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매체 자료를 수용하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므로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

03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면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매체 자료가 지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고(ㄴ), 동일한 매체 자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ㄷ).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94~197쪽

- 01 ④ 02 ③ 03 ③ 04 19세 미만은 투표를 못하고, 19세 미만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25세 미만은 국회 의원에 출마할 수 없고, 40세 미만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05 ① 06 ② 07 ③ 08 ⑤ 09 ④ 10 인
 기 웹툰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역사적 사실과 이를 가공한 부분에 대해 밝히고 있다. 11 ④
 12 ③

01 현대 사회에서 매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면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02 <보기>에서 텔레비전 드라마의 폭력적인 장면을 보고 항의한 시청자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지닌 사회적 영향력과 규범적 가치를 강조한 것이고, 제작자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지닌 예술적 가치를 강조하여 평가한 것이다. 방송 심의 위원회에서 드라마 제작자를 징계한 것은 사회적 영향력과 규범적 가치를 강조한 시청자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송 심의 위원회는 드라마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패션쇼 사진을 활용하여 옷에 대한 관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듯이 매체 자료에 대한 관점 역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 텔레비전 드라마를 예로 들어 관점과 가치에 따라 매체 자료를 다르게 수용할 수 있음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ㄴ. 같은 매체를 평가하는 서로 다른 관점이 드러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만,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04 영상물의 제목은 공직 선거법, 정당법, 헌법의 내용 중 '19세 미만은 투표를 못함. 19세 미만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음. 25세 미만은 국회 의원에 출마할 수 없음. 40세 미만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수 없음.'과 같이 연령에 따라 제한된 사항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연령에 따라 제한된 다음 사항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는 내용을 썼다.	☐
19세 미만은 투표를 못한다는 내용을 썼다.	☐
19세 미만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썼다.	☐
25세 미만은 국회 의원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을 썼다.	☐
40세 미만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을 썼다.	☐

05 이 영상물은 참정권 행사를 일찍 할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견해, 투표 결과가 미래 세대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6세부터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34개 국가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점, 투표에 일찍 참여할수록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을 제시하여 선거권의 연령 제한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06 (다)는 투표 결과가 미래 세대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6세부터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다)에는 나라의 독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16세부터 투표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모든 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야 한다거나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사진 자료에는 2014년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국민 투표에서 16세~17세의 투표율이 18세~24세의 투표율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을 뿐, 찬성과 반대에 대한 통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사진 자료를 통해서 독립에 대한 관심이 학생들보다 어른들이 높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

07 만 18세는 입시에 큰 영향을 받는 연령층이므로 정치인들이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더라도 다양한 입시 관련 공약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물의 내용에 동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만 18세는 입시에 큰 영향을 받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입시 위주의 공약을 남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08 매체가 지닌 사회적 영향력과 규범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매체에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옹호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반면 사회에서 지향해야 하는 가치가 제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⑤는 내용의 구성과 추리적 요소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영향력이나 규범적 가치를 중시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

09 이 만화를 보면서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어 역사 과목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짝반짝'의 의견은 이 웹툰의 실용성에 가치를 두고 평가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웹툰에 저작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재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평가하고 있다.
 ② 이 웹툰의 설정에 주목하여 평가하고 있다.
 ③ 이 웹툰이 주는 즐거움에 가치를 두고 평가하고 있다.
 ⑤ 이 웹툰의 인물, 사건, 배경 등 서사적 장치에 가치를 두고 평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은 인터넷에 연재되고 있는 웹툰(webtoon)이다. 조선 시대의 인물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설정으로 역사적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이 웹툰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체 자료를 주제적으로 해석·평가하는 능력과 매체 자료에 담긴 다양한 가치를 향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10 인기 웹툰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이 웹툰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고 있는 만큼 역사를 왜곡한 부분은 없는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작가는 [A]를 제시하여 '기록에 있는 것 正史'와 허구로 재구성한 부분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이 역사적 사실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역사적 사실과 픽션이 제시되어 있다는 내용을 썼다.	☐
역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임을 썼다.	☐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11 도깨비 설화라는 전통적 모티프를 활용해서, 불멸의 삶, 도깨비 신부, 저승사자가 등장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사건들'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단일한 관점이나 가치를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누가 그 자료를 생산하였는가?, 그 자료는 어떤 수용자를 대상으로 생산되었는가?, 생산자는 수용자가 그 자료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느끼기를 원하는가?', 매체 자료가 표상하는 현실은 얼마나 사실적인가?, 매체 자료가 제시하는 가치에 대해 나는 동의하는가?, 매체 자료가 담고 있는 의도나 메시지는 어떤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가?' 등에 대해 따지며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

(3) 매체 자료의 생산

내용 확인 문제

본문 201쪽

01 ① 02 ② 03 ③ 04 언어적 특성, 파급력

01 이 글에서 라디오는 음성 언어만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텔레비전은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등 매체마다 언어적 특성이 다르다고는 설명했지만, 매체마다 언어적 특성이 다른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은 소통의 목적, 수용자, 매체의 특성이다.

③ 심미적 정서 표현이 목적인 매체 자료는 애니메이션, 영화, 대중가요 등이 있다.

④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생산자가 수용자와 소통하려는 목적은 정보 전달과 설득, 심미적 정서 표현, 사회적 상호 작용 등으로 다양하다.

⑤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매체마다 언어적 특성이 다르고, 매체가 지닌 파급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02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맛집에 방문한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블로그에 게시한 것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설득'이 목적인 매체 자료의 예로 광고를 들 수 있다.

03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생산자는 수용자의 연령과 성별, 배경지식, 관심사, 그리고 수용자가 다수인지 소수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수용자의 외모는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04 똑같은 상품을 광고하더라도 라디오는 음성 언어만으로 정보를 전달하지만, 텔레비전은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매체마다 언어적 특성이 다르므로 이에 적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 또 매체가 지닌 파급력이 각기 다르므로 자료를 생산할 때에는 이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02~205쪽

01 ⑤ 02 ② 03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와 양,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04 ② 05 (가)와 (나)는 다수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는 생산자가 '이웃님들', 즉 자신의 블로그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의 수용자는 (가), (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 06 ③ 07 청소년 진로 박람회의 개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08 ③ 09 ③
10 ⑤ 11 ② 12 ③ 13 ④

01 다수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급력이 큰 매체는 특히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생산해야 한다. 따라서 내용의 검증보다는 전달 속도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올바른 손 씻기의 방법과 그 중요성을 알려 주는 안내문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 자료의 예이다. 이와 같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에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03 매체 자료의 생산자는 수용자의 연령과 성, 인원수, 전달하려는 내용에 대한 수용자의 배경지식의 정도, 관심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와 양,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전달하려는 내용의 범위와 양,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생산자의 소통 목적에 따라 다양한 매체 자료가 생산될 수 있다. (가)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고, (나)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심미적 정서 표현이 목적이며, (다)는 맛집에 방문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 목적이다.

05 (가), (나)에 비해 (다)의 수용자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 이유는 (가), (나)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대중가요를 듣는 불특정 다수가 수용자이지만, (다)의 생산자는 '이웃님들', 즉 자신의 블로그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의 수용자 수가 (가), (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내용을 썼다.	☐
(가)~(다)의 수용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06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은 다수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다. (다)의 생산자는 자신의 블로그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수용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는 (가), (나)에 비해 매체 자료에 대한 수용자가 적으므로 영향력이나 파급력 또한 크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텔레비전의 특성상 영상 언어로 전달된다. 음식과 관련된 시각 자료와 출연자들의 음성 언어, 자막으로 처리되는 문자 언어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나)는 대중가요로 음악의 운율에 맞추어 언어를 배열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음성 언어로 전달된다.
- ② (가)는 음식과 관련된 시각 자료와 자막으로 처리되는 문자 언어를 사용하였고, (다)는 인터넷 블로그 게시 글로 시각 자료와 문자 언어가 함께 사용되었다.
- ④ (나)는 대중가요로 음악의 운율에 맞추어 언어를 배열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음성 언어로 전달된다.
- ⑤ (다)의 문자 언어는 생산자가 수용자인 '이웃님들'과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어체의 성격을 띤다.

07 이 기사는 청소년 진로 박람회의 개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
청소년 진로 박람회의 개최에 관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라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8 이 기사는 지면이나 웹상에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진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이 이 기사의 주된 수용자가 될 것이다.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 박람회이기 때문에 직업을 변경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는 이 기사의 수용자로 적절하지 않다.

09 이 글은 신문 기사로 표제 및 육하원칙 구성, 인용 표현 등

기사문 고유의 언어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ㄷ). 또 신문 기사는 매체의 파급력이 크고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수용자가 신문 기사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다(ㄱ).

오답 풀이 ㄴ. 이 기사에는 사진 자료, 음성 언어 없이 문자 언어만 사용되었다.

ㄷ. 누구든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는 매체는 인터넷이다.

10 부모님께 진로 박람회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수용자는 부모님이므로, 지역 사회의 청소년 고민 상담 게시판에 진로 박람회의 개최를 알리는 글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먼 대 먼 상황에서 부모님께 요약한 신문 기사의 내용을 음성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11 이 카드 뉴스는 미세 먼지의 개념 및 위험성과 그 대처 방안을 주제로 전달하고 있다. 최근 미세 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미세 먼지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 주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이 카드 뉴스를 제작한 것이다.

12 이 카드 뉴스는 불특정 다수가 수용자가 될 것이며, 미세 먼지 문제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읽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수의 황사 연구자는 이 카드 뉴스의 수용자로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카드 뉴스는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 ② 이 카드 뉴스는 미세 먼지의 개념 및 위험성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미세 먼지 문제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읽게 될 것이다.
- ④, ⑤ 이 카드 뉴스는 이미지와 짧은 글로 한 장면을 구성하고, 이를 연결하여 내용을 전달한다. 특히 미세 먼지 문제를 잘 보여 주는 이미지와 전달할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다. 카드 뉴스는 여러 개의 이미지와, 이미지별로 삽입된 문구를 통해 이야기 형식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 자료로, 작은 휴대 전화 화면의 단점을 보완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13 #5에서 식약처에서 인증한 분진용 특수 마스크 사진을 제시하여 미세 먼지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ㄴ). #4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을 보여 주는 사진을 제시하고, 미세 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ㄷ). #3에서 미세 먼지와 황사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고, 황사의 개념을 보여 주기 위해 사막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ㄹ).

오답 풀이 ㄱ. #6에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미세 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당부를 제시하고, 미세 먼지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사진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ㄷ. #1에서 카드 뉴스의 주제를 명확히 전달하고, 수용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카드 뉴스의 제목을 '미세 먼지가 대체 먼지!'라고 제시하기는 했지만 카드 뉴스의 마지막에 제목을 반복하지는 않았다.

(4) 매체의 영향과 문화

내용 확인 문제

본문 209쪽

01 ④ 02 ⑤ 03 대중 매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대중문화가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과 그 안에 담긴 사회의 지배적 가치 혹은 이데올로기를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01 인터넷상에 글을 쓸 때에는 공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작품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매체에 비해 인터넷 매체는 의사소통한 내용이 빠르게 확산 및 재생산되며 그 파급력도 매우 높은 편이므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등 더욱 신중한 자세로 글을 써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매체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02 대중문화는 대중의 관심을 끌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드라마나 영화에서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보다는 통속적이고 자극적인 줄거리에 의존한다.

오답 풀이 ①, ③ 대중문화는 대량 전달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대중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준다.

② 대중문화는 성을 상품화하거나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기도 한다.

④ 대중문화는 대중의 관심을 끌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상업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03 우리는 대중문화를 향유할 때, 대중문화가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과 그 안에 담긴 사회의 지배적 가치 혹은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주체적으로 향유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주체적으로 향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10~213쪽

01 ⑤ 02 ④ 03 전학 온 친구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행동은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한 잘못된 행동이다. 04 ④
05 ② 06 ⑤ 07 ④ 08 ② 09 ③ 10 ②

01 인터넷에서의 글은 인쇄물과 달리 원본과 복제본 사이에 물리적 측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고 무한정으로 복제하여 재배포할 수 있다. 따라서 글을 쓸 때는 속도보다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면서 신중한 자세로 글을 써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작품 등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02 인터넷 공간에서도 저작권의 효력은 발생한다. 따라서 내가 작성한 글이나 사진 등이 타인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03 인터넷에 글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게시할 때에는 초상권과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매체에서는 글이나 사진이 빠르게 확산 및 재생산되며 파급력도 큰 편이므로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보기>에서는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서 굴욕적인 사진을 공개하여 괴롭히거나, 단체 대화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하는 행위 등 가상 공간에서의 학교 폭력이 지닌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가상 공간의 익명성이나 간접성에 기대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친구의 단점을 가상 공간이 아니라 대면해서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싫어하는 친구에게 직접 대면해서 지속적으로 단점을 말하는 것 역시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이다.

05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유익한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 대화처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링크의 주소를 전달하면 상대방은 링크를 누르기만 해도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공익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야 할 경우, 파급력이 큰 매체 언어를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대화에서는 소방관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특정 상품을 홍보하여 상업적인 이득을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6 대중문화는 대중의 관심을 끌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상업적인 성격을 띠기도 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대중문화를 수용할 때는 대중문화가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과 그 안에 담긴 사회의 지배적 가치 혹은 이데올로기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주체적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07 (가), (나)는 모두 전달력과 파급력이 큰 대중 매체의 특성을 보여 준다. 또한 매체를 수용하는 대중에게 (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답 풀이 가. 자극적이고 통속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나)만 해당된다.

다. 역사적 사실을 돌아보고,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가)만 해당된다.

08 (가)는 대중 매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예로 대중들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영화 「귀향」은 상업적이고 통속적인 내용도 아니고,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것이 목적도 아니지만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제작비의 50퍼센트를 지원받아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고, 개봉된 이후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홍보 활동으로 관객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④ 영화 「귀향」이 대중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이므로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영화 「귀향」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시나리오를 완성하였고 대중들의 자발적인 지원과 홍보로 흥행에 성공하였다. 역사적 사실을 흥미 위주의 내용으로 바꾸어 흥행에 성공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9 (나)는 대중 매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예로 대중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대중문화가 자극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탓에 사람들에게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대중 매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예에 해당한다.

② (나)의 내용은 자극적이고 통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④ 시청자들이 주인공의 폭력이 정당하다고 느끼게 되며, 동시에 외모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 줄 수 있다. 따라서 대중 매체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깨닫게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 남녀 주인공이 고난과 갈등을 겪긴 하지만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심어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0 <보기>는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한다는 독특한 발상으로 구성된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다. 대중문화를 공유할 때는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예능 프로그램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이 프로그램은 재미와 유익함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했기 때문에,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고 시사 프로그램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문 214~219쪽

01 ③ **02** 책, 책은 어떤 소재나 주제에 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03** ② **04** ④ **05** 매체(매체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06** ④ **07** ② **08** (가)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고, (나)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심미적 정서 표현이 목적이며, (다)는 맛집에 방문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 목적이다. **09** ⑤ **10** ③ **11** ③ **12** ⑤ **13** ⑤ **14** ③ **15** ③ **16** 대중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대중문화는 전달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수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기>에 드러난 대중문화의 문제점은 사람들에게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01 텔레비전은 다수의 대중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다. 하지만 책은 신문이나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에 비해 정보 제공의 속도가 떨어진다.

02 <보기>에서 연구자는 자신이 발견한 이론을 심도 있게 설명하고 싶어 한다. 책은 어떤 소재나 주제에 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보기>와 같은 상황에 활용하기에 적절한 매체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의 상황에서 '책'을 선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썼다.	☐
책이 어떤 소재나 주제에 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03 누구나 정보의 제공자가 되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매체에 해당한다. 인터넷 매체는 누구든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개방성이 특징이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음성 언어, (나)는 문자 언어, 그림(지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정보를 구성하고 있다.

③ (다)에는 영상이 사용되어 정보를 실재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

④ (다)와 같은 인터넷은 하이퍼링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이동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⑤ (나), (다)는 지도(그림)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04 (가)는 '아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고, (나)는 (가)를 각색한 영화이다. (가)는 인쇄 매체인 소설이므로 '서하'의 편지를 받은 '아름'의 생각이나 심리가 '아름'의 서술을 통해 직접 드러나지만, (나)는 영상 매체인 영화이므로 '서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반복되는 것, '서하'로 상상되는 여자 아이의 그림자가 보이는 장면 등을 통해 '아름'의 내면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05 매체 자료를 심미적 가치를 담은 창의적 표현물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매체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체 자료의 창의적 표현 방식을 탐구하거나, 그 안에 담긴 심미적 가치를 향유하는 일은 매체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매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6 이 영상물은 참정권 행사를 일찍 할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견해, 투표 결과가 미래 세대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6세부터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 경제협력 개발 기구(OECD) 34개 국가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 선거권의 연령 제한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는 이 영상물이 제시하는 관점에 동의하는 의견이고, 나머지는 모두 선거권의 연령 제한을 낮추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에 해당한다.

07 '반짝반짝'은 이 웹툰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과목에 도움이 되었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를 통해 '반짝반짝'은 웹툰의 실용성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정보 전달은 수용자에게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심미적 정서 표현은 수용자에게 담화의 내용과 형식에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사회적 상호 작용은 인간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으며, (다)는 맛집을 방문한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는 정보 전달, (나)는 심미적 정서 표현, (다)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생산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라는 내용을 썼다.	☐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머니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심미적 정서 표현이 목적이라는 내용을 썼다.	☐
(다)는 맛집에 방문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 목적이라는 내용을 썼다.	☐

09 (다)는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로 사진 자료(시각 자료), 문자 언어가 사용되었다. 특히 이 블로그에 사용된 문자 언어는 수용자와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에 대한 인식 때문에 구어체의 성격을 띤다.

10 (다)의 생산자는 '이웃님들', 즉 자신의 블로그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자로 보고 있다. 즉 (다)의 수용자는 자신의 블로그와 서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수용자로 하는 (가), (나)와 비교했을 때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11 #3에서 미세 먼지는 자연 현상이 아니며 인간이 만들어 낸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나온 오염 물질이라고 설명하였다. #3에서는 자연 현상인 황사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막의 사진을 통해 황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미세 먼지와 황사의 개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12 이 카드 뉴스의 생산자는 미세 먼지의 정확한 개념과 인체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미세 먼지에 대처하는 방안을 대중에게 알려 주고자 한다. #3에서는 미세 먼지와 황사의 개념을 대비하여 수용자에게 미세 먼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카드 뉴스의 수용자는 미세 먼지에 영향을 받는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있다. #6에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미세 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당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수용자를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카드 뉴스는 미세 먼지 문제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읽을 것이다.

③ 카드 뉴스는 이미지와 짧은 글로 한 장면을 구성하고, 이를 연결하여 내용을 전달한다. 이 카드 뉴스는 미세 먼지 문제를 잘 보여 주는 이미지와 전달할 내용을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다.

④ 미세 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보여 주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미세 먼지의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을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3 공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야 할 경우, 파급력이 큰 매체 언어를 활용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기>에서는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누리 소통망(SNS)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매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유익한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보기>에서는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통속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에는 대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보기>는 공익을 위해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는다.

14 다른 사람의 사진을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자신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 (가)에서 전학 온 친구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행동은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례이고, (나)에서 가상 공간에서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행동은 모두 매체 언어를 잘못 사용한 사례이다.

15 매체 언어를 통해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는 매체 언어를 통하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상대에 대한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이나 사진에는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공유 및 배포하지 말아야 한다.

② 매체 언어를 사용할 때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욕설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아서서는 안 된다.

④ 인터넷에 글이나 사진 등을 공유할 때에는 초상권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⑤ 누리 소통망(SNS)에서 비방이나 욕설을 들었을 때, 이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지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지운 내용의 복원이 힘들어 피해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가상 공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함부로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

16 <보기>는 대중 매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예에 해당한다. <보기>를 통해 대중 매체는 전달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매체를 수용하는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중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대중문화에 자극적인 내용이 많은 탓에 사람들에게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에 드러난 대중문화의 특성으로 전달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보기>에 드러난 대중문화의 문제점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5. 국어 자료와 매체 언어 생활

(1) 시대에 따른 국어 자료의 이해

내용 확인 문제

본문 225~235쪽

- 01 ③ 02 ④ 03 근대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가는 과정에서 모음 ‘·’가 ‘ㅜ’로 바뀌었다. 04 ② 05 ③ 06 ② 07 ①
08 ② 09 ⑤ 10 ④ 11 중세 국어의 체언 중에는 ‘나ㅎ’처럼 끝에 ‘ㅎ’을 가진 단어들이 있었다. ‘나홀’은 명사 ‘나ㅎ’에 조사 ‘을’이 결합한 것이다. 12 ④ 13 ⑤ 14 ② 15 ②
와 ⑥의 문장 성분은 주어로, ③과 ⑥에는 모두 주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④를 통해 근대 국어 시기에 주격 조사 ‘가’의 쓰임이 확대되었음을, ⑤를 통해 근대 국어 시기에 아직 주격 조사 ‘가’가 전반적으로 쓰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16 ① 17 ③ 18 ⑤ 19 ②

01 세 번째 문단으로 보아 차자 표기는 한자의 뜻이나 음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첫 번째 문단을 통해 언어는 생명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변한다는 알 수 있다.

② 네 번째 문단을 통해 고대 국어 시기에 인명, 지명 등의 고유 명사를 한자의 뜻이나 음을 이용하여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세 번째 문단을 통해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는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적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첫 번째 문단을 통해 고대 국어에서 현대 국어에 이르기까지 언어 변화의 폭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 차자 표기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 우리말을 문자화한 표기법에는 이두, 구결, 향찰이 있다.

이두(吏讀)	국어의 문장 배열 순서에 따라 단어를 재배열하고 토를 달.
구결(口訣)	한문 구결에 우리말 문법 형태소를 덧붙여 의미 파악을 함.
향찰(鄉札)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 표기함. 특히 향가 표기에 사용된 것을 일컬음.

02 국어의 시대 구분이 왕조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왕조의 변화에 따라서 국어의 시대 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6세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로 나누어지는데 모두 조선 왕조(1392~1910년에 한반도를 지배하던 왕조)에 해당한다.

03 어휘는 각 시대의 음운이 변화함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중세 국어의 단어 ‘하수’는 근대 국어에는 ‘하수’로, 현대 국어에는 ‘하수’로 쓰이고 있는데, ‘하수’에서 ‘하수’로 변화한 것을 통해 모음 ‘·’가 ‘ㅜ’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음운의 변화와 관련하여 단어 ‘하수’가 ‘하수’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

04 ‘영동(永洞)’과 ‘길동(吉洞)’이 대응되는 것은 한자 ‘永’의 뜻과 고유어 ‘길-’의 음이 대응되기 때문이다. 즉 고유어 ‘길-’의 뜻을 가진 한자가 ‘永’이기 때문이다.

05 고대 국어 시기에는 향찰이라는 차자 표기를 이용하여 향가를 기록하였다. 향찰은 한자의 뜻이나 음을 이용하여 향가를 기록하는 차자 표기법이다.

06 향찰은 노랫말의 음계를 기록하기 위한 표기 방법이 아니라,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 노랫말을 기록하기 위한 표기 방법이다.

07 첫 번째 행 ‘東京明期月良’이 ‘동경 밝은 달에’로 해석되므로, ‘明’은 ‘밝은’에, ‘月’은 ‘달’에 해당한다. 즉 한자의 뜻을 빌린 표기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행 ‘夜入伊遊行如可’가 ‘밤 들이 노니다가’로 해석되는데, ‘夜’는 ‘밤’에, ‘遊’는 ‘놀다’에 해당하므로 한자의 뜻을 빌린 표기로 볼 수 있고, ‘可’는 조사 ‘가’에 해당하므로 한자의 음을 빌린 표기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 「처용가」 1~4구에 사용된 한자의 뜻과 음

東	京	明	期	月	良	
동녘 동	서울 경	밝을 명	기약할 기	달 월	좋을 량	
夜	入	伊	遊	行	如	可
밤 야	들 입	저 이	놀 유	니(=갈) 행	대(=갈을) 여	옳을 가
入	良	沙	寢	矣	見	昆
들 입	좋을 량	모래 사	잠잘 침	어조사 의	볼 건	형 곤
脚	烏	伊	四	是	良	羅
다리 각	까마귀 오	저 이	넷 사	옳을 시	좋을 량	새그물 라

08 중세 국어에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가 존재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졌다. 중세 국어와 달리 현대 국어에서는 상대 높임이 ‘-습니다’와 같은 종결 표현으로 실현되며, 따로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모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존재한다.

③ 중세 국어에서는 어간의 끝소리에 따라 ‘-습-, -좁-, -습-’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법이 ‘모시다’, ‘드리다’, ‘여쭙다’, ‘뵈다’와 같은 특수 어휘와 조사 ‘께’로 실현된다.

④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현대 국어에서 ‘-옵-, ‘-사옵-’처럼 상대방에게 공손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⑤ 중세 국어 시기에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은 모두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 표현하였다.

09 중세 국어에는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냈다. 상성은 방점을 두 개 찍어 표시하며, 처음에는 낮았다가 나중에 높아지는 소리로 읽어야 한다.

10 '주어지이다'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를 사용하여 청자인 '하늘'을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되다'는 중세 국어에서 '병이' 심하다, 깊다, 중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현대 국어에서 '아주 몹시'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 '되게'로 사용되고 있다.

②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술-'을 사용하여 부사어인 '하늘께(하·늘·께)'를 높이고 있다.

③ 중세 국어에는 글자를 표기할 때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가 일반적이었다. ㉔은 어간 '덜-'과 어미 '-어'를 '덜어'로 끊어 적기를 하지 않고 '더러'로 이어 적기를 하였다.

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어인 '하늘 황제(하·늘·皇帝)'를 높이고 있다. '주다'의 목적어는 '열두 살'이고, 그 행위의 주체는 '하늘 황제'이다.

참고 자료 ++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이형태

'비수보덕'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술-'이 결합되었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술-, -졸-, -술-'은 모음 어미나 매개 모음을 가지는 어미 앞에서는 말음 '비' '방'으로 되어 각각 '-술-, -졸-, -술-'으로 교체된다.

11 '나홀'의 형태소는 명사 '나'와 조사 '홀'로 분석할 수 있다. 중세 국어의 체언 중에는 '나'처럼 끝에 '홀'을 가진 단어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암탉'이나 '살코기'와 같은 단어에 '홀'을 가진 단어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홀'에 나타나는 중세 국어의 특성을 썼다.	☐
'나홀'의 형태소를 바르게 분석하였다.	☐

12 ㉔은 '받-+-오-+-리-+-라'로 분석되므로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주어가 1인칭 화자일 때 '바도리라'와 같이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오-'를 사용하였다.

오답 풀이 ① '네'는 '너+이'로 분석되어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현대 국어의 표현 가운데 '정신이 사납다.', '팔자가 사납다.', '꿈자리가 사납다.'에서 '사납다'는 중세 국어의 '사오납다'의 의미와 유사하게 '상황이나 사정 따위가 순탄하지 못하고 나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로 보아, 중세 국어의 '사오납다'가 현대 국어 '사납다'의 의미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③ '하느나(하느냐?)'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나다'가 2인칭을 주어로 하는 의문형 종결 어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므슴홀다(무엇하려느냐?)'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르다'가 미래 시제를 나타내며, 의문형 종결 어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㉔의 '-술-'이 높이는 대상은 '스승님'이다. 즉, ㉔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술-'을 사용하여 문장의 목적어인 '스승님'을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㉔에는 상대 높임이 사용되었다.

② ㉔에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를 통해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③ 현대 국어에서 상대방에게 공손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옵-'이나 '-사옵-'과 관련이 있는 것은 ㉔에 사용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술-'이다.

④ ㉔에는 객체 높임이 사용되었다.

14 『두시언해』 초간본은 조선 시대 성종 12년(1481년)에 간행한 책으로 중세 국어 문헌이고, 중간본은 조선 시대 인조 10년(1632년)에 간행한 책으로 근대 국어 문헌이다. [A]에서 『두시언해』 초간본의 '그리다'가 『두시언해』 중간본에서는 '그리다'로 표기가 바뀐 것을 통해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㉔). 또한 중세 국어에서는 '·썬 :되히'와 같이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하였으나, 근대 국어에서는 '썬 되히'와 같이 방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㉔). 16세기 후반부터 동요하던 성조가 사라지면서 방점 표기도 사라졌다.

15 ㉔과 ㉔의 문장 성분은 모두 주어로, ㉔의 '비가'는 체언 '비'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한 것이고, ㉔의 '島主'는 체언 '島主'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㉔을 통해 근대 국어 시기에 주격 조사 '가'의 쓰임이 점차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㉔을 통해 근대 국어 시기에 아직 주격 조사 '가'가 전반적으로 쓰이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㉔과 ㉔의 문장 성분이 '주어'임을 밝혀 썼다.	☐
㉔과 ㉔에 사용된 주격 조사를 각각 밝혀 썼다.	☐
㉔과 ㉔을 바탕으로 근대 국어 시기의 주격 조사의 쓰임을 밝혀 썼다.	☐

16 '목디'가 현대 국어의 '목지'와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㉔은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㉔을 통해 근대 국어 시기에 아직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표기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 '알는다'의 현대어 풀이가 '알는다'인 것으로 보아 근대 국어에서는 '-나다'가 평서형 종결 어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나다'가 의문형 어미로 사용되었으나 근대 국어에서는 '-나다'가 지금과 같이 평서형 어미로 사용되었다.

18 ㉔의 '늬노(누구나)'와 ㉔의 '하느냐(하느냐)'로 보아 현대 국어의 의문형 어미는 주로 '-냐'로 통일되었지만, 근대 국어의 의문형 어미는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 중세 국어에는 구개음화 현상이 없었으나 근대 국어에는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오디(오-+-디)'가 '오지'로 표기된 것을 통해 ㉔에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36~239쪽

- 01 ⑤ 02 ⑤ 03 중세 국어에서는 동사의 현재형을 ‘-ㄴ다’로 표현하고 모음 ‘·’를 사용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동사의 현재형을 ‘-ㄴ다’로 표현하고 모음 ‘·’가 없다. 04 ③ 05 ① 06 ③
07 ① 08 ④ 09 받-+-오-+-리-+-라, 중세 국어에서는 주어가 1인칭 화자일 경우에는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오-’를 사용하였다.
10 ② 11 ④ 12 ③ 13 ① 14 ⑤

01 차자 표기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방법이다. (가)는 우리말 지명을 표기하기 위한 고유 명사 표기법이고, (나)는 향가를 표기하기 위한 향찰 표기법이다. (가)의 고유 명사 표기법과 (나)의 향찰 표기법 모두 한자의 뜻과 음을 사용한다. (가)의 ‘길동군(吉同郡)’의 ‘吉’은 고유어 ‘길-’을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표기한 것이다.

참고 자료 ++ 향찰 표기의 의미

향찰 표기는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 국어의 문장 전체를 온전하게 기록하는 표기 체계로, 특히 향가의 표기에 쓴 것을 이른다. 향찰 표기는 우리말 어순을 그대로 살리면서 조사와 어미 등의 문법적 요소까지 표기한 종합적인 표기 체계로, 고유 명사 표기법(한자의 음만 빌리는 경우, 한자의 뜻만 빌리는 경우)보다 발전한 표기 체계이다. 향찰 표기는 한자를 차용하여 자국 언어를 표기하려는 신라인들의 노력이 집대성된 표기라고 볼 수 있다.

02 향찰은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등 실질적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는 주로 한자의 뜻(훈차)을 이용하고, 조사나 어미 등 형식 형태소는 한자의 음(음차)을 이용하여 적었다. ‘伊’와 ‘可’는 각각 형식 형태소 ‘이’와 ‘가’를 표현하기 위해 한자의 음을 빌려 쓴 것이다.

표기	明	月	夜	入	伊	可
뜻	밝을	달	밤	들	저	웁을
음	명	월	야	입	이	가

- 오답 풀이 ①, ② ‘明’, ‘月’, ‘夜’, ‘入’은 한자의 뜻으로 읽었고, ‘伊’, ‘可’는 한자의 음으로 읽었다.
③ ‘明’은 용언의 어간이므로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며, 한자의 뜻을 이용하여 표기하였다.
④ ‘月’, ‘夜’는 체언, ‘入’은 용언의 어간이므로 모두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며, 한자의 뜻을 이용하여 표기하였다.

03 중세 국어에서는 ‘·’와 같이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음운이 사용되었으며, 현대 국어와 달리 ‘-ㄴ다’를 통해 동사의 현재형(현재 시제)을 나타냈다.

평가 기준	확인 ☑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동사의 현재형을 나타내는 방법을 썼다.	☐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음운 ‘·’가 사용되었음을 썼다.	☐

04 ‘都(도읍 도)’는 용언의 어미가 아니라 조사를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음을 이용한 것이다. ‘都’는 조사 ‘도’에 해당하며,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태소이다.

- 오답 풀이 ① ‘隱(숨길 은)’은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태소인 조사 ‘는’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음을 이용한 것이다.
② ‘辭(말 사)’는 ‘말’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를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뜻을 이용한 것이다.
④ ‘毛(털 모)’는 현대어 풀이로 미루어 볼 때 한자의 음을 이용해 ‘못’과 유사한 발음을 표기한 것이다.
⑤ 1행과 2행의 ‘去(갈 거)’는 ‘가다’라는 실질적 의미를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뜻을 이용한 것이다.

05 ‘비수보다’에서는 ‘왕천’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을 사용하여 부사어인 ‘하늘’을 높이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주어지이다’에서는 ‘왕천’이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를 사용하여 청자인 ‘하늘’을 높이고 있다.
③ ‘주시누다’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하늘 황제(하·늘 皇帝)’를 높이고 있다.
④ ‘스스이니이다’에서는 ‘아들’이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를 사용하여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⑤ ‘보습고저’에서는 ‘아버지’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을 사용하여 목적어인 ‘스승님’을 높이고 있다.

06 현대 국어에서는 ‘-ㄴ다’가 평서형 종결 어미로 사용되었으나 중세 국어 시기에는 ‘-ㄴ다’가 2인칭을 주어로 하는 의문형 종결 어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가)에서는 이러한 용례를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나·홀’과 같이 체언 끝에 ‘ㅎ’을 가진 단어가 있었다.
② ‘王蕭·이’, ‘神人이’를 통해 주격 조사 ‘이’가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비·수보·뒤’, ‘주어·지이·다’, ‘주·시누·다’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⑤ ‘病·이’, ‘되어·늘’과 같이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하였다.

07 중세 국어인 ㉠에서는 ‘너’의 주격형을 대명사 ‘너’에 주격 조사 ‘이’를 결합하여 ‘네’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에 주격 조사 ‘이’가 생략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현대 국어인 ㉡에서는 ‘너’의 주격형이 불규칙하게 ‘네가’가 된다. 즉 단모음화된 ‘네’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하여 지금과 같은 ‘네가’의 형태가 나타난다.

08 <보기>에서 어미 ‘-ㄴ다’를 사용하면 미래 시제의 의문문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므슴홀다(무엇하려느냐?)’에서 ‘-ㄴ다’는 의문형 종결 어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② ‘후논다’에서 ‘-ㄴ다’가 2인칭을 주어로 하는 의문형 종결 어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후논다(하느냐?)’와 같이 ‘-ㄴ다’에 ‘-누-’가 결합하면 현재 시제의 의문문이 된다.
③ 중세 국어에서 어미 ‘-(으)ㄴ-’은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⑤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느-’는 현대 국어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 ‘-는-/ㄴ-’과 대응된다. 또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으)ㄹ-’은 현대 국어에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과 대응된다.

참고 자료 ++

중세 국어의 어말 어미

중세 국어의 어말 어미에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가 있다.

- (가) 후다, 후이다 [평서형]
- (나) 후녀, 후니잇가 : 후다, 후다 : 후가 : 후가 [의문형]
- (다) 후라, 후쇼셔 [명령형]
- (라) 후저, 후사이다 [청유형]
- (마) 후도다, 후도소이다 [감탄형]

이들은 주로 중세 국어의 종결 어미를 ‘후라체’, ‘후쇼셔체’의 두 상대 높임법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평서형은 그 앞에 시간 표현의 선어말 어미를 앞세울 수 있다. 중세 국어에는 ‘-다’ 이외에 ‘-니라’로 끝나는 특수한 평서형이 있었다. 의문형에서 ‘-녀’는 1, 3인칭 의문형 어미이고, ‘-나다, -ㅅ다’는 2인칭 의문형 어미이다. ‘-나가, -ㅅ가’는 간접 의문형 어미이다. 1, 3인칭 의문형 어미와 간접 의문형 어미는 물음말과 함께 사용될 때에 ‘-뇨, -니잇고, -나고, -ㅅ고’로 바뀐다.

09 ‘바도리라’는 어근 ‘받-’과 선어말 어미 ‘-오-’, 선어말 어미 ‘-리-’, 종결 어미 ‘-라(다)’가 결합한 것이다. ‘받-’과 ‘-오-’가 결합하면서 ‘받-’의 말음 ‘ㄷ’이 ‘-오-’에 이어 적기가 되어 ‘바도리라’로 표기된 것이다. 이처럼 중세 국어에는 주어가 1인칭 화자일 경우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오-’를 사용하였는데 ㉠에도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
‘바도리라’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바르게 썼다.	☐
중세 국어에 선어말 어미 ‘-오-’가 존재하였음을 썼다.	☐

10 ‘술·보·디(아뢰기를)’는 동작의 대상인 ‘왕’을 높이고 있으나, 여기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11 ‘배’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바’ 뒤에 보격 조사 ‘이’가 아니라 주격 조사 ‘이’가 붙은 것이다. ㉡은 명사 ‘바’와 주격 조사 ‘이’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으며, 중세 국어 자료인 『세종어제훈민정음』에는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말ㅅㅅ(말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 왼쪽에 0~2개의 점으로 성조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中國國에 달아(중국과 달라)’를 통해 중세 국어에는 비교,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세 국어의 ‘에’는 현대 국어에서 격 조사 ‘와/과’로 바뀌었다.

③ ‘니르고저(이르고자, 말하고자)’의 첫머리에 ‘ㄴ’이 오는 것으로 보아 중세 국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니르고저’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이르고자(말하고자)’로 표기된다.

⑤ ‘쁘들(똥을)’에는 어두 자음군 ‘ㅂ’이 사용되었다. 중세 국어에는 음절의 첫소리에 ‘ㅂ, ㅃ, ㅍ’과 같이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오는 어두 자음군이 있었는데, 이들은 현대 국어로 오면서 대개 된소리(‘ㅃ, ㅍ, ㅍ’)로 변하였다.

참고 자료 ++

주격 조사의 이형태

중세 국어에는 주격 조사로 ‘이, ㅣ, ㅅ’가 사용되었다. 비상교육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는 주격 조사의 형태를 ‘이, ㅣ, ㅅ’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들 간에는 발음의 차이가 없어 일반적인 이형태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사룸이’의 주격 조사와 ‘네’의 주격 조사, ‘아비+ㅅ’의 주격 조사가 이형태 관계에 있으며 그 대표형을 ‘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 의해 ‘배’와 ‘네’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것이지만 주격 조사를 ‘ㅣ’가 아닌 ‘이’로 기술하였다.

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예 • 사룸이 • 어린 百姓(백성)이
ㅣ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예 • 네(너+ㅣ) • 부테(부터+ㅣ)
ㅅ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예 • 아비(아비+ㅅ) • 불휘(불휘+ㅅ)

현대 국어에 쓰이는 주격 조사 ‘가’는 근대 국어 시기에 그 쓰임이 확대되었다.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주격 조사 ‘이’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예 하늘이 파랗다.)에서 사용되고, 주격 조사 ‘가’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예 바다가 파랗다.)에서 사용된다.

12 ‘島主’를 통해 근대 국어 시기에 주격 조사 ‘가’의 쓰임이 확대되었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쓰이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적의’는 현대어 풀이에서 ‘때에’라고 하였으므로, ‘의’는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로 사용된 것이다.

②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목디’를 통해서 구개음화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고 불규칙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분부후엿소니’에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⑤ ‘부라-이다’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지 않았다.

13 ‘ㄷ’이 모음 ‘ㅣ’ 앞에서 ‘ㅈ’으로 바뀌지 않고 ‘ㄷ’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 ‘ㄱ리디’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ㄱ리지’에서는 ‘ㄷ’이 모음 ‘ㅣ’ 앞에서 ‘ㅈ’으로 바뀐 형태가 굳어져 ‘ㄱ리지(구개음화가 일어난 형태)’로 쓰인다. [A]의 ‘ㄱ리디’와 [B]의 ‘ㄱ리지’를 통해 중세 국어 시기에는 구개음화 현상이 없었으나 근대 국어 시기에는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 ㉢에서 ‘-냐’는 평서형 어미가 아니라 의문형 어미이다. 현대 국어의 의문형 어미는 주로 ‘-냐’로 통일되지만, 근대 국어에서는 ‘뇨냐’, ‘호냐’와 같이 의문형 어미가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다.

(2) 사회와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이해와 생산

내용 확인 문제



본문 243~247쪽

01 ㉔ 02 ㉔: 지역 방언, ㉔: 사회 방언 03 ㉔ 04 ㉔
05 ㉔ 06 ㉔ 07 ㉔ 08 ㉔ 09 [A]의 갈래는 공
고문이고, 목적은 신문 동아리의 신입 회원 모집에 관한 정보를 여러 사람에
게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알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
기 위해 [B]를 [A]로 고친 것이다.

01 두 번째 문단에서 동일한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 공동체에서 방언을 사용하면 인간관계에 친밀감을 더해 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두 번째 문단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 국가가 정한 표준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② 두 번째 문단에서 지역 방언은 우리말의 역사와 변천을 보여 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방언이 사용되는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어 그 가치가 크므로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네 번째 문단에서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서 새로운 언어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때로는 이러한 언어 사용의 차이가 의사소통에 갈등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④ 첫 번째 문단에서 언어 사용자의 지역, 세대, 성별, 계층, 문화 등에 따라 하나의 언어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지역에 따라 언어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역 방언이고, 나이나 직업 등에 따라 언어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회 방언이다.

02 두 번째 문단에서는 지역 방언의 개념과 특성을, 세 번째~네 번째 문단에서는 사회 방언의 개념과 예를 설명하고 있다. 지역 방언은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이다. 그리고 사회 방언은 한 언어에서, 계층적으로 분화되어 나이(연령), 성별, 직업 등에 따라 특징적으로 쓰는 말이다.

03 지역적 원인에 따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보기>에서 ‘어디 갑니까?’는 표준어이고, ‘어디 가니까?’(경상도 방언), ‘어디 감수파?’(제주도 방언), ‘어드메 가십니까?’(평안도 방언)는 지역 방언에 해당한다. 이처럼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지역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04 세대에 따라 언어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기성세대는 새로운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젊은 세대는 새로운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언어의 새로운 모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므로 ㉔은 적절하지 않다.

05 남녀 간에 갈등을 유발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 차이어가 아니라 성차별적 언어이다. 성 차이어는 성별에 따라 언어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데 반해 성차별적 언어는 성별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러한 성차별적 언어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갈등을 유발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06 영어로는 손윗사람을 지칭할 때에도 ‘she’와 같은 대명사를 쓸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손윗사람을 ‘그녀’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에 ㉔과 같이 ‘언니’를 ‘그녀’라고 번역하면 어색한 표현이 된다.

07 인용 표현이나 피동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공고문이 아니라 기사문의 특성이다. 기사문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들은 대로 충실히 기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글이다. 기사문은 좀 더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인용 표현이나 피동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08 <보기>는 광고문의 갈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광고문은 소비자를 설득하여 상품 구매와 같은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문자나 이미지(시각 자료), 음성, 음향, 동영상 등을 활용한다.

09 [A]는 특정한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인 공고문이다. [A]는 신문 동아리의 신입 회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제목과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간결하게 제시하고, 명사로 종결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알리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B]를 [A]로 수정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A]의 갈래와 목적을 정확히 썼다.	☐
[B]를 [A]로 고치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48~250쪽

01 ㉔ 02 동일한 사람도 연령에 따라 점차 사용하는 언어의 모습이 바뀔 수 있는데, <보기>에서 화재(성수)의 언어 사용 양상이 달라진 이유는 나이이다. 03 ㉔ 04 ㉔ 05 ㉔에서 ‘의사’는 ‘동료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문어를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㉔에서 ‘의사’는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다. 06 ㉔ 07 ㉔ 08 ㉔
09 ㉔ 10 ㉔

01 (라)에서 성별에 따라 언어 사용의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표준어형을 더 선호하며, 남성은 단호한 표현을 선호하고 여성은 완곡한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는 표현이나 말하는 방식 등에서 일부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가)로 보아 지역적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말은 지역 방언이다.

③ (나)로 보아 나이, 성별,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 말은 사회 방언이다.

- ④ (바)에서 국어로 번역된 외국 자료에는 외국의 문화적 특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 ⑤ (가)에서 언어적·문화적 풍요를 위해 지역 방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02 <보기>에서 '성수'의 언어 사용 양상이 달라진 이유는 나이와 관련이 있는데, 어릴 때에는 큰형에게 반말을 하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존댓말을 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사람도 연령에 따라 점차 사용하는 언어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의 화자의 언어 사용 양상이 달라진 이유가 '나이'임을 썼다.	☐
동일한 사람도 연령(나이)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03 '병어리 냉가슴 앓듯'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에 해당하므로 성차별적 언어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병어리 냉가슴 앓듯'과 같은 비유적 표현은 이미 굳어진 것이어서 별 생각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장애를 지닌 사람에게는 차별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기생오라비'는 행동이나 외모 등에서 남성을 차별하는 표현으로 성차별적 언어에 해당한다. '여교사', '여의사'는 남성형을 기본으로 하여 여성형을 파생시킨 표현으로 성차별적 언어에 해당한다.
- ② '부엌데기'는 부엌일을 맡아서 하는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므로 성차별적 언어에 해당한다.
- ③ '시댁'은 시집을 높여 이르는 말이고, '친정'은 결혼한 여자의 부모 형제 등이 살고 있는 집을 이르는 말이므로 성차별적 언어에 해당한다.
- ④ "그래, 이제 멋도 좀 부리고 해. 여자처럼."은 여성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어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 관념을 심어 줄 수 있으므로 성차별적 언어에 해당한다.

04 (나)에서 '남자'는 토론이라는 공적인 상황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공적인 상황에 맞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부부가 사적으로 대화하는 비공식적인 대화 상황이다.
- ② ㉠을 표준어로 바꾸어 말하면, '남자'가 평소 지역 방언 사용자임을 알고 있던 '여자' 입장에서는 어색함을 느낄 것이다.
- ③ (나)는 텔레비전 방송 토론이라는 공적인 대화 상황이다.
- ⑤ (가)와 (나)에서 '남자'는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지역 방언을, 공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사람이라도 대화 상황에 따라 더 적절한 언어(표준어나 지역 방언)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5 ㉡에서 '의사'는 '동료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문어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군에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직군 종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에서 '의사'는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보호자'가 의사가 사용하는 전문어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에서 '의사'가 '동료 의사'에게 전문어를 사용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
㉢에서 '의사'가 '보호자'에게 전문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

06 ㉠과 ㉡는 영어를 국어로 번역한 문장이다. ㉠보다 ㉡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국어에서는 행복을 느끼는 주체인 '데이비드'가 문장의 주어로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참고 자료 ++

무생물 주어 관련 번역투

영어와 한글의 두드러지는 차이점 중 하나는 국어와 달리 영어에서 무생물 주어 구문이 자연스럽게도 활발하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한 번역 시는 무생물 주어인 명사에서 동사를 유추해 문맥에 합당한 부사구(절)를 만들고 사람인 목적어를 주어로 옮겨야 한다. 영어와 달리 국어에서는 무생물 주어의 사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07 <보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동화적인 내용을 담은 영화의 제목에 '국가, 나라'보다 '왕국'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개봉될 때 영화의 제목을 「겨울 왕국」으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문화가 언어 사용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08 (가)와 같은 기사문은 사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피동 표현이나 인용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가)는 '배치되다'와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전담 교사를 배치한 주체보다 전담 교사가 배치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고 밝혔다', '-라고 말했다.'와 같은 인용 표현을 사용해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가)의 갈래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사문이고, (나)의 갈래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문이다.

④ (가)와 같은 기사문은 '표제-부제-전문-본문-해설'과 같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표제는 독자가 전체 기사 내용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요약한 문구이고, 부제는 표제를 보완한 간결한 문구이다. 전문은 육하원칙에 따라 표제의 압축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 본문은 기사 내용을 자세히 서술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설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참고 사항이나 설명이다. (나)와 같은 광고문도 표제와 본문으로 이루어진다.

⑤ 문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 제시하고,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이다.

09 제시된 국어 자료는 안내문이다. 이 안내문은 안내할 내용을 대략적으로 먼저 서술한 후, 세부 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부 사항은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명사로 종결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0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간결하게 제시해야 하는 것은 공고문이 아니라 기사문이다. 공고문은 특정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는 글이다. 공고문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므로 명사(형)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3) 국어생활과 매체 언어생활의 성찰

내용 확인 문제

본문 253쪽

01 ④ 02 ④ 03 ③ 04 '짱나'는 비속어이고, '귀머거리'는 차별 표현에 해당하므로 모두 언어 윤리에서 벗어나는 표현이다.

01 통신 언어에서 의도적으로 언어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회 구성원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휴대 전화와 같은 매체에서도 언어 규범을 잘 지켜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매체로 언어생활을 할 때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 사용의 목적과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② 언어 규범은 우리가 다른 공동체 구성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정한 사회적인 약속이다. 국어의 어문 규범에는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이 해당한다.
 ③ 사회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규범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⑤ 언어 윤리와 관련된 문제에는 무례한 표현이나 욕설, 차별 표현 등이 있다. 성별, 국적, 지역, 외모 등의 차별적 표현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심화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02 매체 언어생활을 할 때에는 사용 맥락과 목적에 적합한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우'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학교 누리집 공지 게시판에 담임 선생님의 생일 축하와 같은 개인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다. 학교 누리집 공지 게시판은 공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우'는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3 '약을 먹은 효과가 금세 나타났다.'는 언어 규범을 준수한 문장이다. '금세'는 '지금 바로'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이다. '금시'에 '가' 붙어든 말로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된다.

오답 풀이 ① '얼른 감기 낫아.'의 '낫아'는 언어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표현이다. '낫아(낫다)'는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이 문장에는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 대로 되다'라는 뜻을 지닌 '낫다'를 사용해야 하므로 '얼른 감기 나아.'가 적절한 표현이다.
 ② '왜 안 되?'의 '되'는 언어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표현이다. '되-'는 '되다'의 어간이므로, '되어'의 줄임 말인 '돼'가 적절한 표현이다.
 ④ '재원(才媛)'은 언어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표현이다. '재주(才)'와 '미인 원(媛)'이 합해진 '재원'은 재주가 뛰어난 젊은 여성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남자를 가르켜 '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⑤ '여닫는 물건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걸거나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잠그다'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결합할 경우, '잠꿔어'가 아니라 '잠갔어'가 적절한 표현이다.

04 언어 윤리와 관련한 문제는 무례한 표현, 욕설, 차별 표현이 있다. <보기>에는 격이 낮거나 속된 말에 해당하는 비속어

'짱나'가 사용되었으며, 신체(능력)를 차별하는 표현인 '귀머거리(청각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언어 윤리에 맞지 않는 표현이며,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의사소통의 기본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에서 벗어나는 표현 두 가지를 모두 찾아 썼다.	☐
두 가지 표현이 언어 윤리에 벗어나는 이유를 썼다.	☐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54~255쪽

01 ③ 02 ① 03 '생선', '아싸', '금식체', '코노'와 같이 언어 규범과 언어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04 ② 05 ③ 06 ① 07 ②

01 무례한 표현, 욕설, 차별 표현 등과 같이 언어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

02 '민지'는 물리적으로 먼 나라에 사는 친척 동생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자 우편을 활용하였으므로 목적과 맥락에 맞게 매체를 활용하였다(ㄱ). '학교 운영 위원회'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올렸으므로 목적과 맥락에 맞게 매체를 활용하였다(ㄴ).

오답 풀이 ㄷ.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는 답장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단체 대화방에 쓰는 것은 올바른 매체 활용으로 볼 수 없다. 직접 대면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활용해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할 때에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거절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말해야 한다.
 ㄹ.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올바른 매체 활용으로 볼 수 없다. 친구들에게 보고서의 목적을 사전에 안내하고 문자 메시지 발송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03 '생선(생일 선물'의 줄임 말)', '아싸(아웃사이더'의 줄임 말, '아웃사이더'를 빠르게 발음하면서 다소 변형한 형태로 표기한 것이다.), '코노(코인 노래방'의 줄임 말)'은 언어 규범을 지키지 않은 표현이다. '금식체(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하기 방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는 청소년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언어 윤리를 지키지 않은 표현이다. 이와 같은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없으므로 통신 언어에서도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언어 규범과 언어 윤리를 지키지 않아 대화 상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썼다.	☐
'생선', '아싸', '금식체', '코노'와 같은 말이 언어 규범과 언어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임을 썼다.	☐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SNS)에서는 줄임 말이나 신조어를 많이 사용한다. 줄임 말이나 신조어는 그 뜻을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이에서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상대가 그 말의 뜻을 모를 때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대화의 단절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대상이나 대화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온라인 대화에 사용된 글쓰기 방식

- 어법에 맞지 않는 줄임 말이나 신조어를 사용함. 예 뽕피(흠뽀이), 꿀잼(매우 재미있다.) 등
- 외래어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함. 예 레알(real), 더럽(the love) 등
- 낱말의 초성자만을 사용하여 표현함. 예 ㅋㅋㅋ, ㅈㅋ 등
- 이모티콘을 사용함. 예 ㅌㅌ, ^^ 등



효과

내용을 빠르게 전하고, 대화의 재미를 높이며,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04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이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사람이 아주 똑똑하대.’와 같이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인다. ‘-대’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더러’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인다.

오답 풀이 ① ‘바래’는 ‘바라’를 잘못 쓴 것이다. ‘바라다’의 어간 ‘바라-’에 어미 ‘-아’가 붙어 줄어든 것으로 ‘바라’로 써야 한다.

③ ‘-지 않-’을 줄여 적을 때는 ‘-잖-’으로 적어야 하므로 ‘적지 않은’의 준말은 ‘적잖은’이 된다.

④ ‘들리다’를 ‘들리다’로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지나가길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들르기로(들리다)’가 적절하다.

⑤ 모음 조화를 지킨다면 ‘오뎅이’로 표기해야 하지만, 모음 조화 현상이 파괴된 현실 발음을 받아들여 ‘오뎅이’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05 ‘어떡하냐’는 ‘어떻게 하느냐’의 준말이므로 맞는 표현이다. 따라서 ‘수재민은 어떡하냐?’를 언어 규범을 지키지 않은 예로 제시한 ‘재희’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06 (나)에서 원래 ‘숙맥’은 콩과 보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지만, 흔히 사리 분별을 잘 못하고 세상 물정이 어두운 사람을 가리킬 때도 ‘숙맥’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는 ‘어딘가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7 일반적으로 누리 소통망(SNS)은 개인적 의사소통의 성격과 사회적 의사소통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보기>에서 ‘여학생’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누리 소통망(SNS)에 개인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매체 언어생활로 보기 어렵다. ‘여학생’이 ‘지우’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개인 대화창이나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01 ③ 02 ④ 03 ② 04 ⑤ 05 ⑤ 06 ③
07 ④ 08 ① 09 ② 10 ㉠의 ‘네’와 ‘비가’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주로 주격 조사 ‘이’가 쓰였으나 근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가’의 쓰임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 ‘후는다’와 ‘알는다’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는다’가 의문형 어미로 사용되었으나 근대 국어에서는 평서형 어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 ④ 12 ② 13 ③
14 ④ 15 ㉢의 ‘남자가 째째하게’라는 언어 표현은 특정 성별은 어떠한지 한다는 편향된 관점을 드러내는 성차별적 표현이고, ㉣의 ‘코캤이’라는 표현은 외국 사람을 비하하는 인종 차별적 표현이다. 이러한 언어 표현은 듣는 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16 ③

01 향가의 기록에 사용된 향찰 표기가 활용된 것은 (나)와 (다)이다. (나)는 신라 헌강왕 때 처용이 지은 향가로, 아내와 동침하던 역신을 물리친 노래이다. (다)는 신라 경덕왕 때에 월명사가 지은 향가로,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하여 재(齋)를 올릴 때에 부른 노래이다. (나)는 8구체의 향가이고, (다)는 10구체의 향가이며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와 (다)는 (가)와 달리 우리말 문장 전체를 표기할 수 있었다. (가)는 인명이나 지명 등 단어 하나만을 국어식으로 적는 표기 방식이다. 이에 반해 (나)와 (다)와 같은 향찰은 형식 형태소를 포함한 우리말 문장 전체를 종합적으로 표기하던 방식이다.

② 인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 명사 표기에 사용된 차자 표기 방식은 (가)이다.

④ (가)~(다)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인 고대 국어 자료이다. 대개 고대 국어는 삼국 시대부터 통일 신라 시대까지 사용된 국어를 가리킨다.

⑤ (가)~(다)는 한자의 음과 뜻을 모두 이용하였다. (가)는 ‘길동군’이라는 고유 명사를 ‘영동군(永同郡)’과 ‘길동군(吉同郡)’의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한 것에서 당시 한자의 뜻(훈차)과 음(음차)을 이용하는 표기 방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다)와 같은 향찰은 실질 형태소를 표기할 때에는 주로 한자의 뜻을 빌리고, 형식 형태소를 표기할 때에는 주로 한자의 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02 ‘吉’과 ‘永’이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길-’의 뜻이 한자로 ‘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대 국어에도 현재 국어와 마찬가지로 ‘길다’라는 단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길동(吉同)’은 고유어 ‘길-’을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한 것이다.

② ‘영동(永同)’은 ‘永(길 영)’이라는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하였다.

③ 고유 명사인 ‘길동(吉同)’을 한자식 지명인 ‘영동(永同)’으로 고친 것이다. ‘길동’의 훈차 표기였던 ‘永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뜻이 아닌 음으로 읽게 되었고, 이에 경덕왕은 ‘영동’으로 지명을 고치게 된 것이다. 이는 고유 명사의 표기가 고대 국어 초기에 훈차(훈독)의 방식이었던 것이 점차 음차(음독)의 방식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까지는 우리말을 적을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의 뜻과 음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적었다.

永同郡 本吉同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영동군 본길동군 경덕왕개명 금인지

	한자	뜻	음
길동군 (吉同郡)	吉	길할	길
영동군 (永同郡)	永	길	영

→ '길할 길'이라는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음차)

→ '길 영'이라는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훈차)

본래 '길동군'이라 불린 지역은 경덕왕 이전에는 한자를 이용하여 '吉同郡'이나 '永同郡'으로 표기하고, 이 두 가지 표기를 모두 '길동군'이라 읽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람들은 '永同郡'을 '영동군'으로 읽게 되었고, 경덕왕은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명(地名)을 개명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03 중세 국어에서는 'ㄴ-ㄴ다'가 아니라 'ㄴ-ㄴ다'가 의문형 종결 어미로 사용되었다. '가-ㄴ다'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동사의 현재형을 'ㄴ-ㄴ'로 표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눈', '가-ㄴ다', '가-ㄴ고'에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모음 'ㄴ'을 확인할 수 있다. 모음 'ㄴ'은 중세 국어 이후 크게 두 번의 변화를 겪었다. 우선 '마눌>마늘', '조수로이>조소로이'와 같이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음운 'ㄴ'이 'ㄴ'나 'ㄴ', 'ㄴ'로 변화하였다. 그 다음에 '두리>다리'와 같이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ㄴ'이 'ㄴ'로 변화하였다. ③ 중세 국어 '가-ㄴ다'와 현대 국어의 '간다는'이 대응되는 것을 통해 현대 국어에서는 동사의 현재형을 'ㄴ-ㄴ다'로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중세 국어 '니르고'에서 현대 국어 '이르고'와 달리 단어의 첫소리에 'ㄴ'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는 단어의 첫소리에 'ㄴ'이 올 때 제약을 받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⑤ '가-ㄴ고'가 현대 국어에서 '갑니까'로 풀이되는 것으로 보아 중세 국어 시기에는 의문형 어미로 'ㄴ-고'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4 ㉠에서 '可(옳을 가)'는 한자의 음인 '가'를 이용하여 우리말인 '가'를 표기하였다. '가'는 문법적 기능만 하는 형태소라서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표기한 것이다. 夜(밤 야), 入(들 입), 遊(놀 유), 行(니=갈) 행)은 모두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형태소이므로 한자의 뜻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다.

05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하는 것과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 주로 결합하였다. '배'는 현대 국어의 '바가'에 해당하는데, '배'는 의존 명사 '바'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여 '배'로 표기된 것이므로 주격 조사 '이'가 생략된 것은 아니다.

06 중세 국어의 체언 중에는 끝에 'ㅎ'을 가진 단어들이 있었다. 이러한 단어들은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ㅎ'을 유지하지 않지만, 현대 국어의 몇몇 복합어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암뿔(암ㅎ+뿔 → 암뿔>암뿔), 안팎(안ㅎ+밖 → 안팎>안팎), 살코

기(살ㅎ+고기 → 살코기>살코기)' 등의 몇몇 복합어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후퇴(後退)'는 한자어로 끝에 'ㅎ'을 가진 단어와는 관계가 없다.

07 ㉡에는 주체 높임이 사용되었고, ㉢, ㉣, ㉤에는 객체 높임이 사용되었으며, ㉥, ㉦에는 상대 높임이 사용되었다. ㉡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하늬 皇帝'를 높이고 있다. ㉢은 객체 선어말 어미 '-습-'을 통해 객체인 '하늬 괴'를 높이고 있고, ㉣은 조사 '씩'을 통해 객체인 '왕(王)'을 높이고 있으며, ㉤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줍-'을 통해 객체 '왕의 말씀'을 높이고 있다. ㉥은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를 통해 청자인 '하늬'를 높이고 있고, ㉦은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를 통해 '왕'을 높이고 있다.

'주어지이다'는 현대어 풀이로 '주고 싶습니다'로 풀이된다. '주고 싶습니다'는 상대 높임법의 '하십시오체' 문장, 즉 듣는 이를 아주 높이는 표현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종결 어미 '-비니다'를 통해 듣는 이를 아주 높이는 것과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를 통해 듣는 이를 높였다.

08 '묵디'에서 'ㄷ'이 모음 'ㅣ' 앞에서 'ㅈ'으로 바뀌지 않고 'ㄷ'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 중세 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는 'ㄷ'이 모음 'ㅣ' 앞에서 'ㅈ'으로 바뀐 형태가 굳어져 '묵지'와 같은 형태(구개음화가 일어난 형태)로 쓰인다.

오답 풀이 ② 중세 국어와 달리 근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가'의 쓰임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島主'에서 보듯이 근대 국어 시기에는 주격 조사 '가'가 쓰여야 할 때에도 주격 조사 '가'가 쓰이지 않은 사례가 있다. ③ 중세 국어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근대 국어인 '분부후엿소오니'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엿-'이 사용되었다. ④ '알는다(알는다)'에서 보듯이 중세 국어에서는 'ㄴ-ㄴ다'가 의문형 어미로 사용되었으나 근대 국어에서는 'ㄴ-ㄴ다'가 평서형 어미로 사용되었다. ⑤ '후느나(하느나)'에서 보듯이 근대 국어에서는 'ㄴ-냐'가 의문형 어미로 사용되었다.

09 주어가 1인칭 화자일 경우에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오-'를 사용한다. 그런데 ㉡는 주어가 1인칭 화자가 아니라 '光明(광명)'이므로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은 '물ㅎ-+-ㅅ-+-오-+-ㄹ(물ㅎ소라)', ③은 '尊ㅎ-+-오-+-ㄹ(尊호라)', ④는 '니르-+-ㄴ-+-오-+-리-+-ㄹ(닐오리라)', ⑤는 '땡골-+-ㄴ-+-오-+-니(땡고노니)'로 분석되므로 모두 선어말 어미 '-오-'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의 '네(너+이)'는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주격 조사 '이'는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일 경우 그 모음과 합하여 '네'와 같이 적었다. '비가'에는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는 주로 주격 조사 '이'가 쓰였으나 근대 국어에는 주

격 조사 '가'의 쓰임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㉔의 '흔나다'는 '하느님'의 의미이므로 '-나다'가 의문형 어미로 사용된 것이고, '알나다'는 '알는다'의 의미이므로 평서형 어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를 통해 어미 '-나다'가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형 종결 어미로 사용되었지만 근대 국어에서는 평서형 어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㉔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주격 조사의 차이점을 썼다.	☐
㉔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어미 '-나다'의 차이점을 썼다.	☐

11 <보기>의 갈래는 안내문이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인용 표현이나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기사문의 언어적 특성이다. <보기>의 안내문은 안내할 내용을 대략적으로 먼저 서술한 후, 세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은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명사로 종결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2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영화의 제목을 통해 작품의 내용이나 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 영화의 제목이 작품의 내용과 너무 동떨어지면 제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영화의 제목을 번역할 때 제목이 작품의 내용과 너무 유사하면 곤란한 것이 아니라, 제목이 작품의 내용과 너무 동떨어지면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13 ㄱ. '액체 속에 넣다.'의 의미를 지닌 말은 '담그다'이다. '담그다'의 과거형은 모음 'ㅡ'가 탈락하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결합하여 '담갔다'로 적는다.
 ㄴ.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냄비, 신출내기, 풋내기'는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으므로 '신출내기'가 아니라 '신출내기'로 적는다.
 ㄷ.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따라서 '위에 입는 옷', 즉 윗옷은 '윗도리'가 아니라 '윗도리'로 적는다.

오답 풀이 ㄷ.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지내다.'의 의미를 지닌 말은 '사귀다'이다. '사귀다'의 과거형은 '사졌다'가 아니라 '사귀었다'가 되어야 하므로 '수미랑 원규가 예전에 사귀었다면서?'라고 표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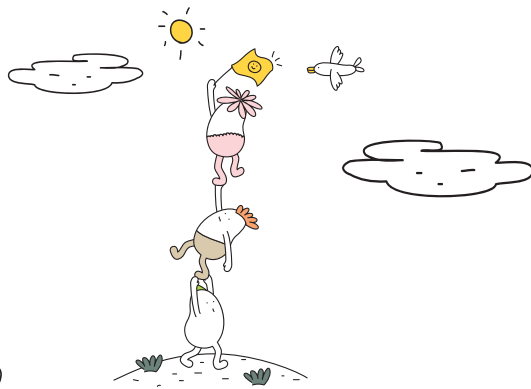
1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는 사회 방언인 전문어가 쓰였다. 과거에는 전문어로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현재에는 영어 등의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어는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군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따라서 의미가 다의성을 갖는 경우가 적으며, 지시적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 역시 적다.

15 ㉠에서 '남자가 껄껄하게'라는 언어 표현은 특정 성별은 어퍼해야 한다는 편향된 관점을 드러내는 성차별적 표현이고, ㉡의 '코쟁이'라는 표현은 외국 사람을 비하하는 인종 차별적 표현이다. 이러한 언어 표현은 듣는 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않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은 성차별적 표현, ㉡은 인종 차별적 표현임을 썼다.	☐
㉠과 ㉡과 같은 표현은 듣는 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사회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썼다.	☐

16 <보기>의 #5의 내용으로 보아 욕설을 100회 이상 사용하는 학생은 어휘력이 낮지만, 욕설을 10회 미만으로 사용하는 학생의 어휘력은 높다고 하였으므로 ㉢은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오답 풀이 ㉠ #6의 내용으로 보아 욕설을 100회 이상 사용하는 A그룹이 욕설을 10회 미만으로 사용하는 B그룹보다 인지 충동성이 높다.
 ㉡ #3, #4의 내용을 통해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보다 욕설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더 많으며, 교실에서의 욕설 사용 실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 지속적으로 욕설에 노출되면 아이들의 뇌에 치명적이라고 하였으므로 욕설의 사용은 인지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욕설을 사용하는 빈도와 뇌의 발달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법 수능 기출 문제

기출 문제 01

음운

본문 262~263쪽

01 ③ 02 ① 03 ④ 04 ②

01 단모음과 음운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다. 이 개념을 적용하여 [A]에서 찾을 수 있는 최소 대립쌍은 ‘쉬리-소리’, ‘마루-머루’, ‘구실-구슬’이다. ‘쉬리-소리’에서 모음 ‘ㄱ’과 ‘ㅇ’을, ‘마루-머루’에서 모음 ‘ㅏ’와 ‘ㅑ’를, ‘구실-구슬’에서 모음 ‘ㅣ’와 ‘ㅡ’를 음운으로 추출할 수 있다. 즉, [A]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음운은 ‘ㄱ, ㅏ, ㅑ, ㅣ, ㅡ’이다. 이 음운들 중 평순 모음은 ‘ㅏ, ㅑ, ㅣ, ㅡ’로 모두 4개이다.

오답 풀이 ① 음운 ‘ㄱ, ㅏ, ㅑ, ㅣ, ㅡ’ 중에서 전설 모음은 ‘ㄱ, ㅣ’이다.

② 음운 ‘ㄱ, ㅏ, ㅑ, ㅣ, ㅡ’ 중에서 중모음은 ‘ㅏ, ㅑ’이다.

④ 음운 ‘ㄱ, ㅏ, ㅑ, ㅣ, ㅡ’ 중에서 고모음은 ‘ㄱ, ㅣ, ㅡ’이다.

⑤ 음운 ‘ㄱ, ㅏ, ㅑ, ㅣ, ㅡ’ 중에서 후설 모음은 ‘ㅏ, ㅑ, ㅣ, ㅡ’이다.

02 국어의 음절과 음운

〈보기〉에서 초성에 온 음운에는 ‘ㄱ,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ㅇ’이 있다. 헛갈릴 수 있지만 ‘끼’의 자음 ‘ㄱ’, ‘딸’의 자음 ‘ㄷ’은 하나의 음운이다. 이를 통해 초성에는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보기〉의 예에서 중성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이다. 이 중성들은 모두 모음이다. 이를 통해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임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의 예에서 종성에 온 음운은 ‘ㄹ, ㄱ, ㅇ, ㄴ’이다. 이 음운들은 모두 자음이다. 이를 통해 종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자음임을 알 수 있다.

④ 〈보기〉의 ㄱ은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음절이므로 ㄱ은 초성과 중성이 없는 음절이다. 〈보기〉의 ㄷ에서 ‘알’은 ‘ㅏ+ㄹ’, ‘억’은 ‘ㅑ+ㄱ’, ‘영’은 ‘ㅕ+ㅇ’, ‘완’은 ‘ㅓ+ㄴ’이다. 여기서 ‘아, 어, 여, 와’는 중성으로 모음이다. 그러므로 〈보기〉의 ㄷ은 초성이 없는 음절이다. 〈보기〉의 ㄴ에서 ‘끼’는 ‘ㅏ+ㅣ’, ‘노’는 ‘ㅓ+ㅇ’, ‘머’는 ‘ㅑ+ㄹ’, ‘쇼’는 ‘ㅕ+ㅇ’이므로 중성으로 음절이 끝났다. 따라서 〈보기〉의 ㄴ은 중성이 없는 음절이다. 이를 통해 초성 또는 중성이 없는 음절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의 ㄱ~ㄹ에는 모두 ‘중성’이 있다. 이를 통해 ‘중성’이 없이는 음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3 음절의 유형과 음운 변동

‘국물’에는 교체 현상이 일어났다. ‘국물’의 발음은 [궁물]이므

로 ‘국’의 종성 ‘ㄱ’이 ‘ㅇ’으로 교체되었다. 한편, [국]의 음절 구조는 ‘ㄱ+ㅏ+ㄱ’이고 [궁]의 음절 구조는 ‘ㄱ+ㅏ+ㅇ’이므로 두 음절의 음절 유형은 모두 ④의 ‘자음+모음+자음’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밥상’의 발음은 [밥쌍]이므로 ‘상’의 초성 ‘ㅅ’이 ‘ㅍ’으로 교체된 것이다. ‘ㅍ’은 하나의 음운(자음)이므로, ‘ㅅ’이 첨가되어 ‘ㅍ’으로 변동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상]의 음절 구조는 ‘ㅅ+ㅏ+ㅇ’이고, [쌍]의 음절 구조는 ‘ㅍ+ㅏ+ㅇ’이다. 따라서 두 음절의 음절 유형은 ④의 ‘자음+모음+자음’에 속한다.

② ‘집일’의 발음은 [집닐]이다. ‘집일’은 ‘ㄴ’ 첨가가 일어나서 [집닐]이 되었고, [닐]의 ‘ㄴ’의 영향으로 [집]의 ‘ㅂ’이 ‘ㅁ’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일’이 [닐]로 바뀐 것은 첨가의 결과이다. 한편, [일]의 음절 구조는 ‘ㅇ+ㅣ+ㄹ’이므로 음절 유형 ③의 ‘모음+자음’에 속한다. 하지만 [닐]의 음절 구조는 ‘ㄴ+ㅣ+ㄹ’이므로 음절 유형 ④의 ‘자음+모음+자음’에 속한다.

③ ‘의복함’의 발음은 [의보캄]이다. ‘복’의 ‘ㄱ’과 ‘함’의 ‘ㅎ’이 축약되어 ‘ㅋ’으로 변동된 것이다. 한편, [캄]의 음절 구조는 ‘ㅋ+ㅏ+ㅁ’이고, [함]의 음절 구조는 ‘ㅎ+ㅏ+ㅁ’이므로 음절 유형 ④의 ‘자음+모음+자음’에 속한다.

⑤ ‘화살’은 ‘활+살’이 [화살]로 발음되기 때문에 ‘활’의 ‘ㄹ’이 탈락된 것이다. [활]의 음절 구조는 ‘ㅎ+ㅏ+ㄹ’이므로 음절 유형 ④의 ‘자음+모음+자음’에 속한다. 반면에 [화]의 음절 구조는 ‘ㅎ+ㅏ’이므로 음절 유형 ②의 ‘자음+모음’에 속한다.

04 음운 변동과 정확한 발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 말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개 자음만 발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종성 ‘ㄱ’은 ‘ㄱ’으로 발음한다. 하지만 ‘ㄱ’으로 끝나더라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올 때, 이 음절이 형식 형태소이면 ‘ㄱ’을 뒤 음절에 연음시킨다. ‘안팎을’에서 ‘을’은 조사로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팍’의 ‘ㄱ’을 ‘을’에 연음시켜서 [안팎을]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으로 음절이 끝났을 때 두 자음 중 하나를 탈락시키는 현상이다. 하지만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겹받침에서 두 번째 자음을 연음시키고, 앞의 자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다. ‘찰흙이’에서 ‘이’는 조사이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ㄹ’에서 ‘ㄱ’을 연음시켜 [찰흙기]로 발음해야 한다. [찰흙기]를 [찰히기]로 잘못 발음한 이유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여 [찰히기]로 변동한 후에 ‘혹’의 ‘ㄱ’을 연음시켜 [찰히기]로 발음했기 때문이다.

③ ‘넋이’에서 ‘이’는 조사이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ㅅ’을 연음하여 [넋시]로 변동을 한 후, 된소리되기를 적용하여 [넋씨]로 발음해야 한다. ‘넋이’를 [넋기]로 잘못 발음한 이유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여 [넋기]로 변동했다가 ‘ㄱ’을 연음시켜서 [넋기]로 발음했기 때문이다.

④ ‘끝을’의 ‘끝’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면 [꾼]으로 발음된다. 하지만 ‘을’은 조사로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연음시켜서 [꼬를]로 발음해야 한다. ‘끝을’을 [꼬를]로 발음하는 것은 구개음화에 의해 ‘ㅌ’이 ‘ㅊ’으로 교체됐다고 보기 때문인데, 구개음화는 음절 말의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구개음(센입천장소리)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므로 ‘끝을’에는 구개음화를 적용할 수가 없다.

⑤ '숲에'에서 '에'는 조사로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숲'의 받침 'ㅍ'은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에'에 연음시켜야 한다. '숲에'를 [수베]로 잘못 발음한 이유는 '숲'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숲]으로 발음한 뒤 'ㅍ'을 연음시켜 [수베]로 발음했기 때문이다.

기출 문제 02 단어와 품사

본문 264~267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① 05 ⑤ 06 ④
07 ③

01 복합어와 직접 구성 요소

'떠넘기면'의 기본형은 '떠넘기다'로, '떠넘기고', '떠넘기니', '떠넘기면' 등으로 활용이 된다. 따라서 어간은 '떠넘기-'인데,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뜨-(어간)+(어-(연결 어미)+)넘-(어간)+-기-(사동 접미사)'이다.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의 조건을 충족한다. 한편 '떠넘기면'의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하면 '떠+넘기면'이다. '떠넘기-'는 어근 '뜨-'와 어근 '넘기-'가 연결 어미 '-어'로 이어진 합성어이다. '떠-'는 '뜨-+-어'가 준 형태로 실질적 의미를 가진 어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떠넘기면'은 ㉠의 조건도 충족한다.

오답 풀이 ① '내리쳤다'의 기본형은 '내리치다'로 '내리치고', '내리치니' 등으로 활용되므로 어간은 '내리치-'이다. 어간이 두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내리치다'를 '비바람, 번개 따위가 세차게 몰아치다'의 의미로 볼 때 '내리-'는 '내리다'의 어간이고, '치-' 역시 '치다'의 어간이므로 모두 어근이다. 따라서 '내리쳤다'는 ㉠의 조건을 충족한다.

③ '헛돌았다'의 기본형은 '헛돌다'로 '헛돌고', '헛도니' 등으로 활용되므로 어간은 '헛돌-'이다. 어간 '헛돌-'은 '헛-+돌-'과 같이 2개의 구성 요소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헛-'은 접두사이고 '돌-'은 '돌다'의 어간이므로 어근이다. 따라서 ㉠의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④ '오간다'의 기본형은 '오가다'로 '오가고', '오가니' 등으로 활용되므로 어간은 '오가-'이다. '오가-'를 분석해 보면, '오-'는 동사 '오다'의 어간이다. 그리고 '가-'는 동사 '가다'의 어간이다. 따라서 '오간다'는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한편 '오-'와 '가-'는 모두 어근이기 때문에 ㉠의 조건을 충족한다.

⑤ '짓밟혀도'의 기본형은 '짓밟히다'로 '짓밟히고, 짓밟히니' 등으로 활용되므로 어간은 '짓밟히-'이다. 어간은 '짓-+밟-+-히-'로 분석되므로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의 조건을 충족한다. 어간 '짓밟히-'의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하면 어근 '짓밟-'과 접사 '-히-'로 분석된다. '짓밟-'은 '짓밟다'의 어간이므로 어근이다. 반면 '-히-'는 피동사를 만드는 피동 접미사이다. 그러므로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02 형태소와 단어

㉠의 '묻-'과 '물-'은 '묻다'의 어간으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다. 어간 '묻-'이 '-다', '-고'와 같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형태의 변화가 없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나 '-었-' 등과 결합하면 '묻-'이 '물-'로 바뀐다.

㉡의 '-었-'과 '-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식 형태소이다. '-았-'은 양성 모음을 가진 어간과 결합하고, '-었-'은 음성 모음을 가진 어간과 결합한다.

㉢의 '느'와 '은'은 보조사로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식 형태소이다. '느'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결합하고, '은'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결합한다.

㉠~㉢은 모두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 하지만 ㉠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고, ㉡과 ㉢은 모두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식 형태소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용언의 어간이고, ㉡은 선어말 어미인데, 어간과 선어말 어미는 그 자체로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은 보조사로 홀로 쓰일 수는 없지만 체언에 쉽게 붙고 떨어질 수 있어서 단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은 ㉢뿐이다.

② ㉠은 용언의 어간으로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실질 형태소이고, ㉡과 ㉢은 모두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과 ㉢뿐이다.

③ ㉡과 ㉢은 모두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 즉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단어가 아니다. 그러나 ㉢은 의존 형태소이기는 하지만 앞말과 쉽게 분리할 수 있으므로 단어이다. 따라서 ㉡과 ㉢만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⑤ ㉠은 용언의 어간이므로 반드시 어미와 결합해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은 선어말 어미이므로 앞으로는 어간과 결합해야 하고 뒤로는 어미와 결합해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은 보조사이므로 주로 체언과 결합해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 모두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해서 쓰인다. ㉠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느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 ㉡은 어간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이나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고, ㉢은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느냐, 자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 모두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

참고 자료 ++ 형태소의 분류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형태소는 의미에 따라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와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자립 유무에 따라 자립할 수 있는 자립 형태소, 자립할 수 없는 의존 형태소로 나뉜다. 여기서 실질 형태소 이면서 자립 형태소는 단어가 된다. 단, 조사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지만 단어이다.

03 단어의 형성

'겹겹이'는 명사 어근 '겹'이 결합한 합성어 '겹겹'에 접사 '-이'가 붙어 '겹겹이'로 파생된 것이므로 ㉠의 조건을 충족한다. 이때 합성 명사 '겹겹'에 접사가 결합하면서 품사가 부사로 변하므로 ㉠의 조건도 충족한다.

오답 풀이 ① ‘군것질’은 접사 ‘군-’에 어근 ‘것’이 결합한 파생어 ‘군것’에 접사 ‘-질’이 다시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군것’과 ‘군것질’은 모두 명사로, 품사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바느질’은 어근 ‘바늘’에 접사 ‘-질’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바늘’과 ‘바느질’은 모두 명사로, 품사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④ ‘다듬이’는 동사 어근 ‘다듬-’에 접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때 동사 ‘다듬-’은 접사가 결합하면서 명사로 품사가 변화하므로 ㉠의 조건을 충족한다.

⑤ ‘헛웃음’은 동사 어근 ‘웃-’에 접사 ‘-음’이 결합한 파생어 ‘웃음’에 다시 접사 ‘헛-’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동사 ‘웃-’에 접사가 결합하면서 명사로 품사가 변하지만, 품사가 바뀐 후에 접사가 결합하므로 ㉠의 조건 역시 충족하지 못한다.

04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

‘군데’는 ‘날날의 곳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는 의존 명사로, 자립 명사와 달리 관형어 없이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그릇’은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자립 명사이지만, 여기에서는 음식이나 물건을 그릇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로 쓰였다.

③ ‘덩어리’는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자립 명사이지만, 여기에서는 부피가 큰 것이나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세는 단위로 쓰였다.

④ ‘숟가락’은 ‘밥이나 국물 따위를 떠먹는 기구’를 의미하는 자립 명사이지만, 여기에서는 밥 따위의 음식물을 숟가락으로 떠 그 분량을 세는 단위로 쓰였다.

⑤ ‘발자국’은 ‘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을 의미하는 자립 명사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을 한 번 떼어 놓는 걸음을 세는 단위로 쓰였다.

05 품사

‘즐거운’은 ‘즐겁다’의 어간 ‘즐겁-’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은’이 붙어서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고 있다. ‘즐거운’은 활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말(관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것으로 보아 ‘즐거운’은 용언으로 볼 수 있다. ‘즐거운’은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며,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없으므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며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옛날, 사진, 기억’은 활용을 하지 않으며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에 해당한다. ㉠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의미하는 말을 명사라고 한다.

② ‘보니, 떠올랐다’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니’는 ‘보다’의 어간 ‘보-’에 어미 ‘-니’가 결합된 것이고 ‘떠올랐다’는 ‘떠오르다’의 어간 ‘떠오르-’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 평서형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단어이다. 이처럼 ‘보니, 떠올랐다’는 모두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고 활용을 하므로 ㉠에 해당하며, 품사는 동사이다.

③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활용을 하지 않으므로 ㉠에 해당한다. ㉠과 같이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말을 수사라고 한다.

④ ‘(즐거운 기억) 하나가’에서 조사 ‘가’는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고, ‘(옛날) 사진들’에서 조사 ‘들’은 앞말이 목적어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을, 가’는 앞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에 해당한다. ㉠과 같이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하여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하는 말들을 조사라고 하므로, ‘을, 가’의 품사는 조사이다.

06 품사

[A]에서 ‘있다’는 ‘존재’, ‘소유’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형용사, ‘한 장소에 머뭇’의 의미일 때에는 동사로 분류된다고 했다. ㉠의 ‘있다’는 돈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활용 양상과 상관없이 형용사이다. 그리고 [A]에서 형용사 ‘있다’의 반의어 ‘없다’도 형용사이고 형용사 ‘있다’와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여 준다고 했다. ㉠에서 ‘없다’는 돈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 ‘있다’의 반의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의 ‘없다’는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① [A]를 통해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원칙적으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과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에서 ‘먹었다’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예뻐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먹는다’의 ‘-는-’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이고 ‘예쁘다’의 ‘-ㄴ-’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이를 통해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A]를 통해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원칙적으로 명령형·청유형 종결 어미와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의 ‘먹어라’, ‘*예뻐라’와 ‘먹자’, ‘*예쁘자’에서 ‘-어라’는 명령형 종결 어미, ‘-자’는 청유형 종결 어미이기 때문에 ‘*예뻐라’와 ‘*예쁘자’는 비문법적인 표현이다.

③ [A]를 통해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원칙적으로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와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에서 ‘-(으)려고’는 의도를, ‘-(으)러’는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형용사 ‘예쁘다’와 결합할 수 없다.

⑤ ‘나무가 크다’와 ‘머리카락이 길다’에서 ‘크다’와 ‘길다’는 각각 ‘나무’, ‘머리카락’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로 볼 수 있다. ‘나무가 쑥쑥 크다’의 ‘크다’와 ‘머리카락이 잘 긴다’의 ‘긴다’에는 모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되었는데 [A]를 통해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원칙적으로 선어말 어미 ‘-ㄴ/는-’과 결합할 수 없지만, 동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ㄴ/는-’과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 아래쪽 문장에 쓰인 ‘크다’와 ‘길다’는 동사이다.

07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먹었겠니’는 ‘먹-+-었-+-겠-+-니’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문장의 의미를 볼 때 ‘-겠-’은 주체의 의지가 아니라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고 있다. ㉠은 의문문이므로 ‘-니’는 의문형 종결 어미로 사용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심었구나’는 ‘심-+-었-+-구나’로 분석할 수 있고,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이 감탄문이므로 ‘-구나’는 감탄형 종결 어미이다.

② ‘청소하는’은 ‘청소하-+-는’으로 분석할 수 있고,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되어 있다. 관형사형 어미 ‘-는’은 어말 어미이다.

④ ‘읽은’은 ‘읽-+-은’으로 분석할 수 있고,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되어 있다. 관형사형 어미 ‘-은’은 어말 어미이다. 또한 ‘-은’은 읽은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 시제도 나타낸다.

⑤ '불겠지만'은 '불-+-겠-+-지만'으로 분석할 수 있다. '-지만'은 '주말에 바람은 불겠지만'과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를 대등하게 연결하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면서 종결 어미이다. '-겠-'은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면서 종결 어미 '-지만' 앞에 있으므로 선언할 어미이다.

기출 문제 03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

본문 268~269쪽

01 ④ 02 ② 03 ① 04 ④

01 문장 성분 - 주어

㉠과 ㉡은 체언 구실을 하는 구에 조사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의 주어는 '신임 장관은'이다. 주어인 '신임 장관은'은 명사 '신임'과 '장관'이 결합한 명사구 '신임 장관'에 보조사 '은'이 결합한 형태이다. ㉡의 주어는 '새 컴퓨터가'이다. '새 컴퓨터'는 관형사 '새'와 명사 '컴퓨터'가 결합한 명사구 '새 컴퓨터'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한 것으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의 주어 '나도'는 대명사 '나'에 보조사 '도'가 붙은 형태이다. '드디어'는 부사어로 '나도 일을 끝냈다.'를 꾸민다. ㉡에서 '벌써'는 부사어로 '바깥이 칠칠같이 어둡다.'를 꾸민다. 주어는 '바깥이'로 명사 '바깥'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형태이다.

② ㉠에서 주어는 '나도'로 '나(대명사)+도(보조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격 조사가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의 주어는 '신임 장관은'으로 '신임 장관(명사구)+은(보조사)'의 구성이므로 보조사가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서술어는 '어둡다'인데 '어둡다'는 형용사이므로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즉 주어 '바깥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가 아니라 서술어 '어둡다'가 나타내는 상태의 주체이다. ㉠의 서술어 '참석한다'는 모임이나 회의 따위의 자리에 참여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주어 '신임 장관은'은 서술어 '참석한다'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로 볼 수 있다.

⑤ ㉡의 서술어 '되었다'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서술어는 맞지만 '되다'의 영향으로 주어가 두 번 쓰인 것은 아니다. 주어는 '새 컴퓨터가' 하 나이고, 서술어 '되었다' 앞에 있는 '고물이'는 주어가 아니라 보어이다.

참고 자료 ++ 주어의 형성

주어는 서술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과 같은 체언에 조사가 붙어서 형성된다. 이 외에도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되기도 한다. 주어에는 주로 주격 조사 '이, 가, 게, 서' 등이 쓰이는데, 보조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02 서술어의 자릿수

'이 한 구절로 글이 살았다.'에서 서술어 '살았다'의 주어는 '글이'이고 부사어는 '(이 한) 구절로'이다. 이 문장에서 부사어인 '(이 한) 구절로'를 생략한 '글이 살았다.'는 문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문장이다. 이처럼 '살았다'는 한 자리 서술어로,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바람 때문에(부사어) 불씨가(주어) 다시(부사어) 살았다(서술어)'에서 부사어를 생략하고, '불씨가 살았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만 남겨 놓아도 문장이 성립된다. 그러므로 ㉠은 주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③ '그는(주어) 조선 시대에(부사어) 오랫동안(부사어) 벼슬을(목적어) 살았다(서술어)'에서 '그는'은 주어이고 '벼슬을'은 목적어이다. 이 두 성분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다. 원래 문장에서 이 두 성분과 서술어만 남겨도 '그는 벼슬을 살았다.'와 같이 문장이 성립된다. 따라서 ㉢은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④ '그는(주어) 잠시(부사어) 일손을(목적어) 놓았다(서술어)'의 주어는 '그는'이고 '일손을'은 목적어이다. 이 문장에서 부사어 '잠시'를 생략해도 '그는 일손을 놓았다.'와 같이 문장은 성립된다. 따라서 ㉣은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⑤ '형은(주어) 책을(목적어) 책상 위에(부사어) 놓았다(서술어)'에서 '형은'은 주어이고 '책을'은 목적어이다. 이 두 성분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다. '책상 위'에는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부사어 '책상 위에'를 생략하면 '* 형은 책을 놓았다.'가 되는데, 이때에는 책이 놓인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03 겹문장

'동생은 추운 날씨에도 얼음을 먹었다.'는 문장 '날씨가 춥다.'를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날씨가 춥다.'는 '날씨'를 꾸며 주기 때문에 관형절이다. 관형절은 문장의 서술어에 '-(으)ㄴ', '-는', '-(으)ㄹ', '-던'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날씨가 춥다.'의 서술어인 '춥다'에 '-(으)ㄴ'이 결합하여 '추운'이 되었다. 그리고 '날씨'가 안은문장에도 사용되고 있어서 안긴 문장의 주어 '날씨'가 생략되었다.

오답 풀이 ② ㉠은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를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는 '동생'을 꾸며 주는 절이기 때문에 ㉠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에서 '먹었다'에 '-는'이 붙어서 '먹는'이 되었고 '동생'이 안은문장에도 쓰였으므로 생략되어 '얼음을 먹는'이 되었다.

③ ㉢은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를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추위와 상관없이'는 '얼음을 먹었다.'를 꾸며 주기 때문에 부사절로 볼 수 있다. '추위와 상관없이'는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에서 서술어 '상관없다'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상관없이'가 되었다. '동생'은 안은문장에 쓰였기 때문에 생략하여 '추위와 상관없이'의 형태로 절을 만든다.

④ ㉣은 '날씨가 춥다.'를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인용절은 서술어에 '고(간접 인용)'나 '라고(직접 인용)'를 붙여서 만든다. 그래서 '날씨가 춥다.'의 서술어 '춥다'에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 '고'를 붙여서 '날씨가 춥다고'를 만든 것이다.

⑤ ㉤은 '형은 물을 마셨다.'와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가 대등적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두 문장은 대조의 의미 관계를 보이고 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 문장과 뒷문장이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대등적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만든다.

04 안건문장의 종류와 문장 성분 생략

㉔은 '내가 공원에서 놀 쉬다.'를 관형절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안은문장과 안건문장에 중복 사용된 부사어 '공원에서'가 생략되었고, '쉬다'의 '쉬-'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던'이 결합하여 '내가 공원에서 놀 쉬다.'가 '공원'을 꾸미는 관형어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안건문장은 관형절이고 생략된 문장 성분은 '공원에서' 즉, 부사어이다.

오답 풀이 ① ㉑의 안건문장의 종류는 명사절이고,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㉑은 '부모님은 [A]을/를 바란다.'의 [A] 자리에 '자식이 건강하다.'가 들어간 문장이다. 따라서 '자식이 건강하다.'는 안건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A]는 목적어가 들어갈 위치이므로 '자식이 건강하다.'는 명사절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건강하-'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자식이 건강하기'로 바뀌어 명사절이 된 것이다.

② ㉒의 안건문장의 종류는 부사절이고,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㉒은 '그 친구는 연락도 없다.'를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그 친구는'은 안건문장과 안은문장에서 공통된 문장 성분이므로 생략되었다. '없다'는 '없-'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 '없이'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는 부사절이다.

③ ㉓에 포함된 안건문장의 종류는 명사절이고,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㉓은 '동생이 [A]을/를 깨달았다.'에 '동생의 판단이 옳았다.'가 명사절이 되어 안겨 있는 문장이다. 안은문장의 '동생이'와 안건문장의 '동생의'에서 '동생'은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므로 '동생의'의 '동생'을 재귀 대명사 '자기'로 바꾸고, 목적어 위치인 [A]에 들어가기 위해서 '옳았다'의 '옳았-'에 명사형 어미 '-음'을 붙여서 '자기의 판단이 옳았음'으로 변형시켰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이 옳았음'을 [A] 자리에 넣었다.

⑤ ㉕의 안건문장의 종류는 관형절이고, 생략된 문장 성분은 주어 '과제가'이다. ㉕은 '과제가 아주 어렵다.'가 관형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다. 문장에 '과제가'가 중복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과제가 아주 어렵다.'에서 '과제가'를 생략하고 '어렵다'에 관형사형 어미 '-은'을 붙였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이 '과제'를 꾸미게 만들었다.

기출 문제 04

문법 요소

본문 270~275쪽

01 ①	02 ⑤	03 ②	04 ⑤	05 ①	06 ①
07 ⑤	08 ④	09 ①	10 ①	11 ④	

01 의문문의 종류

㉗에서 '선생님'은 '언제, 어디에서'와 같은 의문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㉗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설명 의문문)에 해당한다. ㉘에서 '어머니'는 늦잠 자는 '아들'을 깨우기 위해 얼른 일어나라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㉘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수사 의문문) 가운데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㉙ '학생 B'는 '학생 A'의 질문에 같이 갈 수 있다고 긍정적인

로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㉙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판정 의문문)이다.

㉚ '어쩔 이럴 수 있니?'는 '이럴 수 없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언니'는 '동생'에게 어떤 대답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㉚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수사 의문문) 가운데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02 의문문과 청유문

'어디 보자.'는 청유형 종결 어미 '-자'를 사용한 청유문이다. 하지만 청자 'B'에게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행동 수행을 의미하는 혼잣말이다.

오답 풀이 ① '괜찮다면, 우리 여기서 잠깐 기다릴까요?'라는 의문문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화자 'A'가 청자 'B'에게 기다리는 행동을 함께 하자고 요청 및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㉑의 예로 볼 수 있다.

② '한번 보세.'는 청유문이고, '-세'는 청유형 종결 어미이다. 화자 'B'의 '보시다시피'라는 말을 통해서 청자 'B'가 화자 'A'에게 상처 부위를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번 보세.'는 청자 'B'에게 다친 곳을 보여 달라는 행동을 요청하는 말이다. 따라서 ㉑의 예로 볼 수 있다.

③ '먼저 좀 내립시다.'는 청유문이고, '-ㅂ시다'는 청유형 종결 어미이다. 청자 'B'의 대답을 통해서 '먼저 좀 내립시다.'는 청자 'B'에게 지금 내릴 테니 자리를 조금 비켜 달라는 행동을 요청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㉑의 예로 볼 수 있다.

④ '모자를 벗어 주실 수 있을까요?'는 의문문이지만, 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화자 'A'는 청자 'B'에게 모자를 벗어 달라는 행동을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㉑의 예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

의문문의 종류

대개 의문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의문문에는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이 있다. 설명 의문문은 설명을 대답으로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판정 의문문은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의문문이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 명령, 청유의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수사 의문문이라고 한다.

03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통하여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㉑의 주어인 '말씀'은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높이기 위해 '있었니?'가 아니라 '있으셨니?'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준비하다'의 주체는 '경준'이다. '영희'와 '경준'은 친구 사이라서 서로 높여야 할 관계가 아니므로 '준비하시라고'를 '준비하라고'로 바뀌어야 한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는 주체가 높임의 대상일 때 사용한다.

③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어서(문다)'를 높임 표현인 '여쭙서(여쭙다)'로 바뀌어야 한다.

④ '자기'는 앞에 나온 3인칭 주어를 되풀이하여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주어를 대신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로, 주어인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선생님'은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재귀 대명사 '자기' 대신 높임말인 '당신'으로 바뀌어야 한다.

⑤ '말했잖아'의 주체는 '선생님'이다. 그러므로 주체를 높여서 '말씀하셨잖아'로 고쳐야 한다.

04 높임 표현

⑥의 '모시고'는 '데리고'의 높임말이다. '모시다'는 문장의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⑥은 객체 높임법이 사용된 문장이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나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①은 '누나'가 '동생'에게 하는 말인데 '누나'는 '동생'보다 윗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인 '동생'을 높일 필요가 없다. 또한 '-는구나'는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가 아니다. '-는구나'는 해라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며,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② '계시다'는 '있다'의 높임말이다. '아버지 안 계신'에서 '계신'의 주체는 '아버지'이므로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계시다'를 사용한 것이다.

③ 조사 '께'를 사용하여 전화를 드려야 할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나, '아버지'는 문장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다. 조사 '께'는 객체를 높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생각된 주어는 '우리가'로 볼 수 있다.

④ '아버지께서'는 서술어 '오라셨어(오라고 하셨어)'의 주체인 주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④은 객체를 높인 것이 아니라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인 것이다.

05 시간 표현

①에서 '왔겠다'는 '오-+-았-+-겠-+-다'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므로 '-겠-'은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선어말 어미라고 볼 수 없다. '왔겠다'의 '-겠-'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오겠지'는 '오-+-겠-+-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문장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지금'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겠-'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오겠지'의 '-겠-'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그가 집에 갔다.'와 '나는 집에 다 갔다.'의 '갔다'는 '가-+-았-+-다'로 분석할 수 있다. '그가 집에 갔다.'에서의 '-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하지만 '나는 집에 다 갔다.'에서의 '-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기 위해 쓰인 것이다.

③ ③의 두 문장에서 '떠날'은 '떠나-+-ㄹ'로 분석할 수 있다. '내가 떠날 때 비가 올 것이다.'의 '떠날'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ㄹ'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말인 '-ㄹ 것이다'와 함께 쓰였으므로, '-ㄹ'은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 반면,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에는 관형사형 어미 '-ㄹ'과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함께 쓰였다. 내가 떠나는 것과 비가 내린 것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ㄹ'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나타낸다.

④ ④의 '그는 지금 학교에 간다.'의 '간다'는 '가-+-ㄴ-+-다'로 분석된다. 이 문장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지금'이 사용되었으므로 '-ㄴ-'은 현재의 사건을 나타낸다. '그는 내년에 진학한다고 한다.'에는 '내년에'라는 부사어가 사용되었으므로 진학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진학한다고(진학+해(다)+-ㄴ-+-다+고)'에서 '-ㄴ-'은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

⑤ ⑤의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의 시제는 현재 시제이다. 이 문장의 서술어 '작다'는 형용사로 어간 '작-'에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하였다. 이처럼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에는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06 이어진문장에서의 시간 표현

'-다가'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 따위가 중단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바뀔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뒤 절의 사건은 앞 절의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있다. (가)에서는 '데었다', (나)에서는 '식혔다'를 통해서 뒤 절의 사건이 모두 과거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와 (나) 앞 절의 사건은 모두 과거에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가)의 앞 절 서술어인 '먹다가(먹-+-다가)'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나)의 앞 절 서술어인 '끓였다(끓-+-이-+-었-+-다가)'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② '-다가'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 따위가 중단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바뀔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뒤 절의 사건은 앞 절의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있다. (가)의 뒤 절 '데었다(데-+-었-+-다가)'에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사용되었으므로 앞 절의 사건은 과거이다. '-아서/-어서'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다)는 뒤 절의 사건이 앞 절의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있다. 뒤 절의 서술어 '넠었다(넠-+-었-+-다)'에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사용되었으므로 앞 절의 시제도 역시 과거 시제이다.

③ (가)의 뒤 절 '데었다(데-+-었-+-다)'에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쓰였기 때문에 앞 절의 사건이 과거임을 알 수 있다. (라)의 '-아서/-어서'는 뒤 절 사건의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그러므로 앞 절의 사건은 뒤 절의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 뒤 절 '깎았다(깎-+-었-+-다)'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쓰였기 때문에 앞 절의 사건이 과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와 (라)의 사건은 모두 과거에 일어났다. 그리고 (가)의 '먹다가'는 '먹-+-다가'로, '달아서'는 '달-+-아서'로 분석되기 때문에 앞 절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④ (나)의 '-다가'는 어떤 동작이 중단되고 다른 동작으로 바뀔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그러므로 앞 절의 사건이 끝난 후 뒤 절의 사건이 일어난다. (다)의 '-어서'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앞 절의 사건이 일어나야 뒤 절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다) 역시 앞 절의 사건이 끝난 후 뒤 절의 사건이 일어난다.

⑤ (다)의 '-어서'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앞 절의 사건이 일어나야 뒤 절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라)에서는 '내가 문을 쾅 닫았기 때문에' '동생'이 잠을 잤다. 그러므로 (라)에서 앞 절의 사건은 뒤 절의 사건의 원인 혹은 이유이다.

07 피동사와 사동사

피동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피동문을 만드는 동사를 피동사라고 한다. 사동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으로 사동문을 만드는 동사를 사동사라고 한다. ㉠은 눈이 빗자루에 의해 모아져 버려진다는 의미이므로 피동문이다. ㉡은 '내가'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 쓸도록 시켰다는 의미이므로 사동문이다.

오답 풀이 ① ㉠은 학생회 임원이 새 친구로 바뀌게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피동문이고, ㉡의 '갈리다'는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다'를 의미하는 피동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의 '갈리다'는 사동사이지만 '쟁기나 트랙터 따위의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의 '갈리다'는 <보기>의 갈다의 사동사가 아니다.

② ㉠의 '깎이다'와 ㉡의 '깎이다' 모두 '값이나 금액이 낮추어서 줄게 되다'의 의미이다. ㉠과 ㉡의 '깎이다'는 모두 '깎다'에서 파생된 피동사에 해당하며, ㉠과 ㉡ 모두 피동문이다.

③ ㉠의 '물히다'와 ㉡의 '물히다'는 모두 '가루, 풀, 물 따위를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과 ㉡의 '물히다'는 모두 '물다'의 사동사이고 ㉠과 ㉡은 사동문이다.

④ ㉠은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넣게 한다는 의미이므로 사동문이다. 그러나 '물다'의 사동사인 '물리다'는 '입속에 넣게 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물다'의 사동사는 아니다. ㉡의 '물리다'는 '땀나와 아랫니 사이에 낀 상태로 상처가 날 만큼 세게 눌러지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은 피동문이고 '물리다'는 물다²의 피동사이다.

08 사동 표현

'읽히셨다(읽-+-히-+-시-+-었-+-다)'에서 '-히-'는 사동 접미사이다. '읽게 하다(읽-+-게 하다)'는 '-게 하다'에 의해 사동 표현이 된다. 그러므로 ㉢은 사동 표현인데,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히셨다.'와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게 하셨습니다.'는 모두 책을 읽는 행위가 '철수'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행위를 시킨 것은 '선생님'이다. 그러므로 ㉢은 모두 간접 사동의 의미이다.

오답 풀이 ① '낮다'는 형용사이다. '낮추다(낮-+-추-+-다)'는 사동 접미사 '-추-'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② '아이가 옷을 입었다.'의 서술어 '입었다'는 주어 '아이가'와 목적어 '옷을'을 필요로 한다.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었다.'는 사동문으로, 서술어 '입히었다'는 주어 '엄마가', 부사어 '아이에게', 목적어 '옷을'을 필요로 한다. 즉,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면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졌다.

③ '사람들이 방으로 이삿짐을 옮긴다.'는 사동문이고 '옮기다'는 '옮다'의 사동사이다. '옮다'는 자동사이므로 ㉢을 주동문으로 바꾸려면 '이삿짐을'은 주어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이삿짐이 방으로 옮다.'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이다. 따라서 ㉢에 대응하는 주동문은 없다.

⑤ '아기가 웃는다.'는 주동문이고 서술어 '웃는다'는 자동사이다. 이 문장이 사동문 '아빠가 아기를 웃긴다.'로 바뀌면서 주동문의 주어인 '아기가'가 목적어 '아기를'로 바뀌었다. '철수가 짐을 졌다.'는 주동문이고 서술어 '졌다'는 타동사이다. 이 문장이 사동문 '형이 철수에게 짐을 지웠다.'로 바뀌면서 주동문의 주어 '철수가'가 부사어 '철수에게'로 바뀌었다. 이처럼 주동문의 서술어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그 문장 성분이 달라진다.

09 부정 표현

부정문에는 의지에 의한 행동의 부정을 나타내는 '안' 부정문과 능력이나 외부의 원인으로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못' 부정문이 있다. ㉠의 '못해'는 '못하다'의 활용형으로 앞

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극에 달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말의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없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뒷말인 '줄리다'를 부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못 탄다'는 부정 표현으로 부정 부사 '못'과 동사 '탄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부정 표현 '타지 못한다'는 '타지(타-+-지)'와 부정을 나타내는 용언 '못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부정 표현은 부정 부사나 부정 용언을 통해 실현됨을 알 수 있다.

③ 부정을 나타내는 용언 '않다'와 '못하다'에 명령형 어미를 붙이면, ㉢과 같이 비문법적인 표현이 된다. 그러나 '말다'에 명령형 어미를 붙여 '마라'와 같이 쓰면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된다. 따라서 명령문의 부정 표현에는 '말다'를 사용해야 한다.

④ ㉢에서 '넉넉하다'는 형용사이다. '시간이 넉넉하다.'의 부정 표현으로 부정 부사 '못'을 사용했을 때는 비문법적인 표현이 되지만 부정 용언 '못하다'를 사용했을 때는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된다. 따라서 서술어가 형용사인 문장의 부정 표현은 부정 용언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결코'는 '했다'와 같이 긍정을 나타내는 서술어와는 호응하지 않는 반면에 부정 표현과는 호응이 된다. '분명히'는 '결코'와 달리 부정 용언과 긍정을 나타내는 서술어 모두와 호응한다.

10 인용 표현

'아들'이 말한 시점은 어제이고 화자가 말하는 시점은 오늘이다. 따라서 직접 인용절에서 '내일'은 간접 인용절에서 '오늘'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아들'이 부모님께 한 말이므로 직접 인용절에서는 '계십시오'를 사용해 주체 높임을 나타냈다. 하지만 간접 인용절은 화자가 청자에게 말하는 것이고 화자가 '저에게'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으므로 '계시라고'가 아니라 '있으라고'로 바뀌어야 한다. 두 번째 직접 인용에서 주어는 '언니는'이다. 직접 인용절에서 '나의'는 '언니'를 지시하므로 간접 인용절로 바꿀 때에는 '나의'를 재귀 대명사인 '자기의'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 인용절에서는 '남-+-기-+-어라(명령형 어미)'로 활용되어 '남겨라'이지만 간접 인용절에서는 어간이 받침이 없이 끝나면 명령형 어미 '-라'를 붙여야 한다. 그러므로 '남겨라'는 '남기라고'로 고쳐야 한다.

11 안건문장의 종류와 인용절

명사절은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으)ㄴ', '-기'가 붙어서 만들어지는데 '먹기(먹-+-기)'의 '-기'는 명사형 어미이다. 즉, '오늘 급식을 일찍 먹기는 힘들겠다.'에서 '오늘 급식을 일찍 먹기'는 명사절로, 조사 '는'과 결합하여 서술어 '힘들겠다'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코가 길다'의 주체는 '코끼리'이고, '길다'의 주어는 '코가'이다. '코가 길다'는 주어 '코끼리는'을 서술하는 서술절로,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② '소리도 없이는'은 서술어 '다가왔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다. 부사절은 절 전체가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기능한다. 부사절 '소리도 없이는'은 '소리도 없다.'라는 문장에서 '없다'의 어간 '없-'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 ③ '학교에 가기에'는 '학교에 가기'에 부사격 조사 '에'가 붙은 것이다. 부사격 조사는 체언에 붙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는 명사절이다. '가기(가-+ -기)'에 쓰인 '-기'는 명사형 어미이다.
- ⑤ '현재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다.'에서 '현재'가 주장한 말은 '내가 옳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옳다고'는 '현재'의 말을 인용한 간접 인용절이다. 간접 인용을 할 때에는 '옳다고'와 같이 조사 '고'를 붙인다.

기출 문제 05

담화

본문 276~277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④

01 언어적 맥락에 따른 대명사의 의미

'우리 셋'은 대화를 하고 있는 '수빈, 나경, 세은'을 가리키므로 ⑥의 '우리'는 이 세 명을 가리킨다. '나경'이 '우리 다 같이 가자.'고 했으므로 ⑥의 '우리'는 '수빈, 나경, 세은'을 가리킨다. 따라서 ⑥과 ⑥이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오답 풀이 ③ '나경'이 '우리 엄마'라고 말했으므로 ③의 '우리'는 '나경(혹은 '나경'의 형제자매를 포함)'을 가리킨다.

④ '우리 집'은 '수빈(의 가족)'의 집을 지시하므로 ④의 '우리'는 '수빈(혹은 '수빈'의 가족을 포함)'을 가리킨다.

⑤ '수빈'은 집에 일이 있어 머리핀을 사러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으므로 ⑤의 '우리'는 '수빈'을 제외한 '나경'과 '세은'을 가리킨다.

02 문맥에 따른 호칭의 의미

㉠과 ㉡에서 청자는 '은미의 고모'로 같고 화자는 각각 '은미의 할머니'와 '은미의 엄마'로 다르다. ㉠은 '은미의 고모부(은미의 고모의 남편)'를 '은미의 할머니'의 입장에서 가리키는 말이다. ㉡은 '은미의 엄마'가 '은미의 고모'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과 ㉡은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은 화자인 '은미의 할머니'가 청자인 '은미의 고모'에게 '은미의 고모'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다. ㉡은 화자인 '은미의 고모'가 청자인 '은미의 할머니'에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이 ㉠과 ㉡으로 다르게 표현되었다.

③ ㉠과 ㉡은 모두 '은미의 고모'의 남편이다. ㉠을 말하는 사람은 '은미의 할머니'이고 듣는 사람은 '은미의 고모'이다. ㉡을 말하는 사람은 '은미의 고모'이고 청자는 '은미'이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가 모두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과 ㉡ 모두 '은미의 고모'의 남편을 가리킨다. ㉠을 말하는 사람은 '은미의 고모'이고 청자는 '은미의 할머니'이다. ㉡을 말하는 사람은 '은미의 고모'이고 청자는 '은미'이다. 따라서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다.

⑤ ㉠과 ㉡ 모두 '은미의 고모'를 가리킨다. ㉠을 말하는 사람은 '은미의 엄마'이고 청자는 '은미의 고모'이다. ㉡을 말하는 사람은 '은미'이고 청자는 '은미의 고모'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된 것이다.

03 화자의 심리적 태도

㉢은 형이 산에 갔다는 '엄마'의 말을 '영희'에게 전달하는 말이다. 또한 어미 '-다더라'는 화자가 들은 것을 청자에게 일러 주는 종결 어미다. 그러므로 ㉢에 나타나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는 단정이 아니라 전달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철수'에게 그가 산에 갔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② ㉡에는 내일 산에 가겠다는 '철수'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또한 '-겠-'은 주체의 의지를 드러내는 의미도 있다. ③ ㉢은 '영희'의 질문에 대한 '철수'의 답변으로, '철수'는 형이 산에 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또한 '-르겠-'은 화자의 추측이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⑤ '-구나'는 감탄의 의미를 수반하여 '철수'의 형이 대단하다는 '영희'의 감탄을 드러낸다.

04 담화의 응집성

㉣는 지시 표현, 접속 부사 등과 같은 연결어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 ㉣에서 '이렇게'는 앞 문장의 내용을 지시하는 표현이다. ㉣는 직접적으로 순서나 과정을 드러내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으로 ㉣에서 '다음'은 뒤 내용이 '이렇게'의 다음 순서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 준다. 그러므로 ㉣와 ㉣가 모두 나타난 것은 ㉣이다.

오답 풀이 ① '먼저'는 순서를 드러내는 어휘이므로 ①에서 ㉣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에서 ㉣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우리'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지시 표현이므로 ②에서 ㉣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에서 ㉣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그러나'는 접속 부사이기 때문에 ③에서 ㉣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에서 ㉣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사포질'이 앞뒤 문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므로 담화가 응집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에서 ㉣와 ㉣는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기출 문제 06

국어 규범과 국어생활

본문 278~281쪽

01 ① 02 ⑤ 03 ② 04 ① 05 ① 06 ④

01 사이시옷 표기

'도매가격[도매까격]'은 '도매'와 '가격'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품사는 명사이므로 ㉠을 만족한다. 그러나 '도매가격'은 한자어 '도매(都買)'와 한자어 '가격(價格)'이 결합한 것이므로 ㉡을 충족하지 못한다. 앞말 '도매'가 모음 'ㅐ'로 끝났으므로 ㉢을 충족한다. 뒷말 첫소리 'ㄱ'이 된소리 [ㄱ]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를 충족한다. '도매값[도매갑]'은 명사 '도매'와 명사 '값'이 결합한 합성어로 명사이므로 ㉠을 충족한다. 한자어 '도매(都買)'와 고유어 '값'이 결합한 것이므로 ㉡을 충족한다. 앞말 '도매'가 모음 'ㅐ'로 끝났으므로 ㉢을 충족한다. 뒷말 첫소리 'ㄱ'이 된소리 [ㄱ]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를 충족한다. 따라서 ㉠에서 사이시옷의 표기가 갈린 1가지 조건은 ㉠이 아니라 ㉣이다.

오답 풀이 ② '전세방'은 명사 '전세'와 명사 '방'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고, '아랫방'은 명사 '아래'와 명사 '방'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므로 ㉔를 충족한다. 그리고 '전세방'은 한자어 '전세(傳貰)'와 한자어 '방(房)'이 결합한 것이므로 조건 ㉔를 충족하지 못한다. '아랫방'은 고유어 '아래'와 한자어 '방(房)'이 결합한 것이므로 ㉔를 충족한다. '전세방'은 앞말 '전세'가 모음 'ㅐ'로 끝났고, '아랫방'은 앞말 '아래'가 모음 'ㅐ'로 끝났으므로 ㉔를 충족한다. '전세방'은 뒷말 첫소리 'ㅂ'이 된소리 [ㅃ]으로 바뀌어 발음되고, '아랫방'은 뒷말 첫소리 'ㅂ'이 된소리 [ㅃ]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㉔를 충족한다. 따라서 ㉔에서 사이시옷의 표기가 갈린 1가지 조건은 ㉔이다.

③ '버섯국[버섯국]'은 명사 '버섯'과 명사 '국'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고, '조갯국[조개국]'은 명사 '조개'와 명사 '국'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므로 ㉔를 충족한다. 그리고 '버섯국'은 고유어 '버섯'과 고유어 '국'의 결합이고, '조갯국'은 고유어 '조개'와 고유어 '국'의 결합이므로 ㉔를 충족한다. '버섯국'은 앞말 '버섯'이 자음 'ㅅ'으로 끝나므로 ㉔를 충족하지 못한다. '조갯국'은 앞말 '조개'가 모음 'ㅐ'로 끝나므로 ㉔를 충족한다. '버섯국'은 뒷말 첫소리 'ㄱ'이 된소리 [ㄱ]으로 바뀌어 발음되고, '조갯국'은 뒷말 첫소리 'ㄱ'이 된소리 [ㄱ]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㉔를 충족한다. 따라서 ㉔에서 사이시옷의 표기가 갈린 1가지 조건은 ㉔이다.

④ '인사말[인사말]'은 명사 '인사'와 명사 '말'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고, '존댓말[존대말]'은 명사 '존대'와 명사 '말'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므로 ㉔를 충족한다. 그리고 '인사말'은 한자어 '인사(人事)'와 고유어 '말'이 결합한 것이고, '존댓말'은 한자어 '존대(尊待)'와 고유어 '말'이 결합한 것이므로 ㉔를 충족한다. '인사말'은 앞말 '인사'가 모음 'ㅏ'로 끝났고, '존댓말'은 앞말 '존대'가 모음 'ㅐ'로 끝났으므로 ㉔를 충족한다. '인사말'은 앞말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나거나, 앞말 끝소리와 뒷말 첫소리에 각각 'ㄴ' 소리가 덧나거나,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지 않으므로 ㉔를 충족하지 않는다. '존댓말'은 앞말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나므로 ㉔를 충족한다. 따라서 ㉔에서 사이시옷의 표기가 갈린 1가지 조건은 ㉔이다.

⑤ '나무껍질[나무껍질]'은 명사 '나무'와 명사 '껍질'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고, '나뭇가지[나무가지]'는 명사 '나무'와 명사 '가지'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므로 ㉔를 충족한다. 그리고 '나무껍질'은 고유어 '나무'와 고유어 '껍질'이 결합한 것이고, '나뭇가지'는 고유어 '나무'와 고유어 '가지'가 결합한 것이다. 두 단어 모두 고유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것이므로 ㉔를 충족한다. '나무껍질'은 앞말 '나무'가 모음 'ㅏ'로 끝났고, '나뭇가지'는 앞말 '나무'가 모음 'ㅏ'로 끝났으므로 ㉔를 충족한다. '나무껍질'은 앞말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나거나, 앞말 끝소리와 뒷말 첫소리에 각각 'ㄴ' 소리가 덧나거나,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지 않으므로 조건 ㉔를 충족하지 않는다. '나뭇가지'는 뒷말 첫소리 'ㄱ'이 된소리 [ㄱ]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㉔를 충족한다. 따라서 ㉔에서 사이시옷의 표기가 갈린 1가지 조건은 ㉔이다.

02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

'일찍이'는 부사 '일찍'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로, ㉔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급히'는 '급-'과 '-히'가 결합한 부사로 어근 '급-'은 '급하다'와 같이 '-하다'가 붙는 어근이다. 따라서 '급히'의 표기에 적용된 규정은 ㉔이다.

② '방긋이'는 부사 '방긋'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부사이므로 '방긋이'의 표기에 적용된 규정은 ㉔이다.

③ '많이 먹다'의 '많이'는 '먹다'를 꾸며 주기 때문에 부사이다. 이 단어

는 '많다'의 어간 ' 많-'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이기 때문에 ㉔의 규정을 적용해서 표기한 것이다.

④ '깊이 파다'의 '깊이'는 '파다'를 꾸며 주기 때문에 부사이다. 이 단어는 '깊다'의 어간 ' 깊-'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이기 때문에 ㉔의 규정을 적용해서 표기한 것이다.

03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 고르기

'이오'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할 경우 '요'로 줄어들기도 한다. 그러나 '서울'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기 때문에 '-이오'가 줄어드는 환경이 아니므로 '-요'가 붙을 수 없다. '후배(화자)'가 '선배(청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㉔의 밑줄 친 '요'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이다.

오답 풀이 ① ㄱ의 '하늘이오'는 '하늘(명사)+이(서술격 조사)+-오'로 분석된다. 여기서 '-오'는 종결 어미이다. [붙임 2]와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종결 어미 '-오'는 [요]로 발음할 수도 있다. 따라서 ㄱ의 밑줄 친 '이오'는 [이요]로 발음할 수 있다.

③ ㄷ의 '부산이오'는 '부산(명사)+이(서술격 조사)+-오'로 분석되기 때문에 하오체 문장이다.

④ ㄹ의 '영화요'는 '영화(체언)+이(서술격 조사)+-오'로 분석되고, '-이오'가 줄어서 '-요'가 된 것이다. '영화요'의 '요'가 보조사 '요'가 아니라 '이(서술격 조사)+-오'로 분석되는 이유는 앞의 질문에서 하오체 종결 어미로 '-이오'가 쓰였고, '영화'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기 때문이다.

⑤ ㅁ의 '무얼 좋아하세요?'에서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소설요?'와 '영화요?'의 '요'는 모두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04 표준 발음

㉔ '끓는'의 비표준 발음은 [글른]으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글느]이 되고 유음화에 의해 [글른]이 된 것이다. ㉔ '짧네'의 표준 발음은 [잘레]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잘네]가 되고 유음화에 의해 [잘레]가 된 것이다. 따라서 ㉔에 들어갈 말은 유음화이다.

㉔ '끓는'의 표준 발음은 [글느]으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글느]이 되고 비음화에 의해 [글느]이 된 것이다. ㉔ '짧네'의 비표준 발음은 [잠네]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잠네]가 되고 비음화에 의해 [잠네]가 된 것이다. 따라서 ㉔에 들어갈 말은 비음화이다.

㉔ '끓기'와 ㉔ '끓지'의 표준 발음은 [끈기], [뜯치]이다. '끓기'에서는 '끓-'의 받침 'ㄹ'의 'ㅎ'과 '-기'의 'ㄱ'이 축약되어 [키]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났다. '끓지'에서는 '끓-'의 받침 'ㄹ'의 'ㅎ'과 '-지'의 'ㄷ'이 축약되어 [치]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다. 따라서 ㉔에 들어갈 말은 거센소리되기이다.

05 음운 변동과 로마자 표기법

㉔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구개음화는 받침 'ㄷ, ㅌ(ㅍ)'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될 때 일어나는데, 받침 'ㄷ, ㅌ(ㅍ)'을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㉔의 '같이'는 [가치]로 발음하고, 이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였다. '땀받이' 역시 구개음화가 적용되므로 [땀바치]로 발음하고, 이를 ㉔과 같이 로마자 표기에도 반영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ㅊ, ㅌ, ㅌ), ㅂ(ㅂ,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따라서 ㉠의 ‘잡다’가 [잡따]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삭제’는 [삭제]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만, 이는 ㉠과 같이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③ ‘ㅅ(ㅅ, ㅆ)’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ㅌ, ㅈ]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놓지’는 [노치]로 발음하고 이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 ‘달아’는 [다라]로 발음되므로 거센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달아’에는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따라서 ‘맨입’은 [맨닙]으로 발음하고 이를 로마자 표기에도 반영해야 한다. ‘한여름’ 역시 ‘맨입’과 같은 음운 조건이기 때문에 [한려름]으로 발음되고 로마자 표기에도 반영된다.

⑤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ㅊ, ㅌ, ㅌ), ㅂ(ㅂ, ㅍ,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백미’는 [뱅미]로 발음하고 이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 ‘밤물’은 ‘백미’와 같은 음운 조건이기 때문에, [밤물]로 발음하고 이를 로마자 표기에도 반영해야 한다.

06 된소리되기

‘얹을수록’은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서 [안즐쭈룩]으로 발음된다. ‘얹을수록’은 ‘얹-+-을수록’으로 분석이 되는데, ‘-을수록’에서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의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라는 조항 때문이다. ‘기델 곳이’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서 [기델꼬시]로 발음된다. ‘기델 곳이’는 ‘기대-+-ㄹ+곳+이’로 분석된다. 그래서 ㉡의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에 따라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즉, ‘얹을수록’과 ‘기델 곳이’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국밥[국뽕]’은 ‘국’의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ㅂ’이 된소리로 발음되었으므로 ‘국밥’의 된소리되기는 ㉠에 따른 것이다. ‘살고[삼꼬]’는 어간 ‘살-’의 받침 ‘ㅁ’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었으므로 ‘살고’의 된소리되기는 ㉠에 따른 것이다.

② ‘꽃다발[꼴따발]’은 ‘꽃’의 받침 ‘ㅌ’ 뒤에 연결되는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었으므로 ‘꽃다발’의 된소리되기는 ㉠에 따른 것이다. ‘할지만[할찌만]’은 어간 ‘할-’의 받침 ‘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었으므로 ‘할지만’의 된소리되기는 ㉡에 따른 것이다.

③ ‘옹조리다[옹찌리다]’는 ‘옹-’의 받침 ‘ㅈ’ 뒤에 연결되는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었으므로 ‘옹조리다’의 된소리되기는 ㉠에 따른 것이다. ‘먹을지언정[머글찌언정]’에서 어미는 ‘-(으)ㄹ지언정’이다. ‘-(으)ㄹ’로 시작하는 연결 어미의 ‘ㄹ’ 뒤에 연결되는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었으므로 ‘먹을지언정’의 된소리되기는 ㉡에 따른 것이다.

⑤ ‘훑다[훑따]’는 어간 ‘훑-’의 받침 ‘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었으므로 ‘훑다’의 된소리되기는 ㉡에 따른 것이다. ‘떠날지라도[떠날찌라도]’에서 어미는 ‘-(으)ㄹ지라도’이다. ‘-(으)ㄹ’로 시작하는 연결 어미의 ‘ㄹ’ 뒤에 연결되는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었으므로 ‘떠날지라도’의 된소리되기는 ㉡에 따른 것이다.

기출 문제 07 국어의 역사

본문 282~285쪽

01 ① 02 ① 03 ③ 04 ② 05 ①

01 국어 표기법의 변화

㉠의 현대어는 ‘울음(울-+-음)’이고, ‘울음[우름]’의 형태소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우름’이다. 따라서 ㉠은 이어 적기로 표기된 것이다.

㉡의 현대어는 ‘웃어(웃-+-어)’이고, ‘웃어[우서]’의 형태소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우서’이다. 따라서 ㉡은 이어 적기로 표기된 것이다.

㉢의 현대어는 ‘미워함’이고, ‘미워함(미워ㅎ-+-ㅁ+을)’의 형태소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미워ㅎ물’이다. ‘ㅎ’의 받침 ‘ㅁ’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적지 않고 각 형태소를 분리하여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었으므로 ㉢은 끊어 적기로 표기된 것이다.

㉣의 현대어는 ‘일은(일+은)’이고, ‘일은[이른]’의 형태소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른’이다. ‘일’의 ‘ㄹ’을 뒤 음절의 첫소리에 적지 않고 각 형태소들을 분리하여 적었으므로 ㉣은 끊어 적기로 표기된 것이다.

㉤의 현대어가 ‘있으면’이므로, ‘잇스면’은 ‘잇-+-으면’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때 ‘잇-’의 받침 ‘ㅅ’을 앞 음절의 종성으로 적고 뒤 음절의 초성으로도 적어서 ‘잇스면’이 되었다. 형태소의 모음 사이에서 나는 ‘ㅅ’을 앞 음절의 종성과 뒤 음절의 초성에 모두 적고 있으므로 ㉤은 거듭 적기로 표기된 것이다.

02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

㉠의 ‘나리’는 현대어로 ‘날이’이다. 명사 ‘날’과 주격 조사 ‘이’로 분석되므로 ‘나리’는 ㉠의 예이다. ㉡의 ‘아드리’는 현대어로 ‘아들이’이다. ‘아드리’는 명사 ‘아들’과 주격 조사 ‘이’로 분석되므로 ‘아드리’는 ㉠의 예이다.

오답 풀이 ㉢ ‘太子’는 현대어로 ‘태자’이다. 모음 ‘이’와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 다음에는 ‘ㅣ’가 주격 조사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원래 ‘太子’에는 주격 조사 ‘ㅣ’가 나타나야 하는데, 주격 조사가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는 주격 조사가 음운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된 ㉡의 예이다.

㉣ ‘두리’는 현대어로 ‘다리가’이다. 모음 ‘이’나 반모음 ‘ㅣ’ 다음에는 주격 조사가 ‘ㅇ(영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으므로 ‘두리’의 주격 조사는 ‘ㅇ(영형태)’로 실현된 것이다. 따라서 ㉣는 ㉠의 예이다.

㉤ ‘孔子’는 현대어로 ‘공자가’이다. ‘孔子’는 ‘孔子’와 주격 조사 ‘ㅣ’로 분석되므로, 모음 ‘이’와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 다음에 주격 조사 ‘ㅣ’가 나타난 것이다.

03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王(왕)이 부텃고 더욱 敬信(경신)한 므스물 내스바’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객체인 ‘부텃(부처)’이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은 ‘부터’이다. <보기>에서 어간 말음이 ‘ㄷ’일 때 결합되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형태는 ‘줍’이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술-, -줄-, -술-’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간 ‘들-’과 어미 ‘-으며’ 사이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할 때는 말이 ‘ㄷ’이므로 ‘줄’이 붙어야 하는데, 뒤에 오는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줄-’이 붙는다. 따라서 ㉔에 들어갈 말은 ‘들즈북며(들-+-줄-+-으며)’이다.

오답 풀이 ‘王(왕)’은 현대어로 ‘왕이’이고 주어에 해당한다. ‘무수물’은 현대어로 ‘마음을’이고 목적어에 해당하지만 높여야 할 대상은 아니다.

04 중세 국어 시기의 용언의 활용

15세기 국어의 ‘도박’이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게 된 것은 <자료>에서와 같이 ‘ㅁ’이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ㅍ’ 또는 ‘ㅌ’ 앞에서는 반모음 ‘ㄷ / ㄴ[w]’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현대 국어에서 ‘길이’ 좁다’는 ‘좁고, 좁아’로 활용하지만 ‘이웃을’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한다. 이처럼 ‘돕다’는 환경에 따라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고, 이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불규칙 활용 용언에 해당한다. 또한 ‘(신을) 벗다’는 ‘벗고, 벗어’로 활용하지만, ‘(노를) 젓다’는 ‘젓고, 저어’로 활용한다. ‘젓다’ 역시 환경에 따라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고, 이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불규칙 활용 용언에 해당한다.

③ 15세기 중엽에는 ‘젓다’의 어간 ‘젓-’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이 ‘젓-’으로 나타나서, ‘저서’와 같이 활용하였다. 그런데 16세기 중엽에는 ‘ㅅ’이 ‘저서>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다. 따라서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ㅅ’의 소실로 어간의 끝 ‘ㅅ’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④ 15세기 국어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로 나타난다고 했다. 즉, 15세기 국어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15세기 국어의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젓고’처럼 어간의 형태가 바뀌지 않았다. 이는 현대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05 중세 국어 시기의 용언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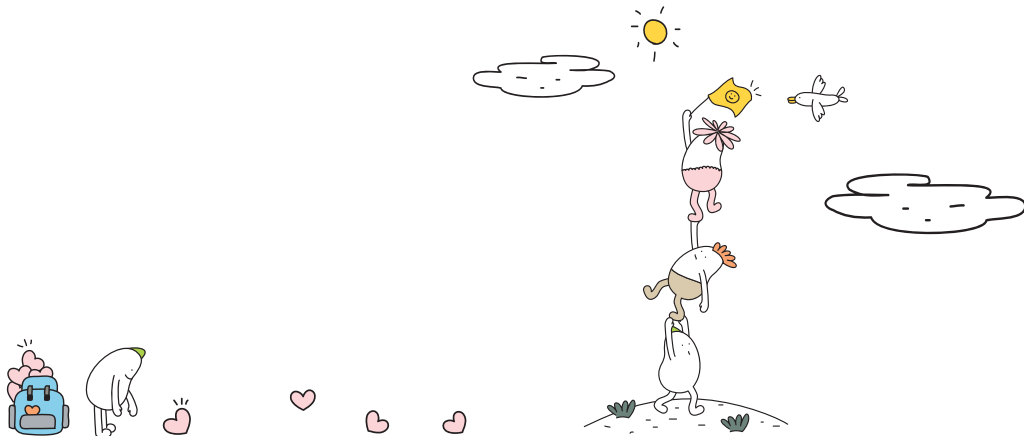
<보기>를 통해서 현대 국어에서 ‘ㅁ’ 불규칙이 나타나는 것은 ‘ㅁ’의 소실과 관련이 있으며, ‘ㅅ’ 불규칙은 ‘ㅅ’의 소실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ㅁ’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형태상 변화가 없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변한다. 현대 국어에서 ‘곱다’와 ‘돕다’는 모두 ‘ㅁ’ 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서도 ‘곱다’와 ‘돕다’는 비슷하게 활용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15세기 국어에서 ‘돕다’의 어간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돌-’으로 나타났다. 이를 참고하면, 15세기 국어에서 ‘곱다’는 ‘곱게, 고박, 고븐’과 같이 활용하였을 것이다. ‘ㅁ’은 15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ㅌ’ 또는 ‘ㄴ’ 앞에서는 반모음 ‘ㄷ / ㄴ[w]’로, ‘ㅂ’ 또는 ‘ㅅ’ 앞에서는 모음과 결합하여 ‘오’ 또는 ‘우’로 바뀌었으나,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같이 ‘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7세기 초엽에는 ‘곱게, 고와, 고온’과 같이 활용하였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② 17세기 초엽에는 ‘ㅅ’이 사라졌으므로 ‘긋다’는 ‘긋게, 그어, 그은’과 같이 활용하였을 것이다.

③ 17세기 초엽에는 ‘ㅁ’은 뒤에 ‘ㅂ’나 ‘ㅅ’가 이어진 경우 모음과 결합하여 ‘오’ 또는 ‘우’로 바뀌었기 때문에 ‘늡게, 누워, 누운’과 같이 활용하였을 것이다.

④ 현대 국어에서 ‘빚다’는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용언이다. 따라서 15세기 중엽 이전에도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빚게, 비서, 비슨’과 같이 활용하였을 것이다.

⑤ 현대 국어에서 ‘잡다’는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용언이다. 따라서 15세기 중엽 이전에도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15세기 중엽 이전에는 ‘잡게, 자바, 자본’과 같이 활용하였을 것이다.



m e m 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